

손기원 연화법사
망자 위한 시다림 봉사 20년
"지극한 정성 최고의 수행"
16 · 17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7월 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003호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은 깨달음의 길이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하다.

한국불교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조계종, 오는 8월 6일 등재 추진위 공식 발족

한국의 전통 사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조직이 공식 발족된다. 이에 따라 전통산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일)은 7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발족식을 오는 8월 6일 오후 2시 총무원 지하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 위원장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집행위원장에는 문화부장 혜일 스님이 분야별 전문가들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전통 산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한 사업은 2011년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전통사찰 세계유산 추진 전문가협의회' 구성하며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2012년에는 전문가 협의회에서 △충북 보은 법주사 △충남 공주 마곡사 △전남 순천 선암사 △전남 해남 대흥사 △경북 안동 봉정사 △경북 영주 부석사 △경남 양산 통도사를 잠정목록 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시 45개 사찰이 심사 대상으로 올랐지만, 새로 전각 불사가 이뤄져 전통성이 이어지지 않는 등의 기준을 적용해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7개 사찰을 대상에 올렸다.

선정 결과 발표 당시 국가브랜드위원회 전문가협의회 위원 장적 스님은 "더 많은 사찰이 등록됐으면 했지만, 등재를 위한 국제적 보편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월정사, 송광사는 6.25 동란을 거치면 많은 전각들이 전소됐고, 금산사도 화재 이후 훼손이 심했다. 주로 건축물과 사격이 잘 보존된 곳을 위주로 잠정 등재 목록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통도사 등 7개 사찰 대상
2018년 최종 등재 목표

12개 지자체와 MOU 체결
업무 교류 및 활성화 기대

관련 세미나 · 연구 사업 진행

이후 지난해 12월 17일에는 '한국의 전통산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됐다.

이번에 발족되는 추진위는 발족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등재 신청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17년 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와 조사, 국내외 학술대회 등을 열어 등재를 위한 보편적 가치를 발굴하고, 유네스코 현지 실사를 거쳐 2018년 등재를 최종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조계종을 중심으로 문화재청과 12개 지방자치단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사업의 추진 근간을 마련하고, 해당 기관 간의 업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예산으로는 각 지자체가 출연한 1억원과 종단 자부담 1억원 등 매년 8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전통산사의 세계 유산 등재의 가치로 선 · 교 융합의 독특한 형식과 현재까지도 승가 공동체의 생활 문화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역동성을 꼽고 있다.

실제 2012년 9월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학술대회 참석한 존 허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문위원회장은 "한국의 사찰은 인도로부터 불교가 전파되는 동안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의 핵심 원칙, 즉 종교철학이 올곧게 전승돼 왔다는 사실에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입구부터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등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찰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7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세월호 유가족이 헌화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생명가치 우선인 세상을 만듭시다"

종단협,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 맞아 추모 위령재

자승 스님 "유가족 · 국민이 납득할 특별법 제정돼야"

지난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 100일 맞아 불교계가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를 마련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7월 24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세월호 참사 위령재'를 개최했다.

이날 위령재에는 세월호 유가족 10여 명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 불교계 종단 지도자와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령재에서 자승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이번 참사는 성장과 물질에 전도되어 생명가치를 가볍게 여겨왔던,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들과 국민 다수가 납득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면서 "생명의 가치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사회를 가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도 돈이 아닌 사람이 중요시 되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권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이미 사람의 목숨보다는 돈을 중시하는 것 같다"면서 "본래대로 돈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우선시 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교가 보여준 지지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불교는 물질적 가치보다는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알고 있고 조계종은 행동으로 부응해줬다"면서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 유가족들은 이 따뜻함을 힘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령재에서는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천도의식이 봉행됐으며, 유가족의 헌화와 불교계 지도자 스님들의 분향 등이 이뤄졌다.

한편, 진도 팽목항에서는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이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실종자 귀환을 기원하는 법회를 개최했다.

신성민 기자

韓中日 불교도 도라산서 세계평화 기원

종단협, 이사회서 보고… 11월 18~20일 서울 일원

한중일 3국의 불교도들이 파주 도라산 전망대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7월 17일 2014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제1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 한국대회 일정을 공유했다.

종단협 사무처가 이사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7차 교류대회는 11월 18일~20일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불교사상에서의 평화의 실천'을 주제로 열린다. 대회는 18일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환영만찬, 19일 오전 9시 국제학술강연회 뒤 오후 남북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과 땅굴 방문에 이어 도라산 전망대에서의 세계평화기원법회, 공동 합의서 체결 및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세월호 유가족 '힐링' 위해 템플스테이 무료 개방

유가족 대책위 협의 후 진행

안산 중 · 고교 학생 · 교직원은

9월 19일까지 13개 사찰서

9월부터 일반인도 참여 가능

한국 해양 사고 중 가장 아픈 역사로 기록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을 트라우마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기 위해 불교계가 나선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국민과 함께 세월호 침몰사고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며 "특히 세월호 유가족 및 안산시내 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게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템플스테이는 가족 대책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진행되며, 산청 대원사와 용인 법륜사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운영 형태는 온전한 휴식형 템플스테이로 참가일수는 자율이며, 사전 신청을 하면 스님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안산시 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무료 템플스테이는 7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아생여당'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13개 사찰에서 최대 2박 3일까지 가능하다. 운영 형태는 휴식형을 기본으로 하되 요청할 경우 다른 체험 프로그램도 결합해 진행할 수 있다.

일반 국민에게도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국 110개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 전체에서 이뤄지는 무료 템플스테이는 '가족이 함께 하는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희망을 말해요'를 주제로 이뤄지며 초중고교 자녀와 함께 하는 4인 이하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9월 1~19일동안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으며, 일반인 대상 무료 템플스테이는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참가일수는 1박 2일 한정이다.

신성민 기자

1003호 INDEX

연중 기획 5
탐진치 줄이기- 행복으로 가는 길



종합 2·3
불교환경의제21 변화 주제 토론회
선학원 분원장 회의 놓고 신경전
'오대산 명상 지구' 특구화 필요
BBS TV 뉴스, 라디오로도 청취

새연재 14
화엄의 꽃 절집천정

불교로 읽는 고전 24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디자인 등록원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7월 23일 자비나눔 방문으로 이대목동병원에 입원한 김민하 소방대원을 찾아 쾌차를 기원했다.

"당신의 헌신으로 우리가 삽니다"

자승 스님, 23일 부상 소방대원 자비나눔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부상으로 입원한 소방대원을 찾아 쾌차를 기원했다.

자승 스님은 7월 23일 자비나눔 방문으로 이대목동병원에 입원 중인 김민하 강서소방서 대원을 찾았다. 김 대원은 지난 6월28일 소방 활동을 하던 중 11m 높이에서 추락해 큰 부상을 입었다.

권병용 강서소방서장과 함께 병실을 찾은 자승 스님은 "헌신적인 소방대원들의 활동 덕분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쾌유를 기원한다"고 위로했다. 이에 김 대원은 "어머니께서 어린 아기가 염주를 목에 걸고 태어나는 꿈을 꾼 후 저를 낳았다"며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앞서 자승 스님은 강서소방서에 도착, 소방업무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후 금일봉을 전달하며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자승 스님은 "소방대원들은 항상 긴장감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근무환경이 보다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비나눔 방문에는 사회부장 정문 스님, 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新환경의제보다 실천 동력 마련 시급"

조계종 환경위, '불교환경의제21 변화' 주제 토론회

2006년 불교환경운동의 실천적 의제로 제시됐던 '불교환경의제21'을 새롭게 리뉴얼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조항의 환경 의제가 아닌 실천적 주체와 동력들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는 7월 21일 '불교환경의제21의 진화와 실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불교환경의제21'이 만들어진 지 10여년이 지남에 따라 지금에 맞는 환경실천 전략 재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지난 2006년 3년에 걸쳐 완성된 '불교환경의제21'은 사찰과 지역공동체, 생태사찰 만들기 등 5개 분야에 걸쳐 만들어진 31가지의 환경실천방침이다. 종단 · 사찰 · 사부대중에게 제안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종교계에서는 최초로 제정되어 21세기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불교 환경사상을 구체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실천 주체와 조직, 예산이 갖추어지지 않은 탓에 지속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빈그릇운동, 생태사찰 만들기, 친환경 공양미 올리기 등이 깜짝 등장했다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토론장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토론자들은 환경의제21이 사부대중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어떻게 공유하고 연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연대와 실천이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로 내세웠다.

최원형 소장(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은 "현장에서는 실천가보다 스님의 말 한마디가 중요했다"며 스님이 운동확산의 구심점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십년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투정할 것이 아니라 당장 환경위에서 행할 수

2006년 만들어진 31가지 환경지침
활동 주체 · 조직 · 예산 없이 표류 중
종령부터 조직 · 프로그램 개발해야

있는 구체적 실천방침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환경 · NGO단체의 영향력이 위축된 상태에서 불교환경의제21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조채희 소장(사찰생태연구소)은 "교계 환경단체의 동력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난 10년 전과 똑같이 실천력 부재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도회 등이 탄탄한 사찰 중심으로 프로그램보급 확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7월 21일 '불교환경의제21의 진화와 실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정길 조계종 환경위원(에코붓다 전 공동대표) 역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공감대 역시 부족했다"는 것을 실패 원인으로 꼽으며 관련 종령 마련과 예산 편성, 실무자 3가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심주체를 총무원으로 각 사중 스님, 종무원, 보살, 청년, 청소년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상명하달식이 아닌 밑으로부터의 역동성을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유 위원은 녹색불교의제 추진위원회를 올해 9월까지 구성하고 1년간의 활동을 거쳐 실천위원회를 조직하자고 주장했다.

종단 참여에 대한 현실성을 제기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3년 정도 환경위원회에서 추진한 다음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사부대중 사이에서 공감대 역시 확보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불교환경의제21이 자성과 쇄신과 맥을 같이해 궁극적 불교의 변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자연환경의 문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환경을 포괄하는 사회가치관 전반의 문제로 운동을 확대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순환적이고 자족적인 삶을 화두로 일본에서 시작된 사방승가 운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불교적 가르침과 원리를 사회체계에 적용해 지역공동체와 생태계를 재생시킬 수 있는 녹색불교로의 진화를 제안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불교 사회적 기업 활성화 양적 확대부터"

날마다좋은날, 22일 불교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열어

중앙신도회 (사)날마다좋은날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본부장 박주언)는 7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14 불교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가 진행해온 성과와 관심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세션1 · 2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유남희 교수(전북대 산학협력단)가 불교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론을, 김광수 소장(신나는조합 신나는기업 상생연구소)이 '불교의 잠재돼 있는 유무형의 자산과 콘텐츠개발 및 활용방안'을, 성진경 대표(사회적기업 오마이컴퍼니)가 '크라우드 펀딩의 불교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활용방안'을, 강대성 대표(SK행복나래)가 '불교경제주체들의 생산품 및 서비스 판로 지원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남희 교수는 "불교계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업종별, 지역별로 불교 사회적기업의 양적확대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부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폭적인 이해와 합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 콘텐츠개발의 활용방안을 발표한 김광수 소장은 "불교사회적 기업을 시작할 때 불자용품을 전제로 시작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마인드는 불교적이지만 스토리와 아이템은 대중적으로 가야한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과 액세서리 등의 디자인은 친근하면서도 세련되고 독특한 것으로 만들어야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2부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종각 판로지원본부장, 불교사회적경제 네트워크포럼 김선배 대표를 비롯한 세션1 발표자들이 나와 활성화방안, 콘텐츠개발, 자금, 판로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조계종 · 선학원, 분원장 회의 놓고 신경전

"회의 참석 해종행위"對 "이사회 결의 재지지"

호법부 회의 앞서 입장문
임원진 멸빈 검토 시사도

선학원 부산 · 대구 회의 진행
분원장들 대다수 지지 결의
수덕사 대책위는 피켓 시위

법인 등록을 놓고 갈등 중인 조계종과 선학원의 신경전이 선학원 소속 분원장 회의로 번지고 있다. 조계종은 선학원 임원진이 여는 분원장 회의 참여는 해종 행위라고 못 박았고, 선학원은 이와는 상관없이 우리 갈 길을 간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호법부는 (부장 세영)는 7월 1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선학원 임원진이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해종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호법부는 "종헌 · 종법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선학원 임원진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는 그 내용이나 형식을 떠나 분종 내지 탈종을 기도하는 회의로 오인될 수도 있다"면서 "분종 내지 탈종을 기도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종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선학원 임원진들에게 멸빈 징계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호법부는 "선학원 임원진이 '조계종의 종헌 · 종법에 동의할 수 없음'을 사유로 '제적원'을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승려법 제46조 제8호 내지 제47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종 3차 등원 요구에는 응할 것을 선학원 이사진에 촉구했다.

하지만 선학원은 종단의 입장문에 불응했다. 분원장 회의의 경우 지난 7월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지역마다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사안이다.

종단의 경고에도 선학원 분원장 회의는 큰 문제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부산 금정사에서 열린 분원장 회의에서는 32명의 분원장이 참석했으며, 이중 97%가 "이사회 결의를 지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동의할 수 없다 △종단은 더 이상 (재)선학원에 간여하지 말라 △정화의 이념을 존중하라 등의 결의 사항에도 동의했다.

24일 대구 보성선원에서 열린 분원장 회의에서는 33명의 분원장이 참석해 전원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에 서명하고 재단 임원진의 향후 행보에 조건없이 따를 것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덕사 문중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과 수덕사 선학원대책위원회 스님들은 부산 금정사와 대구 보성선원에서 진행된 분원장 회의를 모두 찾아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종단의 종헌 종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위문 공양비 왜곡돼 유감"

부산경승실, 찬조금 논란 입장

이금형 부산경찰청장이 올해 초 부산경찰청 경승실 관계자들에게 찬조금 50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경찰청 경승실이 위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왜곡 보도됐다고 해명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경승실(실장 수불, 이하 경승실)은 7월 1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의경들을 격려하고 위문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전달한 선의의 마음이 왜곡 보도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승실은 "선의의 위문 행사를 왜곡하여 부당하게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하여 적극 해명하고 정정 보도 요구를 분명히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경 위문 행사시 관계법령을 검토해 선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위문 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학원 분원장스님들께 호소합니다.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지켜주십시오

지난 6월 30일 선학원 임원들은 종단에 제적원을 제출하였으며, 7월 7일 교계기자간담회를 통해 탈종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종단과의 관계 정립을 바라는 대다수 분원장스님들과 종도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정입니다.

선학원은 종단 선대 어른스님들과 주요 사찰들이 일제시절 한국불교의 왜색화에 저항하고, 전통교단의 선풍을 계승하기 위해 삼보정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때문에 지금 선학원 이사장과 임원들의 본분사는 전통교단으로서의 종단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종단의 선풍을 진작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선학원의 이사장과 임원들은 이러한 본분사와는 상반되는 결정을 통해 선학원의 설립취지를 왜곡시키고, 탈종단화하고 있습니다.

선학원은 이사장과 임원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선학원의 설립취지를 온전히 계승 발전시켜야 할 이사장과 임원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분원장스님들에게 사실상 탈종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도 사실상 거부하고, 종단과의 대화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선학원 분원장들과 종도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선학원 이사장과 임원들이 종단의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단의 종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학원 분원장스님들과 종도들께서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학원이 종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종단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구본사주지들은 종단의 뜻에 따라 선학원 이사장과 임원들이 종헌종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결정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선학원 이사장과 임원들의 탈종단행위에 대해 선학원 분원장님들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단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불기2558(2014)년 7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위해서는

“오대산 명상지구 特區화 필요”

제23회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3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오대산 월정사 일원을 명상 지구로 특구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불교계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설립 계획은 지난해 8월 평창군에 의해 기획돼 정부에 심의 과정을 거쳤으나 최종적으로는 반려된 상태다.

월정사 박재현 종무실장은 “지난해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특구지정 및 특구 종합계획안’을 정부에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무난히 통과됐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논의 끝에 반려됐다”면서 “다시 오대산 일원을 명상 지구로 특구화 하는 사업안을 작성해 정부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1차로 제안된 계획안을 살펴보면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특구 지정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 개최하고 ‘문화 올림픽’으로 승화하기 위한 콘텐츠이다.

평창군은 계획 보고서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요 경기가 열린 평창건강종합특구와 가장 근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이점과 백두대간의 중심인 오대산의 자연, 역사 문화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면서 “명상을 중심으로 한 오대산 자연명상지구를 조성해 명상치유를 통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또한 사업 면적은 오대산 일원 0.65㎢으로 명상 마을, 스포츠 수양촌, 연구 및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추진본부 관계자는 “지역 신문에서도 문화 올림픽을 위해 오대산 명상 지구 특구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다양한 여론과 대안이 모아지면 특구화 계획안을 정부에 올릴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계획안을 작성해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차 계획안 상정
국토부 심의서 최종 반려돼
계획안 재수립해 지정 추진

‘문화 올림픽’ 위한 필수 요소
교구본사協, 지정 촉구 결의
평창군의회서 관련 발언 이어져

오대산 명상지구 특구화 사업은 강원 불교계의 현안인만큼 이에 대한 관심도 높다. 실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돈관)은 7월 18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지역현안인 2018 평창올림픽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특구 지정 촉구 및 성공적 개최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대산 자연명상 지구 특구화 시설배치 계획도. 지난해 8월 수립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평창군은 다시 계획안을 작성해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사주지협은 결의문을 통해 2018 평창올림픽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특구 지정을 관계부처에 촉구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성공적 개최에 동참하고, 문화올림픽을 위한 전통문화 육성 등도 결의했다.

본사주지협은 “우리 고유 명상문화를 통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 기여와 외국인 관광객에게 명상문화를 체험을 통해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오대산자연명상지구’를 올림픽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창군의회에서도 오대산 자연명상지구의 특구화 지정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범연 평창군의원은 7월 22일 속개된 평창군의회 제3차 본회의 군정 주요사업 보고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도로변 노후 다가구주택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동계올림픽특구 변경 시 오대산 명상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평양불교문화회관 건립 추진나설 것”

민추본, 23일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와 MOU체결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가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소장 고유환)와 손잡고 민추본 발전과제 보고서 ‘민추본2.0’의 비전 구체화에 나선다.

민추본은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남북관계 연구, 조사, 교육 분야 등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동국대는 1994년 국내 최초로 북한학과를 신설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2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교육사업이 공동 추진된다. 평양불교문화회관 건립 타당성에 관한 연구조사 역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민추본은 지난 4월 중장기 대북사업 로드맵을 발표하며 금강산 지역으로 국한됐던 남북교류를 평양, 개성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평양불교문화회관 건립을 통한 북한주요지역 교류거점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지홍 스님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남북불교교류 및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를 기반으로 남북통일문제를 협의해나가겠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고유환 교수 역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는 20년간 학과를 운영해오면서 남북관계 연구에 관해 나름대로 축적해온 노하우가 있다.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해 종단과 종립학교가 손잡은 만큼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추본 집행위원이기도 한 고유환 교수는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불교통일교육 내용을 연구개발하고 과정을 개설해 종단소속 스님과 일반 신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불교통일 인재 양성을 위해 인턴십 및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와 7월 23일 업무협약을 맺고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사진 오른쪽은 지홍 스님, 왼쪽은 고유환 소장

日 위안부 할머니 기록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위안부 피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월 18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재청, 여성가족부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간 주도로 민·관 합동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등재 추진전략을 짜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일본 반발과 반대로비가 예상되므로 정부 단독 혹은 이웃 국가간 공동등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이 중심이 되는 형태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기반해 여성가족부는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관련 자료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안부 관련 기록물에는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증명하는 자료와 피해 사실 기록,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집회 기록과 각 국 의회 결의안 등이 포함된다.

배현진 기자

미국 내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계기 마련

韓美 양국 7월 22일
‘환수협력 양해각서’ 체결
불법 드러나면 형사 몰수
정보 공유 등 효과 기대돼

불법반출된 미국 내 한국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소속 이민관세청(ICE)과 7월 22일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민관세청은 미국 내 각종 수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상급기관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을 반환하며 진행한 한미 공조가 계기였다. 양해각서 체결 전 한미 양국은 이미 ‘호조태환권 원판’이 미국 경매에 올려지자 공조수사를 통해 불법 반출됐음을 밝히고 환수한 바 있다.



문화재청장(나선화, 왼쪽)과 미국 이민관세청장 토마스 윈코스키가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를 7월 22일 오전 11시(미국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체결했다.

한미 양국은 문화재 반환을 진행하며 양해각서 체결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올해 4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7개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제법 상 한계가 있었던 6·25전쟁 당시 미군이 불법반출한 문화재에 대한 환수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양해각서에서는 6·25 전쟁 당시 미군 등에 의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가 미국 내에 있는 경우 미국 국내법에 따라 형사 몰수해 환수토록 했다.

그동안 미국 내 문화재 환수는 국제사회에서는 ‘무력충돌 시 문화재보호협약(1954년 헤이그협약) 제1 의정서’에 의거한 전시(戰時) 반출문화재 반환 차원에서 진행됐으나, 이런 반환은 대부분 전후 피해보상 등의 단계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비소급효 원칙(시간을 거슬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란 점이 발목을 잡아왔다.

또 불법 거래 문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양국 간 정보공유를 명시해 향후 미국 내 한국문화재에 대한 정보 또한 공개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현재 대검찰청과 美국토안보수사국이 압수 수사 중인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의 환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BBS TV 불교뉴스, 라디오로도 청취

8월 1일부터 TV·라디오 동시 방송 시작

BBS 불교방송이 8월 1일부터 불교계 종합 뉴스 프로그램, ‘BBS 뉴스’를 BBS TV와 FM 라디오를 통해 전국 동시 방송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TV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와이드 불교문화뉴스를 공중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게 된다.

BBS 불교방송은 올해 1월 1일부터 BBS TV를 통해 불교 종합뉴스 프로그램 ‘BBS 뉴스’를 방송하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불교 뉴스를 선보여왔다. 불교 종합뉴스 프로그램인 BBS 뉴스는 불교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식과 행사들을 현장 취재기자들을 통해 심층 취재 보도하는 한편, 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재가불자들을 초대하는 단박인터뷰 코너를 통해 불교계 인사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도 전해주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매일 오전 7시와 10시30분, 밤 10시에 남녀 전문 아나운서의 2MC 체제로 불교계 현장의 생생한 뉴스를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온 BBS 뉴스가 8월 1일부터 매일 오전 7시 FM 라디오(서울 101.9 MHz)를 통해 전국의 청취자들과 만나게 되면 보다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다양한 불교계 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방송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뉴스 전문 페이지도 준비 중이다. 이로써 BBS 불교방송의 교계 뉴스를 TV와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한꺼번에 만날 수 있게 돼 전국의 불자와 시민들에게 보다 내실 있고 알찬 불교계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게 됐다.

양봉모 보도국장은 “앞으로도 불교방송은 불교계 대표 방송전법도량으로 정법을 지키는 호법신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지장보살님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 현신하신다!!

‘영산불교 현지사 대구분원’은 지장보살님의 주처(住處)로서 영험한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지장보살님 가피로 딸아이가 취직을 하다

2012년 음력 12월 1일 지장보살님 100일 기도에 입재한 후 지금까지 계속 지장보살님 10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지장보살님 가피를 제일 크게 받은 사람은 제 딸입니다. 제 딸은 2013년 5월에 국민보험공단에 입사할려고 시험을 보았지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두 번이나 면접에서 떨어지자 낙심을 하고 다시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공무원시험에서도 낙방의 쓴 맛을 또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장보살님께서 더 좋은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마음을 다독이면서 딸을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년 그대로 국민보험공단에 원서를 내고 필기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고 이제 면접을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시험 때문에 준비를 못해서 기대를 안했고, 제가 걱정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보험공단에 원서 내는 것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며칠 후에 면접을 보고 드디어 합격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애써도 되지 않던 합격이 이번에는 너무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기 직전에 딸이 꿈을 꾸었답니다. 길을 가는데 하늘에 큰 화분이 매달려 있고 그 화분에서 네 잎 클로버를 두 개 따는 꿈이었는데, 지장보살님께서 주신 행운이었습니다. 지금 딸은 연수를 끝마치고 자기에게 딱 맞는 직장이라고 매우 좋아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도 불자로서 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 대구시 서구 평리로 54길 이상혜

지장보살님 기도 및 공부하는 방법

매일〈지장보살본원경〉을 1독 하고(분량이 많으면 몇품씩 나누어 읽는다)
츰부다라니를 7회 정도 독송하고 참회발원하고 ‘지장보살’ 칭명염불을 합니다.

대구분원 지장재일 안내 :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대구분원 재일행사 안내 : 음력 1일, 15일, 23(미륵재일), 2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영남대학병원정문앞) 053)654-5557

불자 여러분들에게 정법과 사이비·외도·사마외도의 구별기준을 제시합니다

“삿된 외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대지의 흙과 같이 많고, 정법을 만나 수행하는 사람은 손톱 위의 흙과 같이 적다!”

「잡아함경」

정법교단은 ①청정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②부처님의 실존을 믿으며 ③지옥·극락 등의 사후세계가 확실히 있음을 가르치고 ④영혼체가 윤회주체임을 설하며 ⑤금강경 등 경전을 중시하고 칭명염불을 정통수행법으로 채택하며 ⑥부모·조상님에 대한 효행, 스승 공경과 나라 사랑, 이타의 보살행을 핵심 수행덕목으로 삼고 실천하는 교단입니다.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033)243-1787

일 주 문



교구본사주지협, 2천만원 기부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돈관 스님은 7월 23일 아름다운동행에 세월호 희생자 및 탄자니아 아프리카 농업학교건립 지원기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우란분절 특별법회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7월 27일 5재에 이어 8월 10일 7재까지 우란분절 기념 '부모은중경' 특별법회를 진행한다.



111일 화엄성중 기도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7월 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111일 화엄성중기도에 입재했다.



1366 경북센터, 가정폭력 근절 캠페인

여성긴급전화1366경북센터장 진원 스님은 7월 22일 지역내 폭력을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영천체육관에서 진행했다.

〈부고〉 미야바야시 일한불교교류협회장 입적



한일 불교문화 교류에 앞장서온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이 7월 10일 일본 카마쿠라 코우묘우지에서 세납 83세로 입적했다. 철야 극락왕생 기원 의식인 쯔야는 7월 17일 가족 · 친지들이 참석하는 다비의식인 밋소우는 18일 코우묘우지에서 엄수됐다. 외부 인사들이 조문하는 영결식인 호운소우는 9월 16일에 엄수된다.

노덕현 기자

〈인사〉 김종진 문화재청 차장 임명



정부는 신임 문화재청 차장에 김종진(5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을 임명했다. 7급 공채 출신인 김 차장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기념물과장 · 사적과장 · 무형문화재과장과 문화재청 재정기획관 ·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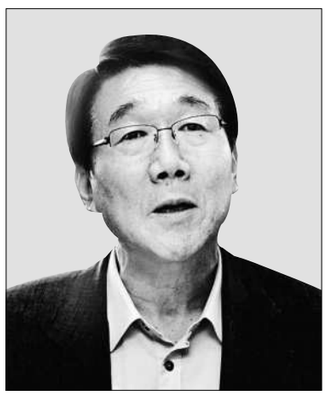
〈인사〉 진각종, 심인당 10곳 주교 인사 단행

진각종 인사위원회(위원장 회정)는 7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정심인당 등 10곳 심인당 주교 인사를 단행했다.

△지정심인당 주교 상제 정사 △천혜심인당 주교 혜언 정사 △신락심인당 주교 향덕 정사 △남부심인당 주교 법경 정사 △시복심인당 학인 정사 △관행심인당 주교 재당 정사 △화친심인당 주교 석인 정사 △법륜심인당 주교 현해 정사 △복전심인당 주교 원영 정사 △입정심인당 관훈 정사

"동문 뜻 모아 젊은불자 양성하자"

내홍 딛고 첫 동문대회 여는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



제12회 총동문대회, 500명 참가
8월 23~24일 1박 2일간 개최
초청강연, 극락암 포행 등 다양

"10년 뒤 노년 불자들의 자리를 채워줄 젊은 불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젊은 불자들이 없는 것은 불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대불련 총동문대회는 대학생 불자들을 넘어, 젊은 불자들을 한국불교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끄는 장이 될 것입니다."

백효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은 7월 21일 서울 종로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총동문회가 8월 23~24일 1박 2일간 양산 통도사에서 지난 내홍 이후 첫 동문대회를 열고, 대학생 포교 활성화와 대불련 동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제2 도약을 추진한다.

제12회를 맞는 이번 동문대회에서는 '열어온 50년, 열어갈 50년'을 캐치프레이즈로 행사 첫날인 23일 통도사 설법전에서의 입재식으로 문을 열고 22개 지회 소개 및 새 비전 공유, 공로패 전달,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어 다음달 23일 밤 11시 2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설법전에서 철야정진이 이어지며, 금강계단 탑돌이와 극락암 순례도 진행된다.

다음날 오전에는 전국지부장들이 모여 젊은 불자 육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된다.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한국불교에서 청년불자 육성은 매우 중요하며 2014년 대불련 51주년과 2017년 총동문회 50주년을 앞두고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해 대학별 자생력 향상 등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 총동문회장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가 미래 한국불교 성장의 원동력이 될 젊은 불자 육성에 앞장서겠다"며 "스님 초청강연, 무료템플테이 등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사호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재, 동문의 참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백 총동문회장은 이날 △22개 기존 지부 활성화 및 신규지부 확충 △대학 내 60여개 불교 동아리 활성화 △사단법인 대불을 통한 재정 투명화 및 기부 증대 △5산명찰 순례 등 기존 참배프로그램 확대 △2017년까지 장기로드맵 구축 및 시행 등을 제시했다.

백 동문회장은 "지난 6월 15~16일 열린 대불련 총동문회 워크숍에의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 불자 양성 및 대불련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며 "선배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무너져 가는 대불련 재건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착한짜장면' 운천 스님 '짜장 콘서트' 연다

8월 3일 남원 선원사에서… 퓨전가야금, 명상 음악 공연 등



2009년 태안 사고 봉사담 듣고 발심
교도소 · 복지관 · 재난지역서 봉사
소외계층위해 20만 그릇 무료 공양

"스님이라고 꼭 절에 앉아 염불하고 포교활동만 하라는 법이 있나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한 끼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부처님의 참뜻이라고 생각하며 봉사에 매진하는 스님이 있다. 일명 '짜장스님'으로 불리는 전북 남원 선원사의 운천 스님이 주인공이다. 매주 각계 소외계층에게 짜장면을 보시해 온 운천 스님이 '20만 그릇 무료공양 돌파'를 계기로 8월 3일 남원 선원사에서 '짜장콘서트'를 연다.

운천 스님이 이끄는 자선봉사단체 '사랑실은 스님짜장'이 개최하는 이날 콘서트는 짜장면 보시를 위한 기금마련을 위한 것이다. 콘서트를 시작으로 10만등 불사가 진행된다. 콘서트에서는 백제가야금연주단의 퓨전 가야금 연주 무대와 '노래하는 수행자'로 불리는 심진 스님의 명상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또 가수 조미량 씨의 노래와 행위예술가 한영애 씨의 퍼포먼스 공연도 이어진다. 한국 무용가 정고을 씨와 한국 유일의 부토무용의 대가 서승아 씨도 출연한다. 이밖에 유유(유진), 강철수, 얼쑤 등이 출연해 다양한 음악을 관객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콘서트에 앞서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짜장면 대중공양과 종각 및 설법전 낙성식이 봉행된다.

이번 짜장콘서트에 대해 운천 스님은 "참선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 속으로 끌고 들어가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교도소를 비롯한 여로 곳에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작은 정성이라도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스님의 짜장면 봉사는 2009년으로 올라간다. 남원 선원사 주지로 임명된 후 사찰 신도 중 한 거사가 '아는 중국집 사장님과 함께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 가서 짜장면 1000 그릇을 만들어 봉사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심했다.

그동안 스님의 짜장면 보시에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

"선원사에서 돼지감자를 재배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비용을 마련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친형님이 도움을 많이 주고, 고등학교 동창 등 인연이 닿은 분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스님은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주는 것 또한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의 여러 곳을 찾아 부처님의 가피력이 허락하는 한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故김상현 교수 1주기 추모법회



동국대 정각원(정각원장 법타)은 7월 20일 故김상현 교수 1주기 추모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는 박태원 교수 등 유족들을 비롯해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 전보삼 박물관협회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삼국유사〉 연구의 권위자로 40여년 간 한국불교사 연구에 매진해온 김상현 교수는 한국불교사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로 2013년 정년퇴임 후에도 집필과 강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지난해 7월 21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찰음식 협약



사찰음식 보급에 불교계 복지기관이 나선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원경)〈사진왼쪽〉은 사찰음식 전문체험 기업 해피마중물(대표 김진여심)과 7월 23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재단 교육시설과 각종 복지기관에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사찰음식 도시락 등을 소외계층에 제공한다.

한편, 해피마중물은 사회봉사와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자연음식 조리체험 프로그램, 걷기명상, 다도, 담화 등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민추본 신임 집행위원 4명 위촉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는 신임 집행위원 4명을 7월 23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일 스님, 사회국장 덕운 스님, 김이경 前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은실 한전병원내과 주임과장이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이기도 한 김은실 과장은 향후 북한 어린이에게 영양식과 의료품을 지원하는 도담도담 캠페인에 자문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대원불교문화대학 2014학년도 2학기 신입생 모집

대 학 2년 4학기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 (주간 • 야간 / 수 • 금요일)
유식심리학/철학과 심리/성격심리학/집단상담 I /상담심리학/발달심리학/동 · 서양 철학의 행복론/긍정심리학/심리치료와 몸/실습상담면접기술/심리검사 및 평가/불교심리학 등

◐ 명상학과 (주간 • 야간 / 수 • 목요일)
불교수행과 실습/비교명상의 이해/유식심리학/철학과 심리/명상과 치유/불교명상학/불교심리학/동 · 서양 철학의 행복론/불교와 마음치료/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 실습/명상과 몸/현대 명상의 이해와 실제 등

■ 입학자격 : 정규 고등학교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한 분

■ 강의시간 :
· 주간 : 제1교시 14:00 ~ 15:30 / 제2교시 15:40 ~ 17:10
· 야간 : 제1교시 19:00 ~ 20:30 / 제2교시 20:40 ~ 22:10

■ 수업료 : 300,000원(학기당)

대 학 원 2년 4학기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야간 / 수 • 목요일)
집단상담 II /부부 및 가족상담/유식심리학/철학과 심리/상담심리치료/정신병리학/불교심리학/동 · 서양 철학의 행복론/개인상담 실습 및 슈퍼비전/자아초월과 심리치료/MBSR · 수용전념치료(ACT) 등

■ 입학자격 :
· 본 대학 또는 불교교양대학 불교심리상담 과정을 이수한 분
· 정규대학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 이상에서 상담 관련학 전공으로 졸업(예정)한 분

■ 강의시간 :
· 야간 : 제1교시 19:00 ~ 20:30
제2교시 20:40 ~ 22:10

■ 수업료 : 400,000원(학기당)

특전
◐ 장 학 혜 택 : 성적 우수자, 근로장학생 외
◐ 수업료 할인혜택 : 스님, 가족동반 등록(부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1인에 한하여) 수업료의 50% 할인혜택

원서접수 및 문의

■ 접 수 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홈페이지 : www.kbpf.org
◐ 전 화 : (02)707-1072
◐ 팩 스 : (02)3273-1618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BBS불교방송) 3층 대원불교문화대학

■ 접수 및 전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www.kbpf.org에서 양식 다운로드)
◐ 전형방법 : 서류전형 (심사 후 개별통보)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4년 8월 29일까지
◐ 개 강 : 2014년 9월 3일(수)
주간 : 오후 2시, 야간 : 오후 7시

■ 오시는 길 및 문의
◐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 문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02)707-107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貪心 줄이기
탐심

–더 나누자

“무한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바른 깨달음 얻길”

교직원 중 90%인 1천명 회원
9년 째 의료봉사 및 신행활동
사찰과 연계한 승가의료봉사

“연우회는 앞으로도 의료 자비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건강한 내일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일산병원 교직원 불자 모임인 연우회(회장 성낙진)는 1500여명의 직원 가운데 90% 이상인 1000여 명이 활동하는 대규모 봉사단체다.

이들은 분초를 다투는 병원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활발한 신행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 불사의 원을 세우고 함께 무한 공덕의 꽃을 피우기 위해 자비실천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연우회는 신뢰와 화합을 통해 동서의학이 공존하는 최고의 일터를 만든다는 의미로 2005년 12월 1일 400여 명이 가입해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약사보살행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지금까지 정기 법회를 비롯해 성지순례, 템플스테이,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신행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연우회는 지도법사 증휘 스님의 지도하에 총괄 및 회계를 담당하는 총무부, 법회 및 성지순례를 맡고 있는 구도부, 의료봉사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노력봉사를 진행하는 봉사부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연우회는 사찰과 연계해 승가의료봉사 활동을 펼쳐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성낙진 회장은 “지병을 수행 거리로 여기고 병원을 찾지 않는 수좌 스님들이 건강하게 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지난 봄 해인사를 방문한 연우회는



동국대학교병원 교직원불자회 연우회

사중 스님과 학인 스님을 대상으로 양 · 한방 진료 및 수액요법을 시행했는데, 세수 90세가 넘어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던 노스님이 수액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고 편안해 하시는 모습과 침 치료 후 한결 가벼워진 어깨를 신기하듯 돌려 보는 스님을 볼 때면 봉사의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우회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2010년부터 시작했던 재가노인 방문간호 봉사활동은 대표적인 나눔의 장이 됐다.

이들은 불암사에서 운영하는 의정부 송산실버문화센터와, 봉선사에서 운영하는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양방 ·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 등의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낙진 회장은 “앞으로도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내원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의료봉사 및 의료공양과 노력 봉사를 펼쳐 지속적으로 자비실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밖에 연우회는 2012년 지역 사회 중증장애인시설인 김포 가연마을과 인연을 맺어 의료장비기증, 의료봉사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성낙진 회장은 “불자들의 서원으로 이룩된 수행, 포교, 자비행이 함께 하는 종립병원의 일원으로 불자 신행단체인 연우회가 이웃을 위한 무한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바른 깨달음을 얻고 이웃에게 기쁨과 행복을 회향하는 신행단체로 거듭날 것 기대한다”고 다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瞋心 줄이기
진심

–더 낮추자

“1초의 알아차림으로 화는 사라진다”

정신과 육체의 반응
살피는 것만으로
화 가라앉힐 수 있어

“분노는 불과 같아서 한번 일어나면 남도 태우고 나도 태웁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마음의 평온도 없죠. 불교에서는 이 분노를 마음의 큰 적이라고 합니다. 분노는 본인 뜻대로 안됐을 때 일어나는데 핵가족 제도에서 자라 공동체 교육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는 분노조절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알아차림을 통해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님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것만으로 화를 멈출 수 있다고 말한다. “부처님께서 제1의 화살은 맞을지언정 제2, 제3의 화살은 맞지 말라고 하셨어요. 즉 화가 났을 때 그 순간 화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를 폭파시켜 제2 제3의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시 자신의 화를 알아차리고 상황을 직시하는 것만으로 화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 스님은 이에 대해 세 가지 단계를 들어 설명한다. 첫째, 화가 났을 때는 잠깐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만으로 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1초의 ‘깨어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정신과 육체의 반응을 살피는 것만으로 화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둘째, 화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지 말고 상대에 대한 연민을 가져야 한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을 사랑하는



마가 스님 (자비명상 대표)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들은 화를 내는 순간만은 자신의 속이 시원해지니 마약처럼 화를 내죠. 그러니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쯤 이해해주고 연민의 마음을 낸다면 또 다른 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를 화로 갚으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상대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고 그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화의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화를 먼저 낸 사람 역시 자신의 화를 빨리 알아차리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해야겠지요.”

세 번째는 그만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상황보다 악화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상황에 고마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마음을 냄으로써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님은 화는 고통의 씨앗이고 화해는 행복의 씨앗이라고 강조한다.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트리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면 사라지죠. 화가 날 때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화를 내는 순간 자신이 주인공인지 엑스트라인지 말이죠. 자신은 어느새 엑스트라로 전락해버렸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이 자신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화를 낼 것인가 화해를 할 것인가, 어떤 씨앗에 물을 줄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癡心 줄이기
치심

–더 비우자

“치심 극복은 수행의 생활화 통해 가능”

어리석음은 욕심에서 비롯
끊임없는 수행 통해
욕심 줄이는 것이 해답

“치심(癡心)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즉 무명(無明)이지요.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어리석음이 가장 강력한 원인입니다. 수행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정진하면 반드시 밝고 아름다운 마음의 본성을 회복하며 어리석음이 닦여지는 것만큼 내 마음이 평온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조사상연구원 원장이자 동산반야회 법주로 재가자들의 교육과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법산(法山) 스님은 ‘치심’을 줄여가는 것은 끊임없는 수행에 의해서라고 말했다. 수십년간 동국대 교수로 후학양성에 나섰던 법산 스님은 퇴직 후 현재 안거철에는 선방에서 나이어린 납자들과 함께 어울려 가행정진하고, 해제 후에는 학문 연찬과 신행지도를 하고 있다.

스님은 먼저 “어리석음을 무명업식(無明業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염(汚染)된 마음, 즉 본래 밝고 맑은 자성(自性)에 입력된 객진(客塵)이기 때문”이라며 “객진은 눈, 귀 등을 통하여 입력된 상(相)으로 고착(固着)된 지식이 습관화된데서 비롯한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불교의 수행은 이 어리석은 무명업식을 닦는 것이기에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스님은 치심을 깨우치려면 가장 먼저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산 스님 (동산반야회 법주)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철학이 분명한 사람은 남을 의심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리석음이란 하늘의 구름과 같고 거울에 덮인 먼지와 같습니다. 그 신념으로 부처님을 믿고, 철학적 논리적 사고력으로 교리를 배우고 익히며, 실천수행을 생활화하면 부처님의 염원인 우리의 깨달음을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가자들은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 현재 한국불교계에는 간화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행법이 전해지고 있다.

스님은 “부처님의 수행법도 시대와 지역의 습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어떤 수행이든 눈 밝은 스승을 만나 올바른 신행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수행”이라고 말했다. 또 “남방, 북방 수행에 차별이 있을 수 없겠지만 부처님의 근본이념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스님은 “우리사회에 물질의 풍요에 반비례하는 행복지수의 저하와 스트레스, 자살, 각종사고의 증가는 바로 이 어리석음 때문으로 어리석음은 만족을 모르는 욕심 때문에 온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정진하면 반드시 밝고 아름다운 마음의 본성을 회복하며 어리석음이 닦여지는 것만큼 내 마음이 평온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행 단신

동국대 국제선센터, 간화선집중수행 회향

2차 간화선집중수행 8월 14~20일 진행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는 6월 30일~7월 6일간 동국대 국제선센터에서 수불 스님의 지도로 '간화선 집중수행' 을 실시했다.

이번 수행기간에는 일반인과 동국대 재학생 등 55명이 참석해 수불 스님에게 화두를 받고 매일 1시간씩 법문을 듣고 개인점검을 받으며 용맹정진 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참가자 가운데 12명이 깊이 있는 선 체험을 하고 커다란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대다수의 참가자들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건강이 좋아졌다는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같은 방식으로 '간화선 집중수행' 을 8월 14~20일 진행한다.

국제선센터는 "스마트폰 시대 범람하는 자극적 영상문화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밖으로부터 내면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수행문화는 정신없이 질주하는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고 물질 문화로 들떠있는 정서를 순화시켜 주는 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2260-3891

이나은 기자



이번 간화선 집중수행기간에는 일반인과 동국대 재학생 등 55명이 참석해 수불 스님에게 화두를 받고 매일 1시간씩 법문을 듣고 개인점검을 받으며 용맹정진 했다.

국제포교사회 8월부터 영어 원각경 공부

8월 18일까지 인도 아삼지역서 빈곤주민 진료 · 교육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권영구)는 8월부터 영어 원각경 공부모임을 진행한다. 영어 수타니파타 공부에 이어 진행하는 영어 원각경 공부 모임은 오는 8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1시부터 3시 20분까지 조계사 일주문 옆 선일빌딩 8층 국청회 법당에서 연다.

교재는 찰스 뮐러(Charles Muller) 일본 도쿄대학 교수가 번역한 영어 원각경으로 수업하며 국제포교사회 다음 카페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거나 제본한 책을 사용할 수 있다. 중급 영어 독해가 가능한 불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나은 기자

파라미타, 한일청소년교류 참가자 모집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8월 4~8일까지 봉은사 등 서울에서 진행되는 제9회 한 · 일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류활동은 일본의 청소년들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제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류활동은 서울 봉은사와 진관사에서의 템플스테이와 문화체험 및 교류활동, 홈스테이(2박) 등으로 진행된다. 중고생과 대학생으로 홈스테이가 가능한 19명을 오는 31일까지 선착순 선발하며 일본어와 전통공연 가능자는 우대한다.

이나은 기자

불교단체 상담사 양성해 사회참여 높인다

불교상담개발원 · 자비의전화 · 여성개발원 등 상담사 양성

소외계층에 대한 심리 · 정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계 단체들도 타인의 치유를 위해 불자들을 상담사로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해 동참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과 자비의전화 및 불교여성개발원은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해 웰다잉, 노인상담사, 아동정서지원 멘토를 양성하는 과정을 열고 강좌 이수자들을 취약계층이 밀집한 복지관 등에 파견해 사회적 참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6월 23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2회에 걸쳐 노인상담 강사를 양성하는 '어르신 행복창조 강사 양성 과정-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상담 강사 양성과정' 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조계종 포교원 우수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43명의 수강생들은 김준형(한국사진예술치료학회 학회장)교수의 지도로 노인들의 행복창조를 위해 인생회고 및 회상요법의 이론적 배경과 영화, 사진, 미술, 글쓰기, 가요, 명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배웠다.

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전 연령의 평균 자살률(인구 10만 명 당 32.9명)보다 높은 81.6명일 정도로 노인 우울증,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 증대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노인복지관의 경우 노인 대상 정서생활 지원 사업에 심리상담 영역이 있으나 상담 전문인력의 부족, 전문상담 프로그램의 부족, 독립된 심리상담실 부재, 복지관 업무 과다 등의 이유로 심리상담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교상담개발원은 교육 수료생 중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파견해 실습기회를 부여하고, 노인상담 전문팀의 일원으로 노인상담 강사 또는 보조진행자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현 스님은 "노인상담사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종단에서 배출한 불교상담심리사 등 불자 상담원을 어르신 상담을 위한 예술치료 프로그램 강사로 양성해 실버세대의 포교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자비의 전화는 7월 14~25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아동 마음자람 멘토 양성교육' 을 실시했다. 사진은 '사진치료기법' 실습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상담개발원… 노인상담사 양성
자비의전화… 아동정서지원 멘토
여성개발원… 웰다잉 상담사 양성
소외계층에 파견해 상담 및 교육

사단법인 자비의전화는 7월 14~25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아동 마음자람 멘토 양성교육' 을 실시했다.

이론과 실습, 세미나 등 34시간으로 진행된 멘토 양성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심리 · 정서적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46명이 교육에 참가했으며, 과정 이수자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번 교육의 특징은 매 회기마다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동의 정서지원에 필요한 주제를 사례중심으로 지도해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영란 마음길상담연구소장, 이경애 심리상담소장, 이명화 아하청소년문화센터 소장, 김준형 한국사진예술치료 학회장 등이 강사진으로 나서 △정서지원 멘토의 역할 △아동기 심리적 발달 특성 △성교육 △공감과 지지기법 △의사소통을 이끌어 내는 기법 등을 강의했다.

마지막 교육일인 7월 25일에는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근후 박사를 좌장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자비의전화는 "이번 교육은 2014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했다"며 "교육 이수자들은 아동의 정서지원을 위한 멘토로 양성, 취약계층이 밀집한 복지관 등에 파견돼 여성과 아동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어르신 상담과 치유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행복지수를 높여 사회에 공헌을 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웰다잉교육과 자살예방강사 양성프로그램인 '내생애 봄날' 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내(來)생애 봄날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2010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을 받아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고안한 프로그램으로 노인 자살에 대한 기본 이론은 물론 표현예술치료, 집단상담기법, 그림과 사진을 이용한 자서전 쓰기, 죽음 명상 · 자비 명상,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꽃과 마음치유, 스피치교육 등 다양한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불교여성개발원은 2008년 웰다잉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초 · 중 · 고급과정을 개설해 웰다잉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해왔다"며 "특히 올해 안정행정부로부터 웰다잉 강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이번 달에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전문강사 30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800여 명의 교육이수자와 20여명의 전문강사를 배출한 불교여성개발원은 전국의 55개 복지관과 요양원, 데이케어센 등에서 220여 회의 웰다잉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개발원은 지난 5월 서울노인복지센터와 노인상담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상담 및 웰다잉 등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회향을 위한 강사와 상담원 등 전문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불교여성개발원은 결혼이주 여성의 정착을 돕기위해 '불교 여성 다문화 봉사단' 을 2008년부터 매년 50~60명씩 뽑아 전문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봉사자들이 교육 이수 후 서울 지역 구청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봉사활동을 알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부석사, 전문의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큰 호응

7월 19~20일 내과전문의 초청해 진행

내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가 열려 화제다.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는 7월 19~20일 문을선(現서울365의원장) 내분비내과전문의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부석사는 "이번 행사는 전문의와 직접적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건강에 대해 바로 알고 불교(사찰)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준비했다"며 "병원 내원시 2~3분의 짧은 상담시간으로 의사와의 만남이 쉽지 않은 일반인들과 '건강검진의 허와 실 그리고 건강한 삶' 을 주제로 상담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행사 첫째날에는 △사찰 예절 △타종체험 △문을선 원장과 건강바로알기 △참선하며 별밤감상하기 시간을, 둘째 날에는 △걷기명상 △염주 만들기 체험 △문을 선 원장과 건강 Q&A 시간을 가졌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지성화(46)씨는 "불교 문화체험도 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배울 수 있어 매우 좋았다. 다음 기회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산 부석사 템플스테이팀은 "이번 템플스테이는 참가자들이 몸과 마음의 진정한 힐링을 찾을 수 있는 행사"였다며 "앞으로 전문의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다회성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070)8801-3824

이나은 기자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4년 동산불교대학 45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모집학과
✲ 불교학과 [8월 9일(토) 오후 5시 개강]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통신반
1년차 과목: 1. 근본불교 2. 반야사상 (반야심경 · 금강경) 3. 유식과 명상 4. 불교사의 전개 (인도 · 중국 · 한국) 5. 대승불교총론 6. 법화경
1년차 교수진: 법산스님(본대학장),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주명철교수
2년차 과목: 7. 밀교사상과 천수경 8. 아미타경과 불교의식 9. 화엄경 10. 불교개론 11. 불교문화와 포교 (불교미술 · 다도) 12. 선불교
2년차 교수진: 종석스님, 정성준교수, 김형준교수, 정엄스님, 최종석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박희준교수, 활안스님, 김호귀교수
✲ 불교관련학과 개강 [다도학과 9월2일, 불교미술학과 9월4일, 선·명상학과 9월4일]
✲ 불교 대 학 원 개강 [9월2일, 9월4일]
✲ 불교의식교육원 개강 [한글의식반 9월6일, 범패의식반 9월3일]
■모집인원(불교학과) | 15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50명)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금 20만원
■원서교부 및 접수(불교학과) | 2014년 7월 1일부터 ~
■문의 | 02)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종병, 부사관, 장교)는 전액 면제 교육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4년 8월 25일 까지
◆개강일시 : 2014년 8월 26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8월 18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자연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해 황토와 미생물로 흙공을 빚고 있는 청소년들. 만들어진 흙공은 하천에 투입돼 수질정화, 악취제거, 유기물 발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백독이 불여일행(百讀而 不如一行)"

초중고 대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덩달아 교계에서도 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진로를 탐구하며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제적 역량을 향상시키는가 하면 다도를 배우며 봉사활동까지 챙길 수 있다. 외연도 내용도 풍성해진 청소년들의 여름방학 맞이 프로그램을 모아봤다.

청소년 방학맞이 프로그램 '풍성'

진로탐색 · 문화체험 · 해외봉사까지

장애시설 봉사 · 환경보호하며

주변 대한 배려심 키우는데 한 몫

교계 복지관 여름방학 봉사 프로그램

복지관	일정	내 용	연락처
길음종합사회복지관	7.7~8.29	아동 피아노 · 미술 활동 보조	02-6315-6407
중림종합사회복지관	8.5~7	나눔 인식개선, 체험활동	02-362-3348
송산노인복지관	7.30~8.20	급식보조, 반찬배달,	031-852-2595
서호노인복지관	7.28~7.30	노인인식개선캠페인	031-291-0911
명륜종합사회복지관	7.31~8.1	에너지 절약교육	033-762-8131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8.1~8.14	업무보조, 환경미화	043-420-6316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7.23~8.8	재능나눔, 수화교육	051-863-2493
화명종합사회복지관	7.28~8.8	노인,장애인 활동보조	051-338-2233
내서종합사회복지관	7.24~8.13	도시락 배달, 제습제만들기	055-231-8017
동여수노인복지관	7.21~8.31	어르신 가정방문	062-665-8882
우산종합사회복지관	7.22~8.6	어르신 반찬 배달	062-266-3853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제9회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가자를 모집한다. 매년 일본과 한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며 올해는 한국에서 열린다. 한일 청소년 각 20명이 1대1로 친구를 맺고 함께 문화체험, 교류활동, 홈스테이 등을 하게 된다.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등 친교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 봉은사와 진관사에서의 템플스테이도 예정돼 있다. 일본어 가능자는 우대하지만 스마트폰 번역 앱의 도움을 받는다면 언어 문제는 크지 않다는 것이 파라미타측의 설명이다. 한일 양국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모집은 7월 31일까지며 프로그램은 8월 4일~8일까지 열린다. (02)723-6165

서울 능인복지관(관장 김부산)의 자원봉사캠프 '함께하자 친구야' 는 청소년들이 주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마련됐다. 장애인 보호시설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 을 방문해 1박2일간 장애인과 함께 지내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킨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또한 포함되어 있다.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므로 편한시간에 신청하면 된다. 능인복지관에서는 이외에도 복지관이용 어르신 대상으로 활동 보조와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교실 학습지도를 도울 수 있는 청소년들을 8월 29일까지 상시 모집하고 있다. (02)571-2988

서울 목동청소년수련관(관장 지완)에서는 청소년 환경활동가 만들기 프로젝트 '노임팩트맨' 을 8월 5, 6, 13일 3회에 걸쳐 실시한다. '노임팩트맨' 은 1년동안 전기와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 지구에 무해한 생활을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이와 마찬가지로 봉사활동은 지구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노임팩트맨실천 공약세우기, 천연비누 · 발효액 등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 미생물) 활용법 배우기, 환경정화캠페인 실시 등으로 이어진다. (02)2642-1318

서울 대치노인복지센터(관장 손화정)는 '친구야 모두 다(茶) 사랑해'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진행한다. 7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월, 수 총 8회기에 걸쳐 운영된다.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어르신들께 차(茶)와 예절을 배우고 소외 어르신들께 차와 다식을 만들어 대접하며 효(孝)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은 인성함양 및 어르신의 공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대치노인복지센터의 '친구야 모두 다(茶) 사랑해' 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유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례교육을 지도하는 1 · 3세대 통합프로그램이다. (02)564-0108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보련)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원봉사의 개념과 가치를 알고 다양한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봉사나라' 를 2회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일정은 8월 5~6일, 8월 12~13일이다. 자원봉사 관련 기초교육, 노인이해교육 등을 이수한 학생들은 성남고령친화체험관에 방문해 노인 전시체험과 생애체험을 진행한다. (02) 550-3639

경기도 광명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승희)에서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청소년 볼런티어스쿨을 열 예정이다. 참가 청소년들은 자원봉사기초소양 교육부터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경로당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총 4일동안 참가해야 하며 16시간의 봉사활동이 인정된다. (02)2617-0410

대구 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서는 '꿈을 찾아 떠나는 SEOUL' 이라는 진로 직업 문화체험활동을 8월 8~10일까지 실시한다. 지방에 사는 학생들이 정치, 경제, 문화중심지 서울을 방문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업인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2박 3일간 정치인, 역사가, 문화해설가, 영화감독, 배우 등과 만나며 꿈을 다지게 된다. 첫날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김부겸 전 의원과 만나 정치가 이루어지는 생생한 과정을 전해듣는다. 이튿날에는 파주 출판문화도시에서 출판문화 관련 체험을 하고, 대학로에서 뮤지컬 '빨래' 를 관람한 후 출연진과 연출가와 만나게 된다. 마지막 날에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직업박물관 '한국잡월드' 를 방문,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며 직업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한편 **동국대참사람봉사단**(단장 김희옥)은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12박 13일 동안 몽골 울란바트르시 바양주르흐구청 게르(이동식 집) 24동에서 하계 해외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의 해외사업장인 몽골 드림센터에서 바양주르흐구 게르 24동의 유아와 청소년, 주민에게 환경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쓰레기통 만들기, 나무심기 등의 노력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복지관 소식

본동복지관, 사례관리자 양성과정 실시

대학생 대상 현장체험 기회 제공

서울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자 양성과정을 실시했다. 사례관리는 보호를 요하는 대상자, 이를테면 정신장애인, 누워있는 노인, 치매성 노인들의 정서 · 신체 · 경제 문제 등의 잠재 위기를 예방 및 감소하기 위해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지역보호체계 일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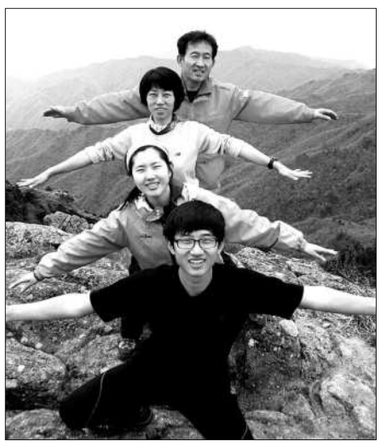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르면 현재 동작구 내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요보호 대상자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사례관리 담당자의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17인을 모집하여, 6월부터 7월까지 전문 사례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현장경험을 원하는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습과 동시에 사례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고 복지관 입장에서도 인력부족 문제를 잠시나마 해결할 수 있었다.

준사례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은 총 6회에 걸쳐 전문교육과 상담을 통한 실천기술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준사례관리자 양성과정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사례관리라는 단어를 학교에서만 들었는데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문 사례관리실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돼 만족한다"며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전문교육 수료 후 동작구 내 요보호어르신들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준사례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가족사진 다시 찍기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과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복)에서 '백투더퓨처' 라는 이름으로 과거사진 다시찍기 공모전을 열었다. 예전 가족사진과 같은 배경에서 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미션이었다. 수 십장 접수된 작품 중에서 추억어린 사진 한 장을 골라내는데 한 달이 걸렸다. 그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이계숙 가족의 사진이다. 2009년 아들, 딸과 함께 지리산 종주를 하며 찍은 사진(사진 왼쪽)을 5년 후 같은 장소에서 찍었다(사진 오른쪽). 12살 초등학생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중학생 딸은 스물,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 5년 사이 훌쩍 자라버린 아이들과 나이 들어버린 부모님의 모습이 묘한 대비가 된다. (사진제공=과천종합사회복지관) **배현진 기자**

오이소박이로 시원한 여름나기

중림복지관, 저소득 가정에 김치 나눔 봉사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7월 19일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를 실시했다.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해 나눔 행사를 거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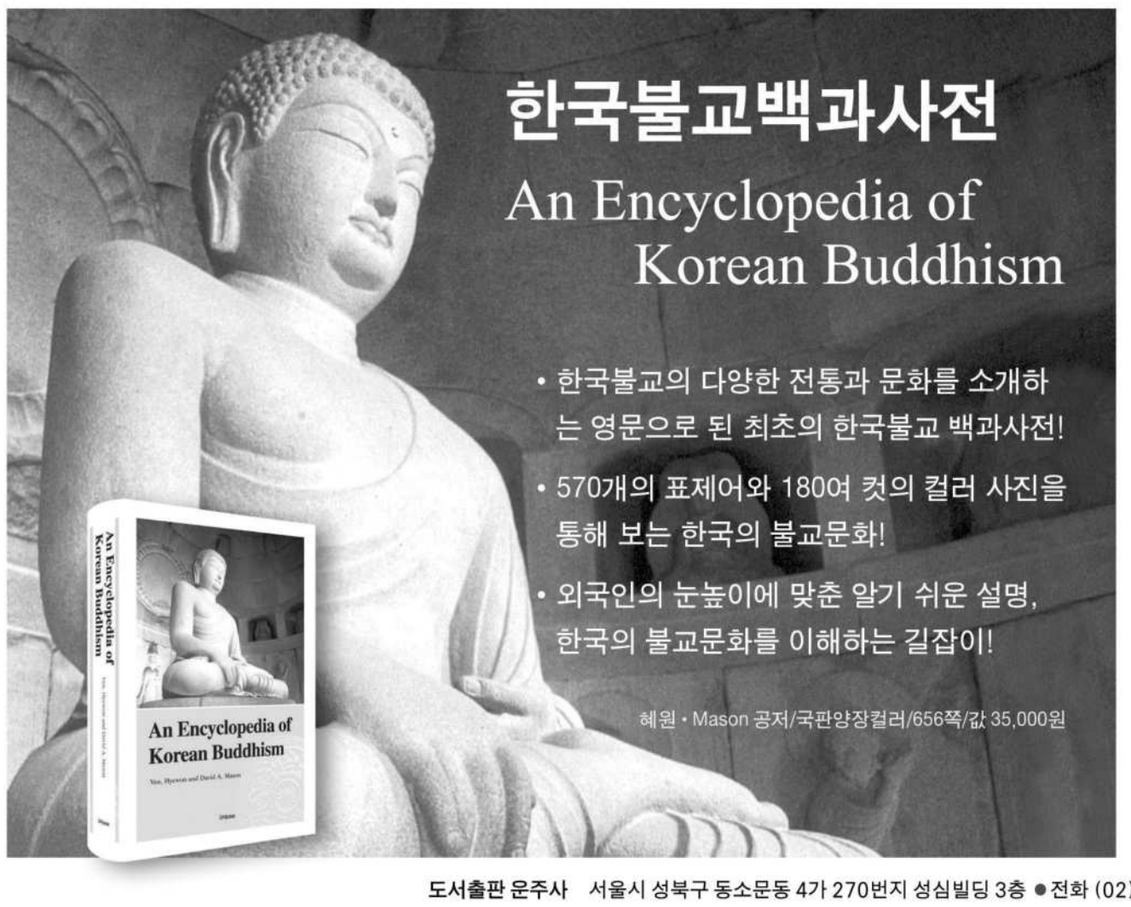
김치 메뉴는 여름철 별미 오이소박이와 열무김치로 정해졌다. 이 날 만든 오이소박이와 열무김치 각 100통은 지역 내 저소득 100가정으로 전달됐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중림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왔다.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과 독거노인 생필품, 청소년 역량강화 PACE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사업 후원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은행 직원들과 함께 저소득 가정을 위해 김치 200통을 담갔다.

21세기 한국불교의 자긍심!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한영불교사전!



한국불교백과사전
An Encyclopedia of Korean Buddh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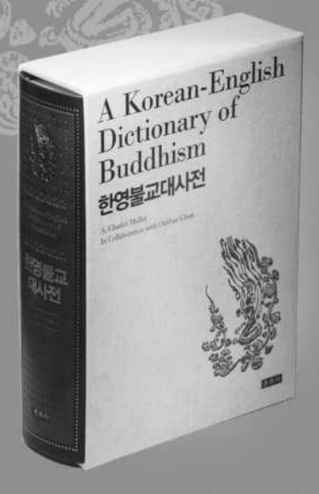
- 한국불교의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는 영문으로 된 최초의 한국불교 백과사전!
- 570개의 표제어와 180여 컷의 컬러 사진을 통해 보는 한국의 불교문화!
-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설명, 한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길잡이!

혜원 • Mason 공저/국판양장컬러/656쪽/값 35,000원

한영불교대사전
A Korean-English Dictionary of Buddhism

- 12,000여 개에 이르는 방대한 표제어!
- 표제어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상세한 설명!
- 표제어의 의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본의미Basic meaning 표기!
- 주요 개념에 대한 산스크리트어 표기!

A. Charles Muller • 전옥배 공저/국판 가죽양장/1808쪽/값 9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 재해석 '절실'

화쟁아카데미 · 시민행성

조성택 교수(고려대)

1강 '샤키야무니 붓다 등장의 역사적 배경'
2강 역사적 붓다의 재구성
3강 붓다 출현 그리고 '불교'의 문명사적 의의: 귀환과 출가
4강 신앙으로서의 부처님: 부처님은 '경쟁' 중
5강 무불시대의 붓다들
6강 불교의 역사적 이해

경전은 부처님의 삶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집단적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경전만이 부처님 말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쓰여진 것만 가지고 불교를 재구성하는 것은 불교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 경전 내에 있는 것들을 재해석하고 도출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통사회는 한 사회 한 종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종교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우주가 이해 될 수 있고 또 생노병사, 관혼상제 등 생애에 걸친 삶의 규범도 이에 맞추어 형성이 되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와 다릅니다. 종교는 다원주의이며 과학과 종교는 갈등을 빚습니다. 지금은 과학과 종교가 갈등이 멈춘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종교가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대 학문은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생물학적인 인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바라보는 이타적인 인간, 배려하는 인간은 사라지고 있으니 종교는 기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생노병사 관혼상제 생애에 걸친 삶의 규범이 종교였습니다. 서양에서 기독교 동양에서는 유교와 불교가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인간과 사회 역사에 대한 이해를 종교로 풀어낼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종교는 개인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교를 개인 한명의 믿음으로 치부해버린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하나의 가치관의 문제라 한다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직업이 전문화 될수록 종교와 삶은 연속성을 잃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에 일하는 불자가 불교적 가치관을 갖고 업무를 보는 것은 어려울 거라 생각 합니다. 불교는 오늘날 직업의 전문성과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화될 수는 없는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전 분야에 걸친 가치척도가 종교였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 신부, 목사, 스님은 사회적 엘리트였습니다. 특히, 불교의 경우 외국의 문물을 경험할 수 있는 위치의 신분은 스님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통사회에서 스님들은 새로운 문명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적 위치에 있었고 사회의 엘리트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근현대사회 들어 재가지식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불교를 상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외적인 문제에서 교리해석의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교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불교는 진리이해의 한 설명 모델임을 인식해야합니다. 불교의 연기법, 무아는 진리에 대한 설명 체계입니다. 불교가 '진리'라 생각한다면 소통과 이해의 단절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불교도 역사적 산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무아가 진리라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서양 철학은 폐기 처분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했을 때 불교 자체도 역사적 산물이라는 겁니다. 초기불교부터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 자체가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탈역사적으로 후대 사람들이 이해하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교교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교는 만병통치이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만학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지과학 혹은 인지심리학에서 나오는 내용을 이미 불교에서 다 얘기한 것이라고 말하는 불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지과학을 통해 불교의 내용이 좀더 확실해지는 것일 뿐이지 불교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체계성, 논리성, 전문성 등을 갖춘 근대학문 즉 사회학, 심리학, 철학, 자연과학 등을 바탕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 말씀은 옳은 가르침이라는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대승불교가 시작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욕망이라는 전체를 부정해버립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특히 프로이드에서는 욕망은 다양한 층위가 있습니다. 필요, 욕구, 욕망은 심리적 상황인데 식욕 수면욕은 생물학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필요와 욕구는 대상이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마음이 감해지지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의해서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욕망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망의 문제는 대상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불교는 정당한 자기실현의 욕구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이해되도록 유도해 주어야만 21세기 한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불교의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종단은 불교 전통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근대 이후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종단은 근대법에 의해 인정받은 법적 위치입니다. 종단은 초세간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 사회의 '세간적 정치체계'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故김수환 추기경의 예만 봐도 카톨릭 수장이 외부에 노출이 될 때 어떤 말을 해야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해주는 브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못한 거 같습니다.

출가 우의의 한계와 출가집단의 폐쇄성도 문제입니다. 신부는 자신들이 세속에 몸 담고 있는 것을 지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세속에 몸 담고 있으면서 초세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비상식적인 것이 선이 아닙니다. 선불교에 있어 일탈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지 그 자체로 깨달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불교는 새롭게 이해되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전기(傳記,Biography)와 성인전(聖人傳, Hagiography)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전기는 사실적 내용이며 역사적 배경 즉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가 하면 성인전은 신화적, 종교적 전승에 바탕을 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으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종교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선사상의 긍정적인 측면은 도(道)의 일상성과 일상의 진리(道)화입니다. 일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일상을 떠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상심과 일상심을 도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며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선종은 앞선 그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불교 미술이 탄생했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를 폭력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절실함을 알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갔는데 제자 한테 설거지를 시키다든지 차나 한잔 먹고 가라든지 하는 행위는 가르침의 일부라고 하지만 일종의 폭력이라 봅니다. 실제로 무협지 구조를 보면 육조단경 구조랑 똑같습니다.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술을 배우러 스승을 찾아가면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물만 길어 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가르침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날 스승은 제자에게 무술을 가르쳐 줍니다. 선종에서도 보면 오조 홍인이 제자 혜능한테 의발을 전하고 도망가는 이야기 등은 설정 자체가 비종교적이며 무협지적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은 지적인 것을 치면서도 굉장히 엘리트적이라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경건함과 성실함을 종교라고 규정짓는다면 이를 한방에 무너트리는 것이 선입니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부재를 볼까요? 경전에는 모든 시간을 일시, 한때라는 말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시간 자체를 설정하지 않는 반면 장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죠. 중국인들은 몇월 몇일 몇시 등을 뚜렷이 기록하는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는 윤회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이런 경전의 기록들에서는 부처님의 인격적 성장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40대의 설법인지 70대의 설법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불교를 철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 가장 편한 방식이 사상적 특징을 잡는 것입니다. 오온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 특징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온(五蘊)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분석이 아닌 '해체'적 사유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라고 하면 햄버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빵 야채 고기 이런 구성요소들이 햄버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험'의 해체, 그리고 경험이 곧 '존재'임을 자각한 것이 무아입니다. 존재(주체)가 경험을 한다고 하는 일반적, 상식적 이해를 타파한 것입니다. 색은 감각, 기능·작용(seeing, hearing…)을 가리키는 것으로 물질, 혹은 감각 기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수는 지각작용(sensation)으로 '느낌'(feeling)의 잘못된 번역이라 했는데 느낌은 식에 해당합니다.

상은 관념작용(perception), 지각된 사물을 '받아들이는'(to conceive, conception) 방식입니다. 행은 마음의 작용(mental formation)으로 가장 핵심적 요소가 수행(修行)입니다. 식은 판단 혹은 종합적 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기적 산물로 주체적 '인식'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근(根, 감각기관)과 경(境, 감각대상)을 합친 것이 연기적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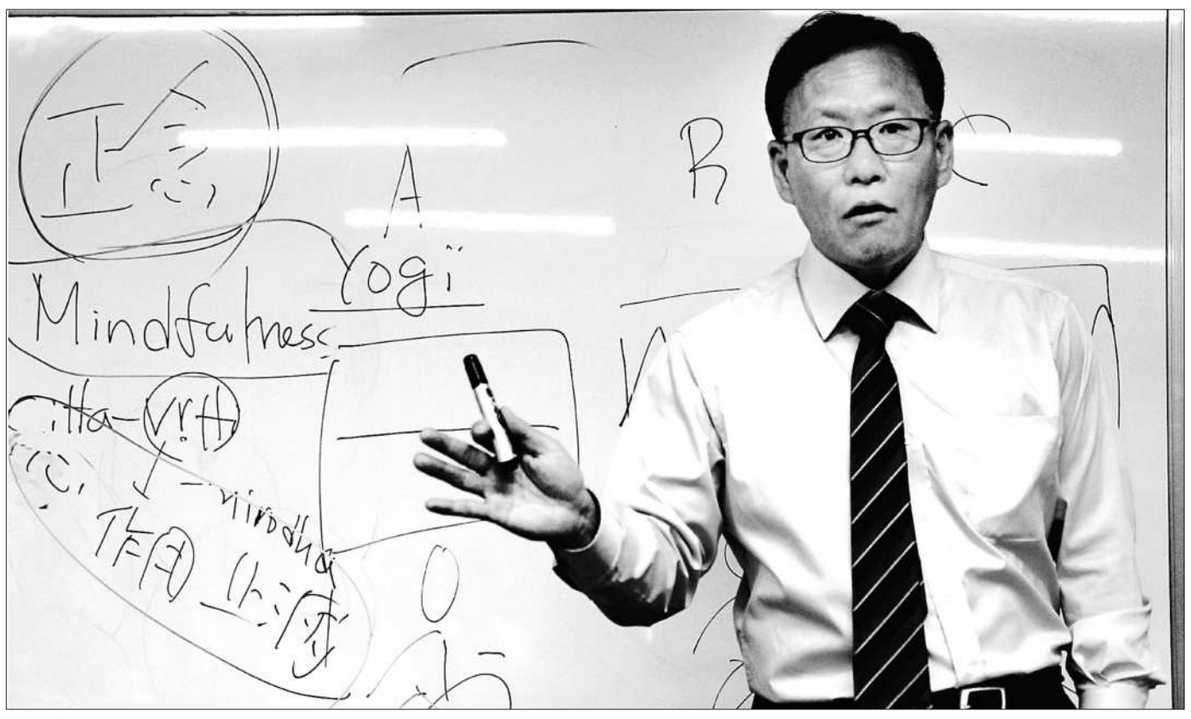
존재와 경험으로 무아(無我)의 두 차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유신견(有身見)에 대한 정견(正見)으로서 무아(無我)가 팔정도의 시작입니다. 이는 아만(我慢)을 제거한 해탈의 경험으로서 무아(無我)입니다. 이것이 팔정도의 완성이고 정정(正定, 바른 삼매)으로부터 경험하는 바른 지혜(正智慧, 구정도)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아'에 대한 잘못된 관념의 네가지 양상을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 (衆生相), 수자상 (壽者相)이라고 합니다.

존재와 경험을 존재(有)의 두 가지 차원으로 살펴보면 각각 'thinker'(존재)와 'thinking'(경험)의 이원론으로 나뉠 수 있으며 오온설에서는 'thinking'이 곧 'think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有業報而無作者(업보는 있지만 지은 자는 없다) [잡아함경 〈파구나경〉T99, 92c]

이는 "행위만 있을 뿐 행위자는 없으며, 경험은 있되 경험을 하는 자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걷는 것이 아니고 걷는 것이 나다. 내가 춤추는 것이 아니라 춤추는 것이 나다.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조성택 교수는 … 1957년 부산에서 출생했다.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했으며, U.C 버클리에서 인도 초기 대승불교의 성립에 관한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 비교종교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계간 〈불교평론〉,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단장,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철학회 편집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 불이상(학술 부문), 2011년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했다.

전통사회 스님들 새 문명 메신저
새로운 불교 구상해야 될 시점 도래
불교경전 재해석 및 도출 중요
현대사회서 종교역할 점점 축소
"불교 만병통치학 인식서 벗어나야"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제천 금강사 불교선정대학 개설 학인 모집

(사)한국불교 금강선원에서는 제천 금강사에 불교선정대학을 개설하여 활안큰스님을 모시고 선학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깨달음을 얻고도 나의 경지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분, 선지식을 찾아뵙고도 문답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 방황하는 중생들을 위하여 사랑스런 상담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 불교선정대학을 찾으십시오. 반듯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교육안내

■ **교육 기간 :** 2년 (수시입학 – 원서 제출 후 교재 교부) **9월 12일 오후 2시 개강**
■ **교육 방법 :** 통신교육으로 이수 (년 4회 특강 및 수련 실시)
■ **교육 내용**

① 부처님께서 실천한 위빠사나와 자비선 (慈悲禪)	② 직지인심의 달마선 (達磨禪)
③ 육조대사의 반야선 (般若禪)	④ 천태대사의 지관선 (止觀禪)
⑤ 화엄경의 무애선 (無碍禪)	⑥ 한국불교의 간화선 (看話禪)

※ 거리 및 기타 사정에 의해 기숙사에 들어와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인은 실비의 비용으로 공양 제공 및 독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1-14번지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 02)969-2410/4981
홈페이지주소 : http://kumgangnet.com (한글주소 : 한국불교금강선원)

■ **제천연락처 :**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금강사 내 한국불교선정대학 ☎ 043)646-3800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45회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새 시대의 리더로서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화랑 수련회에는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는 **21세기** 신화랑 캠프입니다.

일 시 **2014년 7월 20일 ~ 8월 23일**
모집 인원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0 ~ 15시 입산 / 토요일 12시 하산
대 상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수련 회비 1주-35만원 · 2주-70만원 · 3주-90만원 · 4주-110만원(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준 비 물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접수 문의 ☎ 054)775-1689, 744-1689 ※ 홈페이지 : www.sunmudo.com

◉ 기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불교강의, 좌선, 108배
◉ 영 어 캠 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생활
◉ 매주 색다른 생태순례 : 감포깍지길 걷기 · 솟대만들기, 경주남산답사
읍천항 · 주상절리길 걷기, 박물관 및 경주문화유산탐방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올 가을 불교학 담론의 장 열린다

2014년 하반기 학술세미나 무엇이 있나?

무더운 한여름이 지나 가을을 앞두고 다양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교계 학술단체들을 비롯해 일부 사찰에서는 이번 하반기에도 다양한 학술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불교학에 깊은 이해가 없는 불자라도 주제가 다양한 만큼 자신의 구미에 맞는 세미나에 참가해보는 것도 불교학을 이해하는데 좋을 듯 하다. 올 하반기 가장 관심을 끄는 세미나는 불교의식과 신행에 대한 방법론을 주제로 한 세미나들이다.

한국정토학회는 10월 11일 인천 흥륜사 정토원에서 '조상신앙'을 주제로 각종 불교의식에 대해 다양한 조명을 한다.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을 비롯해, 신규탁 연세대 교수, 구미래 건국대 교수 등이 나서 생전예수재, 관음시식, 49재, 납골봉안, 불교의 효사상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전통불복장점안의식 연구보존회도 11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복장 점안의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연다.

이 세미나도 한국불교 전통 복장의식을 주제로 한 첫 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9월 26일 서울 진관사에서 개최하는 '진관사 수륙재' 학술세미나도 수륙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수륙재의 활용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 동아시아불교의례연구소도 12월 13일 템플스테이센터 문수실에서 '불교 작법'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연다.

만해 70주기를 기념해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8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여는 학술세미나는 불교와 자본주의, 그리고 불교공동체 운동에 대해 고찰할 예정이다.

불교의례 · 의식 관련 세미나 많아
불광 40주년, 동광 110주기 눈길

이도흠 한양대 교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최갑수 서울대 교수 등이 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의 불교, 불교공동체와 소비캠페인 등 다양한 각도에서 현시대에 맞는 불교운동을 접근할 계획이어서 이에 관심 있는 불자들이 참가하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미나들 중에는 많은 준비 끝에 열리는 세미나가 있다. **불광연구원**이 불광 40주년을 기념해 여는 학술연찬회가 그것이다. 9월 27일 불광사에서 열리는 불광 40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광덕 스님의 불광사상과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 소천 스님의 금강경 운동, 박종홍의 민족주의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밖에 큰 스님들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도 열린다. 먼저 **불교학연구회**가 11월 중으로 여는 '인도철학에서 바라보는 원효' 학술세미나는 한국불교와 동아시아에 국한됐던 기존 원효 스님에 대한 연구에서 아비달마 등 인도불교와 인도철학계에서의 원효 스님의 위상과 영향을 찾아보는 자리다. 또 **대각사상연구원**이 10월 31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여는 '동암 스님 탄신 110주년 기념 세미나'는 용성 스님의 전법을 재조명해 '용성 스님의 독립운동'과 함께 동암, 동광, 월주 스님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명한다.

보조사상연구원이 9월 20일 '송광사 고승 나옹과 제자 무학 재조명'을 주제로 여는 자리도 나옹 스님과 그 제자들을 다시 살펴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와 **한국불교상담학회**는 8월 11~28일 학술발표회와 함께 데이빗 브레이저 박사를 초청해 명상심리 워크숍을 열며 **한국선학회**도 10월 31일 선불교 자유주제로 발표회를 여는 등 수행법과 관련된 학술대회도 마련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4년 하반기 학술일정

일 시	주 제	주관단체
8월 29일	불교와 자본주의	만해사상실천선양회
9월 20일	'송광사 고승 나옹과 제자 무학'	보조사상연구원
9월 20일	월례 논문발표회	불교학연구회
9월 26일	진관사 수륙재 보존과 활용	한국미술사연구소 · 진관사
9월 27일	불광 40주년 기념 세미나	불광연구원
10월 11일	'조상신앙'	한국정토학회
10월 18일	제23차 국내학술대회	보조사상연구원
10월 31일	선불교 수행법	한국선학회
10월 31일	전국 폐사지 조사 결과 발표회	불교문화재연구소
10월 31일	'백용성 스님 전법 재발굴'	대각사상연구원
11월 초	전통불복장점안의식	전통불복장점안의식보존회 · 불교문화재연구소
11월 중	'동아시아 전통 속 원효'	불교학연구회
12월 둘째주	'불교 작법의 세계'	동아시아불교의례연구소
12월 26일	인도 석굴사원 조사 발표회	한국미술사연구소

"불교원전은 비판적 탐구 거쳐야 돼"

조성택 · 권오민 교수 불교학연구회에서 주장


조성택 교수


권오민 교수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가 7월 21~22일 성주 심원사에서 '불교, 그리고 불교학'을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에서는 현재 한국불교학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와 권오민 경상대 철학과 교수가 한국불교학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조성택 교수는 "근대불교학이 소개된 이후 한국의 불교학은 100년간 교리와 수행체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불교담론을 만들어 왔으며, 또한 환경 및 생태, 여성주의, 사회참여, 명상, 그리고 인식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과적 주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불교적 관점을 제시해왔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불교적 발언들은 현실적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타의 인문학적 관점과 소통되지 못한 채 불교계 내의 독백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불교교리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현대적 맥락에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이러한 문제는 불교의 교리와 담론들에 대한 재해석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불교의 일상적 실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교리 이해를 넘어선 현대적 맥락에서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권오민 교수는 "불교학은 과거의 불교를 통해 현재를 비판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구성해야 한다. 불교원전에 대한 비판적 탐구없이 주어진 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교학이 아니라 교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최근 불교학계에 불고 있는 응용불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권 교수는 "응용불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 것이 불교학 영역이라거나 그 현대화라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불교생태학이나 불교사회학 등에 필요한 이념과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불교학자의 소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돈황석굴' 특집 '강좌미술사' 42호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최근 〈강좌미술사〉 제42호를 펴냈다. 〈강좌미술사〉 제42호에는 △이강근 경주대 교수의 '근대기 창덕궁 건축의 변천에 대한 연구' △손신영 불교미술학교 교장의 '19세기 왕실후원 사찰의 조형성' △원보현 종박물관 학예사의 '한국 근대기 범종의 양식적 특징과 제작기법 연구' △김성훈 중앙대 교수의 '돈황 막고굴 제285굴의 마혜수라천 연구'가 실려 있다.

돈황석굴 특집논문으로는 △문명대 소장의 '돈황 410굴 수대 미륵삼존불의상(倚像)과 삼화령미륵삼존불의상의 연구' △유근자 한국불교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돈황막고굴 158굴 열반도상의 연구' △김현정 동국대 겸임교수의 '돈황 332굴 석가설법도 고찰' △주수완 고려대 교수의 '막고굴 335호굴 유마경변의 도상분석을 통한 사천왕 도상 연구'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의 '돈황석굴 보문품변상의 전개와 구마라집역 묘법연화경의 영향'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선리연구원 '선문화연구' 16집 발간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최근 〈선문화연구〉 제16집을 펴냈다. '만해 한용운 선사 70주기 추모특집'으로 꾸며진 이번 16집에는 6월 16일 만해추모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십현담주해〉에 나타난 만해 한용운 선사의 선사상' △차차석 박사의 '만해의 대중불교론과 그 교학적 배경' △한상길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의 '근대 동아시아 사조와 만해의 개혁사상' △박현수 박사의 '만해 문학의 문학사적 가치'가 실렸다.

학술상 수상논문으로는 △이상민 박사의 '〈입능가경(入楞伽經)〉 주석서에 나타난 초기 지론학파(地論學派)의 특징' △윤영호 박사의 '불교 시지각설(視知覺說)에 대한 인지과학적 해석' △이해임 박사의 '〈범망경보살계본사기(梵網經菩薩戒本私記)〉의 효순(孝順) 개념 연구'가 실렸다.

일반 논문에는 △이자랑 박사의 '빨리율에 나타나는 3종의 승단관리자' △김경집 박사의 '구산(九山) 수연(秀蓮)의 정화와 결사운동' 등이 실렸다.

선리연구원 측은 "16집은 만해 70주기를 맞아 다양한 분야의 논문 16편을 실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학술사업에 관심을 갖는 한편, 우리 불교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만해 스님 심우장서 참선 주력하며 〈유마경〉 번역"

만해학회, 7월 25일 만해 70주기 기념 세미나

"만해의 심우장은 비승비속의 유마거사로서 실천행을 펼친 터전이었다. 심우장 당시 스님이 펴낸 다양한 문학작품과 사상에 대해 재조명해야 한다."

만해학회가 7월 25일 서울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많지 않았던 1930년대 이후 만해 스님의 심우장 시절과 관련된 논문이 대거 발표됐다. 이날 행사는 총 2부로 1부 '만해와 심우장' 2부 '만해와 근대지성의 교류'로 진행됐다.

1부 첫 발제자로 나선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만해와 심우장의 정신사' 발표를 통해 "만해 스님은 비승비속, 승속의 경계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펴냈으며 심우장은 이런 만해 스님의 가르침을 가장 확연히 드러냈던 곳"이라며 "심우장 시절 소설과 산시 등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비롯해 일제에 대한 독자적인 저항운동, 대중지도를 이끈만큼 심우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2006년 서울시가 심우장을 8월의 문화재로 정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였다"며 "최근 성북문화원이 심우장을 비롯한 그 지역 문화재 사업을 강화해 가고 있는데 이에 불교계가 발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만해 스님은 심우장 시절 참선에 주력하였고 〈유마경〉을 번역하였다. 특히 만해 사상에 있어 〈유마경〉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장영우 동국대 교수는 '심우장의 만해문학' 발표를 통해 만해 스님이 심우장 시절 펴낸 장편소설 〈흑풍〉과 〈박명〉을 분석하고, 소설연재가 스님의 대중전법의지의 발로였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만해의 삶은 1879년부터 99까지 동학입문과 북지 방랑의 1기, 1900년에서 32년까지 3 · 1운동 참여와 〈조선불교유신론〉 · 〈님의침묵〉을 집필한 2기, 재혼과 장편소설 연재를 한 심우장 시기의 3기로 나눌 수 있다"며 "심우장 시절 비승비속의 삶은 〈조선불교유신론〉등을 통해 꾸준히 강조해 온 그의 철학의 일관된 행위"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이어 "만해는 결혼해 심우장에 살면서도 그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실천함으로서 결혼이 수행에 근본적인 장애가 되지 않음을 입증했다"며 "이런 와중에서 펴낸 두 소설은 독자의 수준과 취향을 고려한 대중전법의 방편이었다. 만약 그가 전법의지가 없었다면 시로서 얻은 위상을 침해하는 소설연재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식 교수


장영우 교수

2부 첫 발제자로 나선 서승석 前서울대 겸임교수는 '시적 상상력과 독립운동' 발표에서 '만해와 육당의 독립선언서'를 비교분석했다. 서 교수는 "만해의 〈조선독립의 서〉와 육당 최남선의 〈기미독립선언서〉는 모두 만해의 세계관과 종교관이 반영됐다"며 "특히 기미독립서는 육당과 만해가 작성했지만 친일파가 작성했다는 이유로 문화재조차 지정되지 않았다. 〈기미독립선언서〉와 함께 〈조선독립의 서〉가 그 소중함에 걸맞는 예우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고재석 동국대 교수의 '만해 한용운과 석전 박한영, 그 영혼의 도반' △조미숙 건국대 교수의 '만해와 계초, 신문연재소설 속 말하기' △이선이 경희대 교수의 '만해와 지훈' 등 당대 지식인 간의 교우관계를 다루는 논문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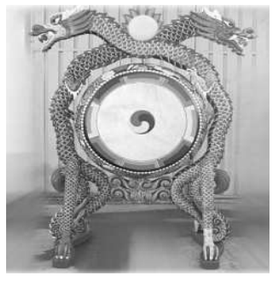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마이크에서 소리크기를 직접 조절하는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구즈넥마이크를 먼저 사용 해 보신 후 구입하십시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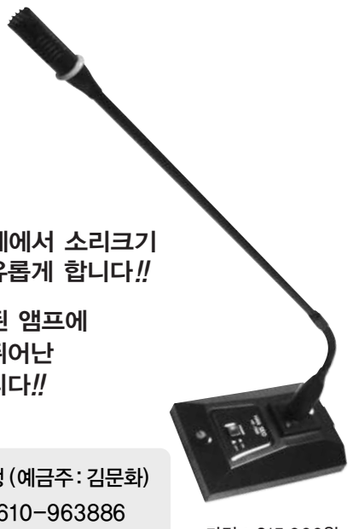


● 무선마이크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백제 문화로 살펴보는 한중일 불교역사

제60회 백제문화제…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60회 백제문화제에서 한 · 중 · 일 삼국문화교류전이 개최된다. 특히 불교문화 교류를 통해 삼국이 각국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가 소개될 예정이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7월 16일 제60회 백제문화제 기간 중 부여군과 공주시 행사장에서 각각 운영되는 '삼국문화교류전'과 '한 · 중 · 일 문화교류전' 내용을 공개했다. 제60회 백제문화제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주와 부여 일대에서 개최된다.

먼저 '삼국문화교류전'에는 백제 · 고구려 · 신라문화의 교류와 각국의 문화 구축 과정을 소개된다. 특히 불교문화 전래 이후 삼국사회의 변화를 상세히 전한다.

부여군 구드래행사장에 열리는 전시전의 주요 행사는 △불교문화전래관(삼국 불교문화) △백제문화제 제60회 기념관 △삼국왕실로의 초대 △삼국전쟁관 △삼국고분관 △삼국생활문화전시관 △백제의 장인 △유산의 땅(전시 및 체험) △백제의 길 △사비의 꽃(3D영상) △프리즘 타워(삼국대표 유물 입체영상 및 레이저쇼) △백제문화상품공모전 수상작 △계백장군 이야기(뮤지컬) 등이다.

'한 · 중 · 일 문화교류전'은 공주시 고마복합예술센터에 설치 · 운영되며, 백제를 중심으로 중국과 한반도, 일본열도를 잇는 고대 동아시아 문화교류 양상을 재조명한다. 여기서도 초기불교 전래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다.

전시내용은 한 · 중 · 일 역사연대기, 아시아광장(문화교류), 백제교류도시관(나라

뮤지컬, 전시체험 등 행사 풍성
국립 부여 및 공주 박물관 특별전


2012년 백제불교문화제 프로그램 중 마곡사에서 열린 불교중흥대법회 장면. 이번 제60회 백제문화제에서는 백제불교의 전래와 삼국 불교문화교류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관, 오사카관, 규슈관, 난징관, 낙양관), 파사드(영상터널), 한 · 중 · 일 컬처아트마켓(전시 · 판매 · 체험), 한 · 중 · 일 대서사시(벽화 3D영상), 교류왕국백제, 한 · 중 · 일 풍류관, 한 · 중 · 일공예관, 백제역사유적지구관, 무령왕이야기(단막극 뮤지컬) 등이다.

이와 함께 국립부여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유물 실물을 전시하는 제60회 백제문화제 기념 특별전을 준비 중에 있다.

부여박물관은 '삼국문화교류전'과 연계 9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최하는 '고대의 문화교류, 백제의 먼나라 이웃나라'를 연다. 여기서는 백제와 주변국(고구려, 신라, 가야)의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312점의 유적 · 유물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시된다.

공주박물관은 9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제60회 백제문화제 기념 특별전시 한 · 중 · 일 문화교류전'을 개최해 무령왕릉 출토 석수(국보 제162호) 등 100여점과 국보급 유물인 중국 남경박물관 소장 '왕건지묘지(王建之墓誌)' 등 30점, 일본 미야지타케(宮地嶽古墳)고분 출토 동탁유개동합(銅托有蓋銅盒) 등 8점을 전시한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국제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백제문화제 60년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했다"며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청소년 프로그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가 여름을 맞아 다양한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7월 25~27일 지리산 일대에서 '제3회 청소년 지리산마음캠프'를 개최한다.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섬진강, 산청 법계사, 지리산 천왕봉, 남원 실상사 일대에서 2박 3일 일정이 이어진다. 캠프에서는 청소년들이 함께 지리산을 걸으며, 이야기 나누고, 자신의 마음자리도 살피는 시간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8월 1~3일에는 고창 선운사와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제15회 어린이 여름생태학교'가 열린다. 환경부, 광주광역시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선운사 에코트레킹, 습지체험, 공동체 놀이, 건강한 먹거리 체험, 경제야 놀자, 환경 영화상영, 108배 절 명상 프로그램인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포장아트 지도사 과정

고창군사회복지지설(관장 대원)이 리본&포장아트 지도사 과정을 개설했다. 지역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리본&포장아트 지도사 과정은 다양한 리본 접기와 선물포장 기초 및 응용교육을 배우는 강좌로 전문기능인으로서 직업을 개발할 수 있는 자격증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본&포장아트 지도자 과정 강의 장면

교육과정은 40세 이하의 주부를 대상으로 매주 월, 화요일 2회,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민간단체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

7월 21일 고창 종합복지관 단풍실에서 진행된 개강식에서 대원 스님은 "젊은 여성이 농어촌에 정착하기 위해선 여성이 참여하는 일자리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 여성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과정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이번 기회에 평소 배우고 싶은 교육에 참여해 기쁘다"며 "자격증 취득 후에는 어린이집 아동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문화 · 예술 접목한 전주 연꽃문화제



불교문화와 문화예술의 접목을 통한 시민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전주 연꽃문화제가 전주 덕진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7월 19~20일 양일간 전국적인 연꽃 명소로 유명한 전주 덕진공원에서 개최된 '2014 전주연꽃문화제'는 연 향기 가득한 특설무대에서의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사)우리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성우, 금산사 주지)이 주최하고 전북 사암승가회가 후원한 연꽃문화제는 전주시를 위한 용왕재, 마술 및 클래식 공연, 젊은이들을 위한 밴드공연, 가수 박일준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또 가족시민들을 대상으로한 OX 퀴즈, 즉석 노래자랑, 연꽃 시민 노래자랑, 희망찬 전주를 위한 합창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덕진공원 일대에서는 연꽃 만들기 체험, 전통 부채만들기, 목탁 치기 체험, 다도체험 등 불교문화와 다양한 우리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과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수 전주시장, 김성주 민주당국회의원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해 연꽃문화제개막을 축하했다.

월주 스님(금산사 조실)은 개막식에서 "연꽃 축제는 전주의 자랑인 덕진 공원 연꽃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전북 도민과 전주 시민을 위한 문화제이다" 며 " 전주시민들의 행사를 넘어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제39기 합동득도수계산림 입재식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이 지난 7월 21일 순천 선암사 제39기 합동득도수계산림 입재식을 열고 42명의 스님들 배출했다. 이번에 태고종으로 출가한 스님들은 10월 20일까지 선암사 정수원에서 사미율의, 부처님 일대기, 초심, 발심수행장, 자경문, 불교기초교리, 염불습의, 특강(선암사, 총무원), 선암사 연혁 및 조사스님, 습의 등의 기초교육을 받는다.

이날 행자입교식에는 전체 42명(남자 행자 32명, 여자 행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수원 현판식, 일정보고, 습의사 소개, 죽비전달, 행자선서, 사홍서원 등이 진행됐다.

도산 스님은 격려사에서 "선암사와 같은 한국불교의 뜻 깊은 도량에서 대중살림을 함께하며, 출가사문으로서 그 덕과 행을 닦는 기초를 배우고 위의를 익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출가정신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3개월의 교육과정을 통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수원장을 맡은 설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교육과정 이후 태고종 스님으로서 종단발전에 원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달라"며 "충실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은 지난 3월 제113회 종회에서 행자 기초교육기관 '정수원'을 선암사(주지 설운)에 설치하는 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행자기초교육기관인 정수원 설치하고 3개월 행자교육을 의무화 했다. 행자교육 이후 동방대, 선암사 강원 사집과정 등 종단 공식인증 교육기관에 참가할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남지역 세월호 희생자 추모법회

호남지역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전주 정음사원(주지 보광)은 7월 20일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추모위령재를 봉행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봉행된 이날 추모법회는 지역의 스님들과 김승환 전북 교육감 등 각급 기관장들이 동참했다.

법사로 나선 행선 스님은 "세월호 사건과 같은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며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깊이 사유하고 참회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전북불교회관 실버음성공양단의 추모 공연과 영산작법이 봉행됐다.

이와 함께 대한불교선각종 옴천사(총무원장 정암)는 7월 23일 진도 남도석성방파제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100일 위령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정암 스님, 종회의장 원정 스님, 전남교구종무원장 진철 스님, 광주교구종무원장 진송 스님, 선각불교대학 학인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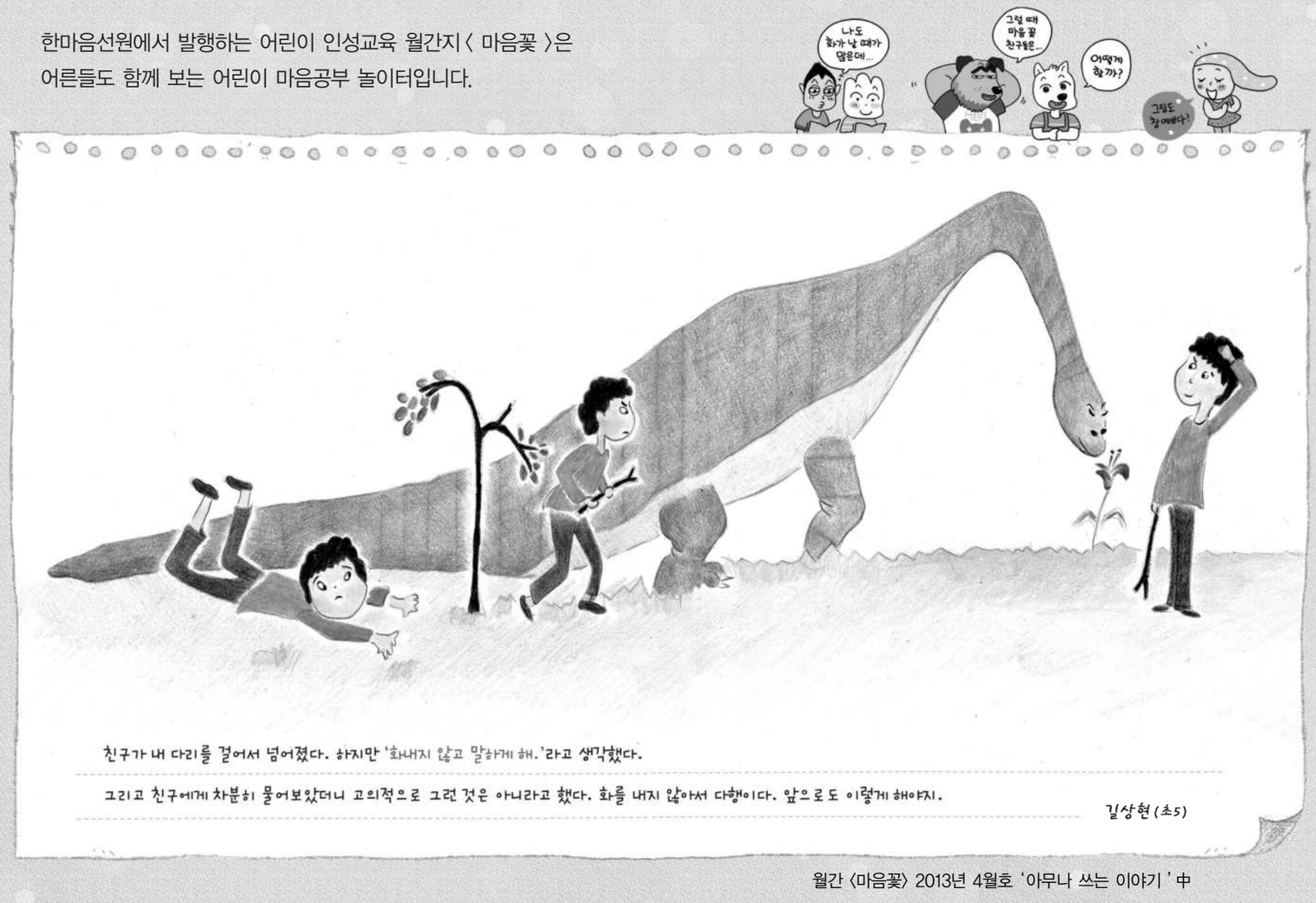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위령재를 봉행하는 선각불교대학 학인스님들(사진 위)과 정음사원에서 열린 합동추모위령재(사진 아래)

정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어린 아이들을 보낸 부모의 마음은 100일 아닌 100년의 슬픔을 더한 것보다 클 것"이라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가족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자"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 마음꽃 〉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中

마음꽃 피어라, 얍!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 사찰이나 학교 · 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

비폭력 상징 간디 흉상 홍법사에 건립

인도 정부가 제작 기증… 7월 21일 제막식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에 평화와 비폭력을 상징하는 인도 간디흉상이 국내 최초로 건립됐다. 홍법사 경내 입구에 세워진 간디흉상은 한국과 인도 수교 41주년 및 부산인도문화원 개원 기념으로 인도정부가 제작·기부한 것으로 2011년 서울 대학로에 제막된 인도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타고르에 이어 흉상으로 제작된 두 번째 위인이다.

간디흉상 앞면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라는 이름과 함께 인도정부에서 기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뒷면에는 '한-인도 외교수립 40주년과 부산인도문화 개원을 기념하며 인도정부에서 기증'이라는 한글문구로 양국 간의 돈독한 불교문화 교류를 입증하고 있다. 이에 7월 21일 간디흉상을 공개하는 제막식을 가진 홍법사는 내빈들의 환영사와 감사인사, 인도공연단의 축하공연으로 양국 간의 우호를 발원했다.

장덕민 부산인도문화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과의 수교를 위해 먼 나라에서 이곳까지 찾아와주신 인도 내빈 분들께 감사함을 먼저 전하고 싶다. 또한 간디흉상이 부산 불교의 대표 사찰이랄 수 있는 홍법사에 제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께도 감사하다. 부산인도문화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불교문화 교류를 통해 한·인도 양국 간의 화합과 우호에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인도 문화교류위원회(ICCR) 위원장인 사티쉬메타는 "한국과 인도가 수교를 맺은지 41년이 됐다. 인도의 불교를 상징하는 이 간디흉상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참여 내빈들이 간디흉상 공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한-인도 외교수립 41주년
홍법사 인도문화원 공동 행사
양국간 불교교류 앞장 다짐

이 우리 양국 간의 교류이자 앞날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며 간디흉상의 의미를 전했다.

주한인도대사 비쉬누프라카시는 "한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서원이 있었다. 바로 인도 불교의 대부 간디흉상을 한국 최초로 설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묘목을 우리 인도정부가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지금 보리수 묘목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적합한 사찰을 찾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하나씩 모여 인도 불교와 한국 불교가 화합하고 나아가 국가 간의 교류까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비쉬누프라카시는 "간디의 수만 명을 위한 비전과 사랑은 석가모니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아우르는 것이다. 오늘날의 첫걸음으로 간디의 사상이 부산으로부터 한국 전역까지 널리 퍼졌으면 한다"며 간디의 사상을 치하했다.

한나라문화재단 이사장이자 홍법사 주지인 심산스님은 "한국과 인도, 앞으로의 앞날에 대해 어떠한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저 오늘같이 뜻깊은 날을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ICCR 부설인 부산인도문화원은 지난 2013년 12월 홍법사 옆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에서 첫 개관을 했다. 부산인도문화원이 있는 건물은 홍법사가 인도와의 문화교류를 위해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는 건물로 이를 계기로 간디흉상을 홍법사에 설치하는 등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홍법사와 함께 펼쳐나가고 있다. 더불어 홍법사는 인도영화제 개최, 인도영화 무료상영 등으로 인도문화 홍보와 교류에 앞장서고 있어 이번 간디흉상을 기부 받는 영예를 안게 됐다.

김나영 객원기자

"그대와 나, 오늘 부처의 품에 들다"

통도사 여름수련법회 … 7월 18~19일



여름수련회 참가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지도법사 스님들에게 연비를 받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가 '그대와 나, 오늘 부처의 품에 들다'라는 주제로 2014 여름수련법회를 개최했다. 신행단체, 불교대학, 일반인, 어린이, 중·고등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련법회를 진행해온 통도사는 7월 18일 불교대학 90여 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을 진행했다.

첫날 입재식에서 참가자들은 발원문 낭독에 이어 주지 원산스님의 법문과 관세음보살보문품 및 사십이수진언 독송으로 부처님께 나아가는 삶을 발원했으며 저녁 공양시간인 발우공양에서는 스님들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수련회 일정을 차분하게 진행했다.

심야 시간에는 이전 여름수련법회와는 색다른 순서로 참석자들을 감동케 했다. 저녁예불 후 통도사 야외마당에서 펼쳐진 음악회에서 참가자들은 저마다 눈을 감고 명상

불교대생 90여명 참가
삼보일배·수계식 등

에 빠져들었다. 이는 통도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순서로 참가자들에게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힐링과 더불어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치유하게 하기 위한 특별순서였다.

둘째 날에는 새벽예불에 이어 일주문에서 적멸보궁까지 삼보일배가 진행됐고, 마지막 순서로 수계식이 통도사 율주 혜남스님의 법문과 연비의식으로 봉행됐다. 혜남스님은 "여러분의 팔에 향이 닿는 순간, 모든 고뇌와 업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오늘 수계식을 두고두고 기억하여 앞으로도 계를 지키는 불자로 정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통도사 여름을 맞아 다양한 여름 수련법회를 진행하며 회향은 8월 17일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생명존중사상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자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 일반인 대상 강좌 마련

장기기증 결연과 환자치료비 지원 등 생명존중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제2회 생명존중 강좌를 마련했다.

생명존중 강좌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강의로 2014 부산광역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생명존중 강좌의 강사는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센터장, 박동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 등이 나섰으며 '현대인 자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생명존중사상' 등의 주제로 각각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다. 오는 7월 28일 월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되는 제2회 생명존중강좌는 부산연합회교육관 대강당에서 현장접수로 신청 가능하다. 강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개의 강의로 꾸며질 예정이다. (051)853-0429

김나영 객원기자

재활용 놀이극으로 예술적 감성 일깨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 초청 무료공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경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기련)이 7월 14일 지역 내 아동들을 초청해 고물 놀이극 '쿵쾅쿵쾅 고물놀이터' 문화공연을 선보였다.

환경아동극인 '쿵쾅쿵쾅 고물놀이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공연 및 시설이 부족한 지역 내 아동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21세기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환경'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공연은 단순한 공연 관람이 아닌 아동들이 직접 재활용 악기들을



환경아동극인 고물놀이극에 참여하고 있는 거제시 아동들.

연주하며 예술적인 감성을 키웠다. 또한 재활용을 활용한 놀이극은 아동들의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적인 시간이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교사는 "거제지역 내에는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많지 않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참여소감을 밝혔다.

한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복지관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외부지원사업팀을 초청하여 무료 문화공연을 확대하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해인사 소리길' 합천군 상표 등록

여행 등 관련 상품 개발 예정

'해인사 소리길'이 상표등록돼 눈길을 끈다.

합천군은 지난해 '해인사 소리길' 명칭에 대해 특허등록을 출원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이 완료됐다는 서비스표 등록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상표등록이 이뤄짐에 따라 합천군의 허락없이 '해인사 소리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합천군은 앞으로 '해인사 소리길' 상표를 이용해 다양한 여행·관광 상품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합천군은 32억원을 들여 가야면에서 해인사에 이르는 홍류동 계곡 6㎞ 구간에 '해인사 소리길'을 조성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효도 삼계탕으로 건강 챙기세요"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300인분 보시

사단법인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가 위탁 운영하는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이 7월 18일 초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하여 효도삼계탕을 보시했다.

이춘성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스님, 오은택 부산시 시의원 등이 참석한 이번 '사랑의 삼계탕DAY'는 부산 용호동 내 결식 및 소외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기획한 행사이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의 이춘성 관장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양식은 고사하고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해 굶으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어르신들의 경우 날씨가 무더울수록 음식을 잘 챙겨 드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웠다.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후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삼계탕 300인분을 보시했다.

신들을 위한 영양 삼계탕을 오는 중복과 말복에도 보시할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약사불은 얼마나 많은 중생발원 들었을까

암자를 찾아서

③ 광주 무등산 약사암

자연과 따로서지 않고 일점을 더하듯 세워져 어느새 스스로 자연이 된 암자 약사암. 암자는 봉우리를 품고, 봉우리는 암자를 오랜 지기로 마주보는 모습에 보이는 이의 가슴이 저절로 따뜻해진다. 약사암은 이렇듯 서로 다독이며 어울려 살아가라는 부처님 말씀을 말 없이 전해준다.

약사암은 호남의 진산인 무등산 중턱에 위치해 있다. '無等', 비할데 없이 높은 산이자 평등을 상징하는 불교에서 비롯된 이름을 지닌 산이다.

약사암의 주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이다. 지번으로는 도심 속에 있는 듯 보이지만 무등산 속에 숨어있는 작은 암자다.

증심사로 가는 길을 따라가다 증심사 일주문이 보이는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증심사로 향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약사암이 나온다. 600미터쯤 올라가노라면 일주문이 날아갈 듯 서 있고, 약사계곡 왼쪽 분지에 그림 같은 새인봉을 바라보며 자리잡은 약사암이 보인다.

약사암은 신라시대에 철감선사 도윤(道允) 스님이 문성왕 9년인 847년 당나라에서 귀국한 뒤 창건해 인왕사(人王寺)라고 했다가, 고려 예종(1105~1122) 때 국사 혜조(慧照) 스님이 중창하며 절 이름을 약사암으로 바꾸었다. 조선시대인 1856년(철종 7) 3월 성암(性庵) 스님이 약사전을 중수하고, 1905년 9월에 선주(善周) 스님이 관찰사 주석면(朱錫冕) 등 관청의 도움과 시주로 중건했다. 1970년대부터 석담(石潭), 종일(宗一) 스님 등이 중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무등산 내 대부분의 사찰과 달리 약사암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 때문에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사적으로 광주시 문화재자료 2호로 지정돼있다.



약사암 나한전 전경. 약사암은 한국전쟁 때에도 피해를 입지 않아, 옛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주변경관과 함께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상당하다.


대웅전 내부에 모셔진 보물600호인 석조약사여래좌상


대웅전 앞 3층석탑. 무너진 탑재를 모아 복원한 것이다.

신라시대 철감선사 도윤 스님이 창건
한국전쟁때 피해 없어 옛모습 간직
토속신앙과 불교 융합된 모습 전해져

약사여래불, 찾는 이의 마음을 치유해

약사암 법당에는 신라 하대인 9세기에 만들어진 석조여래좌상이 안치되어 있다. 질병에 빠진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약사불은 중생들에겐 가장 필요한 부처의 모습이다.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여래좌상은 본존불과 대좌가 일체형으로 조성되어, 불상과 대좌를 포함해 226cm에 이른다. 8각 연꽃무늬 대좌에 앉으신, 유난히 넓은 무릎의 이 약사불은 천 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중생의 기원을 들었을까?

석조여래좌상은 두 손의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 오른손은 무릎위에 놓고 항마촉지인을 하였고, 왼손은 결가부좌한 발위에 올려놓은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석굴암 본존불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가는 허리와 경직된 어깨 등은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1856년의 약사전 중수 기록에 의하면 이 불상을 약사여래로 부르고 있다.

석좌의 사각형의 지대석은 하층기단과 함께 하대석 · 중석 · 상대석으로 이뤄져 있다. 하대석은 연꽃무의를 조각해 4개의 중석을 받치고 있다. 중석은 모서리에 귀기둥만을 조각했으며, 상대석은 평면이 원형이고, 연꽃잎 안에 또 다른 꽃무늬를 새긴 화려한 양식을 갖췄다.

두툼한 입술, 보일 듯 말듯한 미소, 중생을 향한 지극한 연민과 무명이 못내 안타까워 애타시는 마음의 바다가 보이는 듯하다. 비에 젖은 솜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한동안 바라보고 있다.

민족신앙도 함께 보듬은 산신비

약사암 경내에는 1980년에 건립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팔작지붕의 대웅전, 정면 6칸, 좌측면 5칸으로 'ㄱ' 자 모양의 민도리집인 요사채가 있고 대웅전 뒤편으론 팔작지붕의 정면 3칸, 측면 1칸의 운림당이 있다. 달빛이 교교한 달밤은 약사암 풍경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풍경에 마음이 동한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도 쉬운 일이니만큼 깊은데서 오는 깨달음이 아닐지도 모른다.

무너진 탑재를 모아 복원한 삼층석탑도 또 다른 볼거리다.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탑으로 기단부는 본래의 석재가 갑석밖에 없어 원형을 짐작하기 어려우나, 현재는 중석의 모서리에 귀기둥만을 새긴 단층기단으로 남아 있다. 2층과 3층은 복원할 때 새로 만들었고, 옥개석은 3층까지 모든 본래의 석재이다.

작은 암자여서 약사암에는 일반적인 산신각을 대신해 산신비가 있다. '瑞石山ㅇ神之碑'가 새겨진 산신비는 대웅전 좌측 위편에 위치해 있다. 약사암은 왕의 옥새를 뜻하는 세인봉과 천제단(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 중간에 위치한 사찰로 예로부터 토속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신앙이 전해져왔다. 특히 단군왕검을 비롯해 한민족의 발원과 함께 이어져온 수호신령들이 산신으로 표현돼 모셔져 있다. 무등산에는 매년 단군왕검에 의해 개국된 고조선을 기념하는 개천제가 열리고 있다.

수려한 경관 한폭의 그림 같아

약사암은 계절별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봄에는 사찰경내와 산행 길에 피어나는 철쭉이 첫 번째의 장관이다. 여름은 계곡과 편안한 휴식을 자랑하는 명소이다. 가을은 사찰 곳곳에 상사화가 핀다. 그리고 단풍과 은행나무 잎이 물드면 사찰 차봉사팀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차판을 벌이고 시민들을 위한 '들차회'를 개최한다. 흰 눈이 내리는 겨울은 눈 치우는 운력이 만만치 않지만 눈꽃의 아름다움은 사찰 탐방의 백미를 더한다.

약사암 앞마당에서 바라본 새인봉은 어제처럼 들어와 있고 그 위로 잘 닦인 놋주발 같은 보름달이 떠 있다. 약사암에 오면 아무리 미워한 마음도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녹을지도 모른다. 거기에 부처님의 법문이라도 듣고 있노라면 성과 속이 둘이 아니고 사람과 하늘이 따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약사암이라 이름했을지도 모른다. 마음이 번다해 질 때 증심사로 가는 길을 잡아 조용히 약사암에 오르면, 우리의 번뇌들이 어느새 달아나있을 것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주변 둘러볼만한 곳

▲증심사

무등산에는 약사암 외에도 증심사, 원효사, 규봉암, 문빈정사 등 많은 사찰들이 있다. 이중 증심사는 송광사 말사로 철감(澈鑒) 선사 도윤(道允) 스님이 개창하고, 고려 선종 11년인 1094년에 혜조(慧照) 국사가 중수했다. 경내에는 오백전(五百殿) · 3층석탑 · 5층석탑 · 7층석탑 · 오백나한(五百羅漢) 및 철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131) · 석조보살입상 등이 보존돼 있다.

▲의재미술관

이와 함께 우리 민속화를 볼 수 있는 의재미술관도 지척에 있다. 무등산 증심사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담한 현대식 건물이 있다. 이곳이 바로 의재미술관이다.

의재미술관은 의재 허백련(毅齋 許百鍊)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미술관이다. 1891년에 진도에서 태어난 의재 허백련 선생은 20세기 우리나라 남종화의 대가(大家)이다.

의재 선생은 무등산 자락 춘설헌에 기거하면서 많은 명작을 완성하였다.

미술관 뒤편으로는 무등산 춘설 녹차밭이 있고, 그 앞에는 의재 선생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춘설헌과 의재묘소 등이 있다.


의재미술관 내부 전경

"시민 치유도량으로 발돋움"

주지 운산 스님



"약사여래를 모시는 절인만큼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도량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약사암 주지 운산 스님은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약사여래의 원력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약사암은 광주 도심과 가까운 무등산에 있는 사찰로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이다.

이런 연유로 매주 일요일마다 시민들을 위한 무료 국수봉사와 전통차를 대접한다. 일요일 국수봉사 날이면 산행을 즐기는 가족들과 등산객들은 약사암에 들러 감로수와 같은 국수를 먹는다. 2009년에 시작했으니 벌써 6년째이다.

운산 스님은 "최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내방객들이 많이 늘었다. 평소 150~300그릇 정도를 대접하지만, 본격적인 산행철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절을 찾는다"라고 말한다. 약사암은 일요일 국수 공양 외에서 시민들을 위한 휴식처로 제공하고 있다.

"절에 오신것도 고맙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바라만 보아도 행복합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쉬었다 가셨으면 합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파손, 도난 걱정 끝!!

이제는 범양금고 철제 불전함 입니다

불자의 신심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기존 목재 불전함의 단점을 한번에 해결한 철제 복전함으로 실내외 어디든 정재보호와 도량장엄의 역할을 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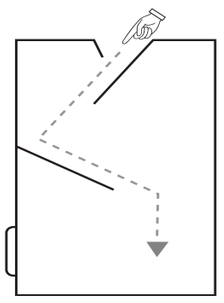




◆ 특징 : 파손 및 도난 걱정 끝, 견고한 통강판 사용, 번호 및 키 잠금장치, 바퀴 부착으로 이동편의

① 높이 650 × 너비 700 (85만원)
② 높이 620 × 너비 420 (50만원)
③ 높이 620 × 너비 350 (40만원)
④ 높이 900 × 너비 600 (80만원)
⑤ 높이 730 × 너비 600 (70만원)
⑥ 높이 1000 × 너비 600 (80만원)
⑦ 높이 700 × 너비 700 (70만원)
⑧ 높이 740 × 너비 650 (85만원)

◆ 주문 후 2~3일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송비, 송달비 별도)
◆ 시안 제작 후 사진으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일반 금고 판매합니다.
◆ 입금계좌 (예금주 : 강순길)
기업은행 010-5414-2304
국민은행 614101-01-048120
농협중앙 221103-52-056910
하나은행 479-910037-98607


기존 불전함의 투입구 취약함을 보완하여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범양금고 031)764-6234. 010-5414-230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길 8 (연곡리 172-5)

탑의 진화
⑮ 중국의 불탑(2)-당나라

고층 누각식 불탑… 도교와 불교의 만남

지난 호에는 동한시대에 불법이 전해진 이후 수(隋)나라 시대까지의 불탑을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는 당나라 이후 다양한 형태로 발전된 중국 불탑의 조성과 변천을 알아보고자 한다. 단명 했던 수나라와는 달리 당나라(618~907)는 비교적 정치적 안정 속에 불교문화가 꽃을 피운 시기이다. 중국 전역에 100여기가 넘게 현존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 시기의 조형적 특징은 사각형의 고층 누각식과 밀첨식이 주를 이루지만 6각형과 8각형의 기단이 등장하며, 내부에는 예불공간이 확보되어있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중국의 불탑은 물론 일본 및 나아가 우리나라의 불탑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불탑의 분류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불탑의 분류 기준은 **〈표1〉**과 같다.

불탑을 조형적 구조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인도를 비롯한 남방 불교권에서는 사각형탑과 원형탑이 주류를 이룬 반면 중국의 경우는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누각식탑(樓閣式塔), 밀첨식탑(密 B式塔), 정각식탑(亭閣式塔), 화탑(花塔), 복발식탑(覆鉢式塔), 금강보좌식탑(金剛寶座式塔), 과가탑(過街塔)으로 분류한다.

일본의 경우는 다중탑(多重塔), 다층탑(多層塔), 보탑(寶塔), 다보탑(多寶塔), 등 보다 세밀하게 30여 가지로 분류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불탑을 재료에 의하여 목탑, 전탑, 석탑 등으로 분류하고, 형태에 따라서의 세부 분류는 상용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석탑의 경우는 일부 학자에 의해 양식 변천을 기준으로 시원기(始原期), 정형기(定型期), 전형기(典型期)와 이형석탑(異形石塔)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또한 층수에 의해 단층탑, 2층탑, 3층탑, 4층탑, 5층탑, 7층탑, 9층탑, 10층탑, 13층탑, 15층탑, 17층탑, 37층탑 등으로 나누기도 하며, 탑신의 층수는 절대 다수가 홀수인데, 짝수 층으로 구성된 불탑도 드물게 조성되었다. 예를 들면, 2층탑은 중국 북경시 운거사탑(云去寺塔)**〈사진1〉**, 8층탑은 중국 하북성 남궁시 보동사탑(普?寺塔)**〈사진2〉**과 우리나라의 경남 산청 대원사 8층석탑 등이 있으며, 10층탑은 중국 하북성 영우사(永佑寺)사리탑**〈사진3〉**, 우리나라의 원각사지 10층탑과, 경천사지 10층탑, 그리고 최근에 조성된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 10층탑 등이 있다. 평면에 의해서는 원형탑, 4각형탑, 6각형탑, 8각형탑 등으로 분류한다.

한편 탑을 조성하는 재료로써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전탑, 목탑, 석탑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옥탑(玉塔), 수마노탑(水瑪瑙塔), 금탑(金塔), 은탑(銀塔), 칠보탑, 사탑(沙塔)등처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조성하였다. 또한 조성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복을 짓기 위해 세우는 기복(祈福)탑과, 부모나 스승, 그리고 삼보의 은혜를 갚고자 세우는 보은(報恩)탑, 경전인 법보를 봉안한 법신(法身)탑, 그리고 부모 또는 자신이나 단명한 이의 수명 연장을 발원하기 위해 세우는 수(壽)탑 등이 있다.

다시 중국 당나라 시대에 조성된 불탑에 대하여 알아보자. 당시대에 조성된 불탑 중 현존하는 것은 누각식이 가장 많다. 이러한 누각식은 재료에 있어서 나무에서 시작하여 벽돌과 석재로 발전하였다. 즉 목탑에서 전탑을 거쳐 석탑으로 조성된 것이다. 이러한 누각식탑은 중국 전통 건축기술에서 도교의 신선사상에 근거한 고층누각건축 건립문화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즉 도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신선은 하늘과 통하는 높은 곳에 위치하므로 불교사상과 조화를 이루며 누각식 불탑이 조성된 것이다. 특히 불교의 호국사상과 호지불법사상에 근원하여 불탑을 군사적 목적으로도 조성되었는데, 북경시의 양향다보불탑(良鄕多寶佛塔)과 옛 신라 경주의 황룡사9층탑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적 목적의 불탑은 대체로 조망권이 확보되는 언덕 위나 평지에 세워져 전망대의 역할을 겸비하기도 하였다.

양향다보불탑**〈사진4〉**은 중국불탑에 있어서 군사적 목적으로 조성된 많은 탑 중에 하나로 벽돌을 주재료로 한 높이 약 36m의 8각 5층 전탑이다. 청나라 시대에 발간된 '양향현지(良鄕縣志)'에 의하면, 원래 이 탑은 수나라 때 조성되어 당나라 때 중수 되었는데 조성 목적이 외세 침입에 대한 방어의 목적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중국에서 조성된 누각식 불탑의 특징은 기단부가 있으며, 대들보, 기둥, 두공 등 고층 누각의 구조적 특징이 있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초기에는 나무를 주요재료로 하여 조성한 목조 누각식이 동한시대 말기에서 남북조 시대까지 대세였다. 그러나 목조는 내구성의 한계로 수명이 짧고 잦은 전쟁과 화재로 벽돌로 주재료가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수당시대 이후에는 중국전역에서 벽돌의 생산이 유행하면서 목탑조성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지만, 조형상의 특징은 목탑을 표현하는데 주력하여 비록 재료는 벽돌이지만 목조건축물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수당시기의 목탑은 현존하는 것이 없어 아쉬움이 있지만 북위시대 양현지가 낙양의 많은 불적답사를 하고 기록한 '낙양가람기'에 의하면 낙양 영녕사(永寧寺)목탑의 기록이 있다.

영녕사 목탑**〈사진5〉**은 남북조시대 북위(北魏) 희평(熙平) 원년(516년)에 영태후(寧太后) 호씨(胡氏)가 조성하였으나, 영희(永熙) 3년(534년) 화재로 소실된 9층 목탑이다. 높이가 90장(丈)에 달하여 백리 밖에서도 보였다고 한다. 90장이라고 하면 136.71m로 탑찰 높이를 더하면 약 147m에 달하며, 오늘날 약 48층 이상의 고층 빌딩에 해당된다. 이는 극동지역에서 가장 높았다고 전해지는 신라의 황룡사 9층 목탑보다 약 50m이상 높은 탑이었다. 534년 화재로 바닥기초까지 전소되어 당시 효무제가 눈물을 흘렸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2001년 중국사회과학원이 이듬해까지 발굴한 결과에 의하면 탑의 기단 크기가 동서101m 남북98m로 흙을 다진 판축법으로 조성했고 탑신이 올라서는 기단 폭은 38.2m 높이 2.2m로 청석으로 만들었으며 사방에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을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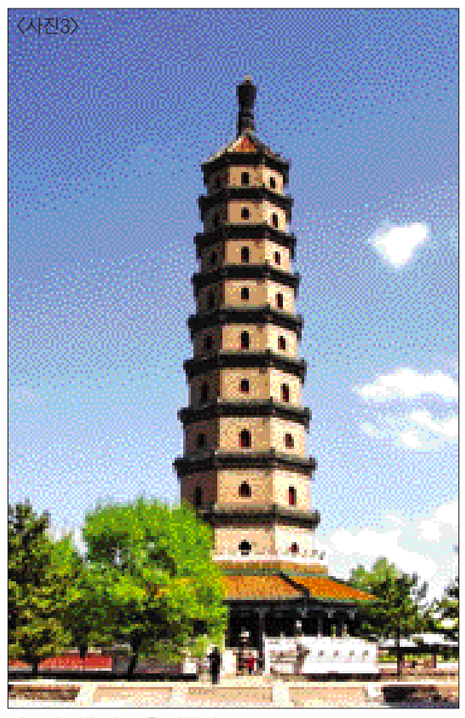
중국에서 현존 가장 오래된 누각식 목탑은 요(遼, 916~1125)나라 청녕(靑寧)2년(1056)에 조성된 산서성(山西省) 불궁사(佛宮寺) 석가탑이다.**〈사진6〉** 중국 산서성 응현(應縣)시에 있어서 응현목탑이라고도 불린다. 탑 높이는 67.31m로 1층의 직경길이만 30.27m이며, 팔각형의 외형은 5층탑이지만 내부는 빛이 들어오는 명층(明層) 사이에 각각 어두운 암층(暗層)이 끼여 있어 총 9층이다. 쇠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목재 부속 재료와 54종의 두공(斗拱)으로 홈에 끼어 맞물리도록 쌓았으며, 추정되는 총 무게는 743만 377t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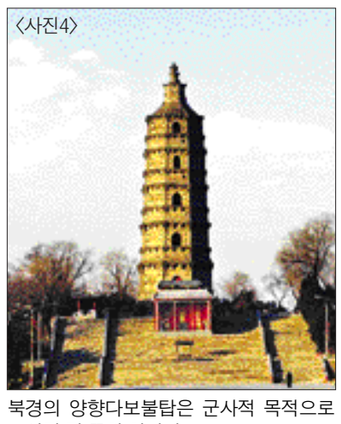
조성은 요나라 시기인 1056년에 시작하여, 140년 후에 완공되었다. 이후 약 960년 동안 지진과 번개, 외침 등을 견디며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 탑이 있는 응현시는 주변이 평지이기 때문에 일종의 군사용 전망대의 기능도 있었을 것으로 추축된다.

이 탑의 또 다른 특징은 각 층마다 현판이 걸려있는데, 그 내용은 위로부터, 준극신공(峻極神工), 천하기관(天下奇觀), 석가탑(釋迦塔), 천궁고용(天宮高聳), 정직(正直), 천주지축(天柱地軸), 만고관첨(萬古觀瞻)이 걸려 있는데 각기 쓴 시기와 작가가 다르다. 다음 호에는 누각식 전탑과 석탑 및 밀첨식 불탑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1〉
북경시 운거사 2층탑.


〈사진2〉
남궁시 보동사8층탑.


〈사진3〉
하북성 영우사 10층 사리탑.


〈사진4〉
북경의 양향다보불탑은 군사적 목적으로 조성된 탑 중의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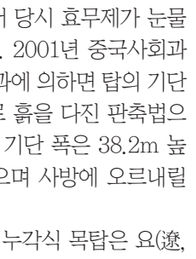

〈사진5〉
영녕사 목탑지. 영녕사 9층 목탑은 534년 화재로 소실됐다.


〈사진6〉
현존 최고(最古) 누각식 목탑 불궁사 석가탑.

〈표1〉 분류기준에 따른 불탑 분류방법의 예

구분	분류 기준	분류 내용
1	구조와 조형적 특징	누각식, 밀첨식, 복발식, 정각식, 화식,등
2	조성 재료	흙탑, 전(塼)탑, 목탑, 석탑, 옥탑(玉塔), 수정(水晶)탑, 사(沙)탑 니(泥)탑, 분(糞)탑, 철(鐵)탑, 은탑, 금탑, 유리(琉璃)탑, 향(香)탑 등
3	봉안품의 내용	사리(舍利)탑, 발(髮)탑, 조(爪)탑, 아(牙)탑, 의(衣)탑, 발우(鉢盂)탑 병(甁)탑 등
4	탑의 수량	단탑, 쌍탑, 삼탑. 오탑, 군탑 등
5	탑의 평면	4각형, 6각형, 8각형, 12각형, 원형 등
6	탑의 층수	단층탑, 2층탑, 3층탑, 5층탑, 7층탑, 9층탑, 11층탑, 13층탑, 15층탑 등
7	탑의 배열	고립(孤立)식탑, 대립(對立)식탑, 배립(排立)식탑, 방립(方立)식탑 등
8	조성 목적	기복(祈福)탑, 보은(報恩)탑, 법신(法身)탑, 수(壽)탑 등

당나라 이후 다양한 형태로 조성
당양식 중국 전역에 100기 넘게 현존
사각형 고층 누각식, 밀첨식 주류
목조 내구성 한계 전탑으로 변형
목탑, 전탑, 석탑 순으로 발전
불탑을 군사적 목적으로도 건립



글 · 우인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고품격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16일 189만원
(초특급 호텔, 모든경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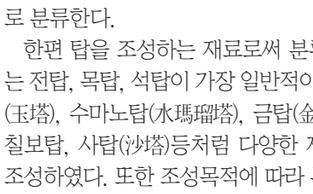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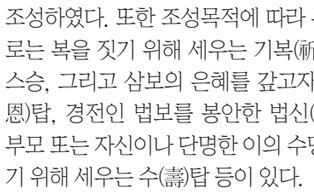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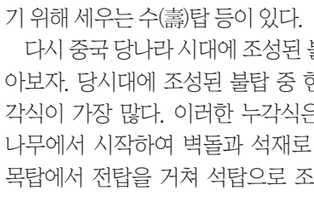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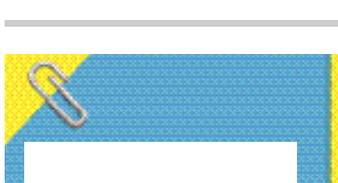
– 중국 4대 불산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8월 26일 출발
보현도량 (아미산) 5일 9월 12일 출발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9월 18일. 9월 25일 출발
구채구. 황룡 6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8월 16일. 9월 12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달라 5일 8월 20일 출발
양곤/바간/헤호 6일 8월 23일. 9월 27일 출발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16일. 8월 30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8월 29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인도 / 네팔 13일 11월 20일. 2월 27일 출발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코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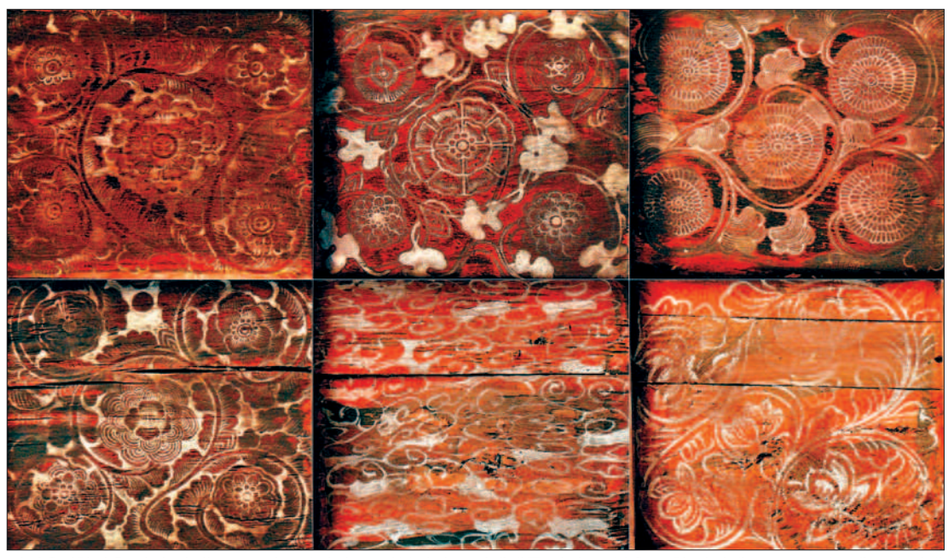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화엄의 꽃 절집 천정
〈2〉 지리산 화엄사 원통전

현묘하면서도 변화무쌍한 생명력

우리나라 절집은 문화재의 보고이며, 미술사적으로는 문양의 보고다. 그 문양들은 종교적 신성과 경전의 가르침, 시대정신을 담지하고 있는 까닭에 대다수가 상징적이며 중의적인 관념을 가진다.

문양에도 체(體)와 용(用)이 있고, 이(理)와 사(事)가 있다. 체(體)와 이(理)가 문양에 담긴 본질이라면, 용(用)과 사(事)는 문양의 형식으로 빌려 온 외형적 현상이다. 플라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데아–현상–예술의 연계구도라 할 것인데, 플라톤 철학세계에 의하면 현상은 실체의 그림자로 모방, 곧 '미메시스'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 하였으나, 그 때의 모방은 단순한 외형적 복제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작용한 '정화된' 모방이다. 무릇 인간이 만들어낸 문양은 '자연의 모방', 곧 자연의 차용에다 인간의 심미적 의식이 작용한 인문적 산물이다.


사진은 〈향좌측 천정 장엄〉. 고구려고분벽화, 고려불화의 문양세계를 닮았고, 붉은 주칠 바탕에 흐르는 호분 백묘의 선에 신령한 기운이 뻗친다.


사진은 〈향우측 천정 장엄〉. 꽃의 자리에 새긴 육자진언과 부처님의 명호. 자연의 '형(形)'을 빌려 부처님의 '신(神)'을 드러내고 있다. 천정의 꽃은 여래이자, 진리의 묘법연화다.

천정은 진여법계이자 대생명력의 우주

사찰은 문양의 장경판전이라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전통사찰의 중심불전에 장엄이 집중되어 나타나고, 특히 천정에는 문양의 화엄세계가 만다라식으로 펼쳐진다. 천정(天井)은 본질적으로 부처님의 세계인 진여법계이자, 대생명력의 우주다. '생명'의 우주는 땅이고, '생명력'의 우주는 하늘이다. 생명력은 생명을 기르는 힘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다. 만유의 생명력의 근원은 빛과 물의 대자대비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비롯되는데, 텅 빈 하늘의 불가설한 경이로움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그 생명력의 물과 빛과 같다. 그것이 불전공간에 울거미를 올려 井자형 반자틀을 내고 청판을 덮어 우물천정, 곧 '하늘의 우물'을 마련하는 건축조형의 뜻이다. 천정에는 진리의 빛, 법신이 상주하시고, 만유의 생명력의 근원인 물이 있다.

장엄은 '형(形) 빌려' 신(神)'을 드러내는 것

지리산 화엄사 원통전 천정에 베푼 꽃 형식의 장엄세계는 자연의 패턴을 빌려 인간의 심미적 의식으로 변용한, '정화된 모방'을 잘 보여준다. 자연(自然)은 '스스로 그러함'이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미감과 도덕감을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불문율의 거룩한 법칙성을 갖추고 있다. 그것들은 인간의 심미적 의식에 의해 내적 덕성을 갖춘 고귀함, 고유함으로 정화되어 표현된다. 단순한 전이모사의 단계를 넘어, 형태의 '형(形)을 빌려 내재된 정신의 ' 신(神)'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때 이중섭의 소는 더 이상 밭을 가는 소가 아니며, 부처께서 영산회에서 들어 보이신 연꽃은 더 이상 자연의 연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형이하학에서 형이상학적인 영혼의 힘을 갖추는 것이다.

원통전 천정장엄은 장엄예술에서 형신(形神)의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담아낼 것인가를 여여하게 보여준다. 그 연원을 거슬러 오르면, 고구려 고분벽화와 통일신라의 와당문양, 그리고 고려불화에 이를 것이다. 어제에 담긴 고전의 법도는 오늘의 빛이 되는 법이다. 그것이 전통과 고전의 힘이다.

화엄사 원통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크기의 18세기 목조건축이다. 3×3칸의 장방형에서 중앙칸에 불단과 닫집을 마련해서 이근원통의 관세음보살을 모셨다. 천정도 내부기둥과 외부기둥의 축선에 따라 크게 3×3, 9칸으로 면분할 하였는데, 닫집을 마련한 중앙칸은 한 자 깊이로 더 높이 밀어올려 사각형 감실을 마련해서 위계를 높였다.

270칸 반자마다 진채와 영기문 베풀어

천정은 정(井)자 모양의 격자틀로 짠 우물천정이다. 천정에 마련한 반자틀의 칸수는 총 270칸이다. 칸칸마다 꽃과 구름모양의 영기문을 베풀었다. 달리 말하면, 신령의 기운이 흐르는 판벽벽화를 270본이나 조성하였다는 뜻이다. 부처님을 바라볼 때 향우측은 앞에서부터 6×4(前), 6×5(中), 6×4(後) 칸씩이고, 가운데 칸은 7×4(前), 7×6(中), 7×4(後) 칸씩이며, 향좌측은 6×4(前), 6×6(中), 6×4(後) 칸씩해서 총 270칸이다. 정면 출입문과 불단이 있는 가운데 칸의 천정문양은 소위 '보상화' 영기문을 진하게 색을 입힌 진채 채색화이고, 그 양쪽의 천정문양은 영기문 백묘화다.

천정의 전체적 분위기는 어둠에 길들여진 색채의 무념무상의 경지를 보는 듯 차분하고 침착하다. 색은 퇴락해 있지만 문양에 흐르는 기운은 역력하다. 마치 사위어가는 저녁노을의 빛이라 할까, 무진의 포구에서 미끄러져오는 목선이라고나 할까, 어슴푸레함 속에서도 마음에 차오르는 감흥을 불러 일으킨다.

천정반자 바탕엔 먼저 검붉은 빛의 석간주를 두터이 입혀 바탕을 가칠마감 했다. 그 위에다 꽃의 형식을 빌린 영기문을 채색화로 베풀거나 백묘로 풀었다. 특히 주목을 끄는 영기문양은 좌우 양쪽의 장엄문양과 채색기법이다. 검붉은 색 바탕에 하얀 호분의 백묘가 변화무쌍한 곡선을 그리며 돋아나 솟구쳤다가, 때론 아슴하게 잠기기를 거듭한다. 유영하는 고래를 보는 듯 하다. 이전에 경전 목판을 보관하던 창고칸 부분의 천정은 더욱 미묘하고 현묘하다.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후불벽에 내건 영산회상 후불탱화를 대하는 느낌이다. 붉은 색 바탕에 백묘의 흰선이 넘실되는 그 미묘함이 전해지는 것이다. 흰색 호분에 기름의 번짐이 느껴지는 색채의 여운감도 닮았다. 그 연유는 원통전 바로 옆의 각황전에 가보면 자연히 풀린다.

색채는 무념무상 경지 보듯 차분
선율 지닌 리듬감 전해지는 문양
고려불화 중 '당초원문' 연상돼
반자틀 일부엔 꽃의 본질 각인

각황전은 숙종 28년(1702년) 완공되었고, 원통전은 1년 뒤 1703년 중건되었다. 각황전 천정에 베푼 문양과 원통전의 문양은 서로 닮았다. 그런데 각황전의 문양이 투박하고 대범하다면, 원통전의 문양은 현묘하면서 기예가 살아있다. 문제는 세 폭의 각황전 후불탱화다. 거조암 영산회상탱처럼 붉은 주칠바탕에 호분의 백묘를 입혔다. 그 채색의 붓질이 원통전 천정에도 이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통전 천정은 붉은 주사와 흰색의 단조로운 색의 조합인데도 변화무쌍한 기운생동의 힘이 전해지는데, 그것은 문양의 선율이 지닌 리듬감에서 우러나온다. 곧 붓을 운용해간 골법용필의 운필에서 나오는 힘이다. 그 힘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고려불화를 거쳐 조선에 이르는 조형문양의 면면한 전통에서 우러나온다. 힘은 물론 물리적인 힘의 차원을 넘어선 신령의 힘이다.

원통전 천정의 문양을 보고 있으면, 고구려 고분벽화 강서중묘 널방 천정에 그려진 팔메트 영기문이나 안악 2호분 문양, 또는 경주 월지에서 출토된 넝쿨문, 보상화문의 와당들이 연상된다. 그와 동시에 고려불화 중에서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일본 네즈미술관 등에서 소장한 지장보살도의 의습에 금니로 섬세하게 표현한 '당초원문' 영기문양을 떠올리게 된다. 단지 그 문양들을 시대를 초월하여 진여법계인 사찰천정 반자틀 안에 세세생생 풀어 놓았을 따름이다. 시대와 공간만 다를 뿐 조형원리는 일맥상통하다. 가역적으로 말하면 원통전 천정의 영기문양을 낱낱의 단위로 해체하면 신라 와당문양이나 고구려고분벽화 천정에 새긴 영기문이 될 것이며, 금니의 원형에 돌돌 말아 넣으면 고려불화 의습의 문양으로 마치 제 집을 찾아가듯 자연히 자리를 잡을 것임에 분명하다. 고구려 고분벽화가 지닌 원형의 악보을 갖고 시대에 따라 다채로운 변주곡을 연주하고 있는 셈이다.


원통전 천정장엄


닫집이 있는 중앙칸 장엄


화엄사 원통전 전경

천정의 꽃은 삼회일귀의 묘법연화

몇 몇 반자틀 안에는 이 곳 천정장엄에 베푼 꽃의 본질을 각인시키고 있다. 바닷물을 맛보는데 모든 바닷물을 다 마실 필요는 없다. 태극기의 '건곤감리 청홍백'의 원리를 떠올리면 문양의 개요가 쉽게 다가온다. 건곤감리 사괘와 태극의 자리에 원형의 꽃을 그려 넣고는, 만유에 대자대비로 상주하시는 부처님의 명호를 한자와 범자로 새겨 넣었다. '관세음보살'과 '옴마니(반)메훔'의 육자진언, 그리고 '석가모니불'을 드높은 꽃의 자리에 모셨다. 그 자리는 분별의 자성을 여읜 걸림이 없는 원융회통의 자리, 곧 중도의 연화좌다.

그 꽃은 더 이상 자연의 꽃이 아니다. 거룩함으로 정화된 꽃이다. 불교장엄에서 수레바퀴가 탈 것의 묘사가 아니라, 중생에게 베푸신 법의 전법륜인 것과 같은 이치다. 절집천정의 꽃은 시방삼세 차별없이 상주하시는 부처요, 법의 진리이며, 대생명력의 대자대비다.



자연의 꽃을 빌려 신묘한 뜻을 펼쳤으니, 삼회일귀의 묘법연화가 지리산 원통전 천정에 큰 수레바퀴로 걸려있는 것이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귀신병, 신병, 퇴마, 천도재 전문

NAVER Da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TV출연 다수의 현오스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단, 1번의 기도가 당신의
사주를 확 바꿀수도 있습니다.

퇴마술 / 최면술 / 기공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천암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낙동강, 토곡산 청명함과
자연치유의 방편으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만들어 드립니다.

상담 / 문의 1899-8108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상대성 굴려 절대성 꽃 피운다

중생불 ②

그러하니 이걸 여러분들이 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이름 지어서 성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영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요새 우리가 말하는 절대성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성자리가 있다는 걸 지금 알았거든. 알았어. 옳지, 내가 이 공부하려는 생각도 절대성자리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절대성자리가 그리 생각을 해서 시장에 가서 이 몸뚱이를 끌고 가서 물건을 사 온다. 혹은 어떨 때는 들뜬 마음으로 미운 생각이 나. 어느 놈 그놈 도저히 사람 같지 않단 말이야. 밉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도 절대성자리가 있기 때문에 밉다는 경계에 휘둘려서 밉다는 생각이 난다는 이걸 여러분이 아시거든. 알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바로 성품을 본 거여. 견성이여. 견성이라 하면 성품을 본다 하는 건데 실에 있어서는 이 말 자체가 그릇된 말이여. 어째 그릇된 말이냐. 성품을 본다 하면 보는 놈이 따로 있고 성품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 그럼 법 두 나라 말이야. 그러나 이거를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견성이란 말이 이거 틀린 말이거든. 잘못된 말이거든.

그러나 이 견성이란 말은 이렇게 말을 안 하면 표현이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성품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여. 그러니까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성자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성을 내가 굴린단 말이여. 절대성자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성을 굴려서 절대성의 꽃을 피운단 말이여.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이거든. 그럼 벌써 견성해 버렸어. 솔직한 말로 견성이란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어려웠어. 그러나 요새 과학이 발달돼서 비행기가 달나라를 갔다 온다든지 텔레비전도 있고, 전부 설법하고 있단 말이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딱딱 맞네. 이전 사람들은 십 년 설법을 들어야 될 것을 요새 사람들은 일 년만 설법 들어도 되고 한 달만 설법 들으면 돼.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한 시간만 설법 들어도 돼요. 과학적으로 딱딱 맞거든.

그러하니 여러분은 그 과정을 지났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품을 보고 있어요. 성품을 봤는데 여러분 자신들이 봤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느냐. 견성이란 걸 무슨 별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야. 굉장한 건데. 그러하기 때문에 이전 어른들도 일평생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십 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선입관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성품을 환히 보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행여 다른 데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은가 찾고 있거든.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성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견성한 줄을 모를 따름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우선 첫째 견성이란 말이여. 견성을 하게 되면 망념이, 망심이 본적하고 진경이 본공하다는 걸 알아. 저절로 알게 돼. 이 절대성자리가 있음으로써 상대성을 굴린다는 이걸 딱 알아 버리면 말이지 하루 종일 망념을 부려도 망념이 망념이 아니라. 진심이라. 하루

> **마음씀이 절대성 자리**
> **마음 성품 사라지지 않는다.**
>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 **날래야 날 수도 없는 그대로**
> **생사는 전부 상대성 놀음**

종일 경계로 더불어서 좋다 나쁘다 시비를 하더라도 벌써 그 성품자리를 딱 알아버리면 그 경계가 공성이라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망심이 본적이니 진경이 본공이니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 빤한 거여.

그러하니 나는 부처님 말씀한 거 휙 뒤집은 거여. 부처님이나 조사 어른들은 그것부터 먼저인데, 나는 견성이란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거여. 하면 이건 저절로 알아진다. 결국 알고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권도로서 말이지. 여러분들은 말쑥하게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데 더 좋은 것이 없는가 싶어서 헤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다른 데 헤매지 말아요. 헤매지 않으면은 여러분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여러분 내 말을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듣지만은 사실 여러분의 귀가 듣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 놈은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그 놈이 뭣이냐. 우린 또 이름자를 붙인다 말이죠. 이름 붙여서 마음이라 합시다. 또 다른 말로 성품이라 합시다. 또 하나 다른 말로 하자면 절대성자리인데, 절대성자리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데, 이 절대성자리는 내 말을 듣고 있는데 다른 분별이 없거든. 다른 분별이 없어. 진경에 휘둘리지 않고 있어. 순전히 내 말만 듣고 있어. 이 듣는 이놈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는 거여. 지금 현재 이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요 마음씀이 절대성자리 마음 성품, 요 놈은 태양이 뭉개어지고 지구덩어리가 뭉개어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밀가루같이 돼서 다 날아가더라도 이놈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여. 이놈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날래야 날 수도 없는 그만 그대로라. 생사니 뭣이니 하는 거 전부 상대성 놀음이거든. 상대성놀음이란 건 전부 헛거라는 말 아니에요? 변하는 거란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 할지라도 우선 견성부터 먼저 해야 돼. 견성하기 전에는 책을 암만 읽어도 소용이 없어. 안 되는 거여. 하기 때문에 일단 견성해야 돼. 견성하고 나면 망념이 본적한 걸 알게 돼. 진경이 본공한 걸 저절로 알게 돼. 알면서 나중에는 망념도 상대성, 진경, 먼지의 경계. 진경도 상대성이거든. 상대성 굴리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안 해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나가면은 문제는 달라. 오늘 이 시각부터 설법 듣는 것도 달라져요. 왜 그러느냐. 솔직한 말로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부처 아니라요? 바로 여러분들이 노사나불의 화신이거든. 실에 있어서. 또 어제인가 아래(그저께)인가 설법한 보신 화신 진짜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산첩첩미타불을 백발이 성성미타불이라 이렇게 한번 해서 공부하는 권도로 써 보지 않았어요? 창해가 망망적멸궁이구나 하는 걸 갖다 안광이 냉랭적멸궁이로구나. 여러분의 눈이 차가워. 환해. 이것이 적멸궁이란 말이여. 딱 깨놓고 하는 말이 안광이 냉랭적멸궁이니라. 공부하는데 실감이 갈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적멸 중에 있거든요. 적멸. 삼매에 있거든요. 멸진정이고 삼매가 아니면 말이지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 끌고 여기까지 못 와요. 또 따라서 내 설법도 듣지 못 해. 그런 거예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상보리심 이루기 위한 방편 필요

⑩-2보개회향

발심을 하고, 무상보리심을 이룩해 나가는데는 방편(方便)이 필요하다. 방편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방편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행근본방편(行根本方便)이다. 자기가 하는 행동, 그러니까 발심하는 행동의 근본이 되는 방법. 둘째는 능지방편(能止方便). 잘못을, 허물을 그칠 수 있는 방법. 셋째는 발기선근방편(發起善根方便). 선근을 발해 일어나도록 하고, 다시 이를 더하고 키워 생장(生長)케 하는 방법. 넷째는 대원평등방편(大願平等方便)이다. 큰 원이란 평등해야 한다. 이를 평등하게 하는 방법.

행근본방편(行根本方便)은 이를 좀더 자세히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일체의 모든 진리라는 것은 이를 우리가 터득해 볼 때 진리 그것, 그 자체에는 결코 진리다, 무엇이다, 하는 그런 상(相)이란 없다는 것을 안다. 이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때 벌써 망녕된 생각을 여의었을 때다. 그리고 망녕된 생각을, 견해를 벗어난 지경이란 생(生)과 사(死)라든지, 못살겠다든지, 잘 살아 보자는 등 하는 그런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일체의 진리 현상이란 인연에 화합(和合)된 것이다.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과(業果)라고 한다. 우리의 행동이 진실하고, 부실함에 따라 그대로 역력히 나타나며, 진실한 대비심(大悲心)을 일으키어 모든 복덕(福德)을 닦아 나가는 것은 뭇사람들, 대사회(大社會)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섭화(攝化)해 나간다는 것이다. 마음을 맞추어 수순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경에서는 죽는다는 생각에, 이를테면 정지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며, 항상 정진을 거듭하는 것이다. 이는 진리에 수순하고, 방일(放逸)하지 않는 지경이다.

또 둘째의 능지방편(能止方便). 굳힐 때에 이르러서 능히 굳힐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참회와 반성을 하고 그래서 모든 그릇된 짓을 안 하도록 하고, 즉 굳히고 그리고 이미 한 일을 다시는 되풀이 하여 증장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해버린 일, 허물이나 과오는 돌이킬 수는 없지만 지난 일에 대해서는 오로지 반성과 참회가 있을 뿐이지 이를 비호하거나 변명함으로써 자기 합리화를 꾀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진리에 수순함으로써 진리에 늘 순종하고 이를 따름으로써 과오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셋째의 발기선근방편(發起善根方便). 부지런히 삼보(三寶)에 공양하고, 예배드리고, 찬탄하고, 수희하고, 두호하고, 이런 연고로써 자기 스스로의 업장(業障)을 말끔히 씻어 버리고 선근(善根)을 증장(增長)한다. 항상 진리에 수순하고 연고로 하여 우리는 어리석고 얼빠진 치(癡)의 장애(障碍)를 벗어나야 한다.

넷째의 대원평등방편(大願平等方便). 우리가 지금 예경제불(禮敬諸佛)부터 수순중생(隨順衆生)까지에 걸쳐 얘기한 바이지만 발원(發願)을 하고 그대로 다 보현(普賢)의 행을 해 나가야겠다. 다시 말하거니와 미래의 겁(劫) · 중생계(衆生界) · 허공계(虛空界) · 중생업(衆生業)이 다하도록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의 이와 같은 예참(禮懺), 광수공양(廣修供養), 칭

> **행동과 선근을 키우고**
> **허물은 멈추고 큰 원을 세워**
> **일체중생 구제해야**
>
> **수행해서 극락세계의**
> **지경에 이르면 '왕생회향'**
> **즐겁게 노니는 것만이 아니라**
> **정토의 업 보은해야 한다**

찬여래(稱讚如來) · 항순중생(恒順衆生)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건져 나감으로써 하나라도 남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체 중생을 모두 다 건져 주어야겠다는 큰 원력을 세워 구경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평등하고,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쳐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자타(自他)의 구별이 없어지고 거룩한 니르바나가 앞에 있을 뿐이다.

'우리 다 같은 행원(行願)의 동반자들, 대중이 모두 한 곳에 자꾸 모여.'

이 게송(偈頌)에서 동행자(同行者)란, 우리가 더불어 예경제불, 칭찬여래 등의 행원을 하는 모든 대중을 이른다.

'몸과 얼굴과 코, 귀, 입, 말과 마음이 다들 동등하여 이런 사람들 끼리 닦아 나간다.'

신구의업개동등(身口意業皆同等)이라는 것은 눈 · 코 · 귀 같은 몸뚱이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말도 꼿꼿이 잘하며, 정신 상태도 건실한 사람들, 그들이 어느 한 군데도 빠지는 데가 없는 이들 끼리 모여야 된다는 것. 그래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편리하다는 것. 불사(佛事)에는 몸의 건강이 상당히 문제시 된다.

'우리는 보현(普賢)의 수행을 닦아 행복을 죄다 이룩하고, 회향(廻向)하여 바라건데 번뇌 망상에 빠진 중생들로 하여금 빨리 무량(無量)한 밝은 부처님의 지경에 이르러 함께 살고자 한다.'

보현행(普賢行)이란 예경제불, 칭찬여래, 광수공양 등의 수행. 무량광(無量光)은 헤아릴 수 없는 대사회의 광명. 불찰(佛刹)은 밝은 부처의 지경. 그런데 이 회향은 비교종교학(比較宗敎學)으로 볼 때 불교에만 있는 것으로서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는 중요한 특색이 되어 있다. 다른 종교에는 이것이 볼 수 없다던가, 있어도 그렇듯 선명치 않다. 회향에는 앞의 회향삼처(廻向三處) 말고도 두 가지가 있어 왕생회향(往生廻向)과 환상회향(還相廻向)이 있다.

왕생회향은 우리가 수행하여 극락세계(極樂世界)에, 극히 안태하고 낙되는 그런 지경에 애써 이릅시다, 하는 말로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왕생회향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그런 극락세계에 가, 연꽃 위에 앉아 그만 할 일 없이 마냥 즐겁게 노닐기만 하느냐?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한 지경에서 다시 환상회향을 하여 괴롭고, 쓰라리고, 살기 어려운 우리 인간 사회의 고해(苦海)로 다시 나와 고해의 중생들과 더불어 호흡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정토(淨土)의 업(業)을 보은 감사해야 한다. 그러한 생활이 이 지경에는 있어야 한다. 앞에서도 말한 바이지만 회향(廻向) · 발심(發心) · 믿음, 이 삼자(三者)는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으로 얽히어 있다. 믿음은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의 원 토대며 발심과 회향을 한 줄로 꿰뚫고 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대진스님(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3년 10월16일 수요일 – KBS1 TV 05시50분 내고향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효능 방영

한방무현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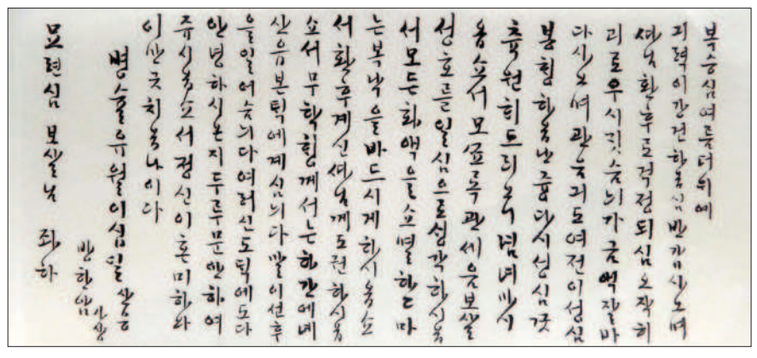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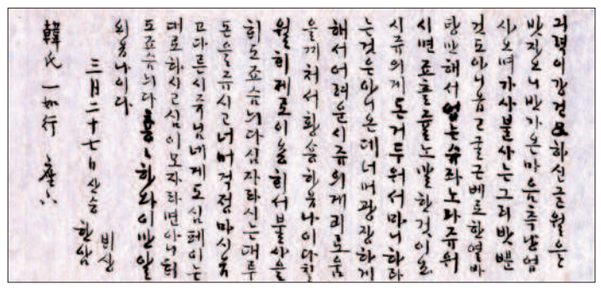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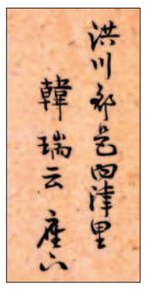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17〉

“관세음보살 성호를 일심으로…”







묘련심 보살에게 답하는 편지〈위〉

복승심. 여름 더위에 기력(氣力)이 강건하시다니 반갑사오며, 따님 환후로 걱정되심이 오죽이 괴로우시겠습니까. 금액 잘 받았사오며, 관음기도 여전히 성심껏 봉행하옵는 중인데, 다시 성심껏 축원해 드리오니 염려 마시옵소서. 모쪼록 관세음보살 성호(聖號)를 일심으로 생각하시옵소서. 모든 화액을 소멸하고 많은 복락을 받으시게 하시옵소서. 환후에 계신 따님께도 권하시옵소서. 무학행께서는 하간(夏間, 여름 동안)에 예산읍 본택(本宅)에 계십니다. 말이 선후를 잊었습니다. 여러 신도님댁에도 다 안녕하시온지? 두루 문안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이 혼미하와 이만 그치옵나이다.

병술(1946년) 6월 20일
산승 방한암 사상(謝上, 올림)

이 편지는 한자가 전혀 없는 순 한글 편지이다. 묘련심 보살에게 답한 편지로 1946년 6월 20일에 보낸 것이다. 내용은 묘련심 보살의 딸이 병으로 누워 있었던 모양이다. 아무쪼록 관세음보살님 성호(聖號)를 일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화액을 소멸하고 많은 복락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환후에 있는 따님에게도 관세음보살을 염(念)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복승심(伏承審)은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다’는 뜻인데, 한글로 그대로 써도 통했던 모양이다. 환후(患候) 역시 그대로 한글로 쓰셨다. 무학행은 어느 보살님 법명이다.

한서운 보살에게 답하는 편지〈아래〉

기력이 강건하신 글월을 받자오니 반가운 마음 측량할 수 없사오며, 가사불사는 그리 바쁜 것도 아니옵고, 굵은 베로 한 열 바탕만 해서 없는 수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좋을 줄로 말한 것이요, 시주에게 돈 거두어서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니온데, 너무 굉장하게 해서 어려운 시주에게 괴로움을 끼쳐서 황송하옵니다. 7월 해제를 이용해서 불사를 해도 좋습니다. 힘자라시는 대로 돈을 주시고 너무 걱정 마시옵고 다른 시주님께도 힘되는대로 하시고, 힘이 모자라면 아니해도 좋습니다. 총총하와 이만 줄이옵니다.

3월 27일
산승 한암 배상

이 편지는 강원도 홍천에 살고 있는 한씨 일여행(韓氏 一如行) 즉 한서운(韓瑞運) 보살에게 보낸 서간이다. 편지를 받는 이가 보살님이므로 순 한글이다. 당시 상원사에서 가사불사를 한 것 같은데, 일여행 보살이 홍천 지역 신도들에게 가사불사에 동참하도록 권유한 것 같다. 한암선사는 가사가 없는 수좌들에게 해 줄려고 한 것 같다. 힘이 되는대로 할 것이요. 어려운데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다. 편지에는 3월 27일 날자만 있고 연도는 없다. 다른 자료에서 고증한 결과 기축(1949년)으로 밝혀졌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망자 위한 시다림 염불 봉사 20년
“지극한 정성 최고의 수행이자 전법”

20년 시다림 봉사, 손기원 연화법사

우리는 흔히 타인으로부터 곤욕을 치르거나 괴로움 등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을 ‘시달림 당한다’고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이는 ‘시달림’은 본래 불가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 염불과 설법을 해주고, 장례의식을 치러 주는 시다림(尸茶林)에서 유래됐다. 죽은 이들을 위해 법문을 하고 장례의식을 집전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시다림 봉사를 20년 넘게 해오고 있는 한 불자가 있다. 바로 불광사 연화부 손기원 법사(63)다. 불광사에서는 시다림 봉사를 연화활동이라 하여 부서를 꾸리고 있다. 이중 손기원 법사는 연화부에 상주하며 스님과 함께, 때론 스님을 대신해 망자를 배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불광사의 유일한 연화법사

손기원 법사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연화부원으로 활동하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연화법사 활동을 시작했다. 사실 손 법사가 맡은 연화법사라는 직책은 불광사에만 있는 특수한 자리다. 1982년 불광법회 법주였던 광덕 스님은 연화부를 만들며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 번째가 바로 연화부원은 몸과 마음가짐을 스님과 똑같이 한다는 것이었다. 광덕 스님은 장례식에 스님이 없다면 재가자도 스님과 같이 요령과 목탁을 들고 망자를 천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화법사’라는 직책을 만들었다.

손기원 법사는 현재 불광사에서 유일한 연화법사로 2005년 부촉 받았다. 그만큼 손 법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연화법사직에 임하고 있다.

“불광사의 모태는 재가자들의 모임인 불광법회입니다. 80년대 초부터 지금 있는 자리 주변 땅을 사서 법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연화부는 그 때인 8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출가하는 스님들이 적어지다 보니 시다림을 비롯한 생활불교 전반을 재가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였어요. 예전에는 30명 가까이 부원이 활동했는데, 지금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위주로 15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낮에는 저와 지도법사 스님이 가고, 밤에는 부원들이 찾아가 염불독경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유족들의 요청이 오면 손기원 법사는 지도 스님과 함께 장례식장을 방문한다. 먼저 스님과 함께 고인이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수계염불을 한다. 둘째 날에는 입관염불로 의식을 집전하며, 마지막 날에는 발인부터 장지까지 동행해 염불로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만약 장례식이 여러 군데에 있다면 스님과 손 법사는 각기 따로 활동한다.

“상이라는 것이 없다가도 동시에 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지도 스님은 다른 곳으로 가시고 제가 집전을 합니다. 법사로 부촉 받았지만 아무래도 재가자가 집전한다는 것이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미안함 때문에 오히려 정성을 다합니다. 또 제 생활도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법사라는 위치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자 마음먹습니다.”

1994년부터 연화부 봉사활동
2005년 법사 부촉 후 집전 시작
연간 방문 상갓집 130곳 넘어
한 상가당 봉사인원 4명 제한

매달 첫째 주 수요일 봉사 점검회의
유족 위로와 함께 장례상담도 겸해
상장례 통한 불교포교 평생 발원

부처님도 모르는 일정, 연간 130곳 방문

그렇기 때문에 손기원 법사의 하루는 부처님도 모를 정도다. 죽음에는 예고가 없기에 그 때의 상황에 따라 하루 일과를 조정해야 한다. 개인 일정을 잡았다가도, 취소하고, 변경하는 것이 태반이다.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항상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전화벨이 울리면 곧장 장례식장으로 떠날 채비를 한다. 장지까지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다른 장례식장으로 나선다. 그렇게 1년 동안 다니는 상가가 130군데에 달한다.

“처음 연화활동을 시작 할 때 다짐했습니다.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 잠깐 잠을 자고 다시 새벽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연화활동을 하고 나서 어디 아파본 적이 없어요. 이게 다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손 법사는 “입관과 화장을 할 때 가족들이 서글피 울 때 마음이 울컥하는데 특히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서 염불할 때는 자신에게도 슬픔이 다가온다”며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염불소리가 끊겨서는 안 되기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삼키고 망자를 배웅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덕 스님 가르침 ‘상가에 민폐끼쳐선 안돼’ 실천

손 법사의 무거운 책임감은 광덕 스님 가르침에서 비롯됐다. 앞서 광덕 스님은 법사를 부촉하며 “절대 상가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손 법사와 연화부원들은 그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다른 곳과 달리 염불봉사도 한 상가 당 4명 내외로 방문한다. 너무 많이 가면 민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에 가서 식사도 하지 않으며 일체의 금전적인 거래도 하지 않는다. 또 매달 첫째 주 수요일 지도법사 무아스님을 중심으로 점검 회의를 열고 개선할 점 등을 공유한다.

장지에 내려갈 때도 손 법사는 직접 자신의 차를 운전한다. “가끔 아주 먼 지방에 장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해남에 내려 간 적이 있습니다. 스님을 모시고 도착하니 유족 분들이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손 법사가 처음부터 연화부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손 법사는 오랫동안 서울은행에서 일한 금융맨이었다. 1980년대부터 불교에 관심이 있어 불광사에 다니게 된 손 법사는 기초교육을 받으며 목탁을 치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고 한다.

“신도교육 시간이었어요. 한 대학생 불자가 의식에서 목탁을 치더라고요. 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초교육을 마치고 나니 연화부 교육 중에 목탁을 치는 것



불광사 대웅전에서 손기원 법사가 부처님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 손 법사는 매일 금강경을 수지독송한다.



불광법회서 연화부원들이 임명장을 받고 봉사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불광사 연화부는 연화활동 외에도 연등축제를 비롯한 불교계 행사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있었어요. 그래서 94년부터 연화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손 법사는 그때부터 삶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연화활동에 두었다. 직장생활을 할 때 저녁이면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다반사였고, 심지어 장지가 멀리 있으면 새벽에 집을 나서 밤늦게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던 시기여서 어려움은 더했다. 유족들 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아 상갓집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럴 때 마다 힘이 된 것은 사명감과 신심이었다.

"옛날에는 전화가와서 가면 쫓아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유족들 중 한 분은 사찰에 다니고, 다른 한 분은 교회에 다니거나 불자가 아닌 경우인 거죠. 어떨 때는 발인 바로 직전에 유족들이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뒤늦게라도 급하게나마 가서 염불을 해드리면 돌아가신 분들이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분들을 생각하면 기꺼이 독경하고 염불하게 됩니다."

주변의 시선, 정성으로 바꿔놔

이런 그의 신심과 열정은 1997년 회사를 그만둔 이후로 더욱 깊어졌다. IMF의 바람이 불어오던 그때 연화활동은 그의 삶에 하나의 힘이 되었다.

"그때 당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십 수 년 다닌 직장에서 나오고 나니 생활에 대한 걱정부터 앞서더군요. 작은 회사로 옮기긴 했지만, 봉급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연화활동을 하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로하고,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건강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됐어요. 반대로 제가 치유 받았다고 할까요."

이런 손 법사의 활동은 매일 상갓집에 간다는 주변의 안 좋은 시선도 바꿔놓았다.

"처가 쪽이 안동의 유교집안입니다. 저에게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조금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매일 같이 상갓집에 다니니 말이죠. 그러다가 96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직접 법복 입고 염불 하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 처가 집안 어른들이 눈여겨 보셨나봐요. '자신도 죽으면 와서 염불해달라' 고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종교를 떠나, 고인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어디에나 같다고 생각해요. 그 것이 계기가 돼 그 지역에 사는 동서도 이제는 절에 다니며 그 지역에서 연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손 법사의 가족들도 모두 사찰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부인은 불광사의 봉은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각종 재일이나, 초파일 때나 과일도 놓고, 허드렛일도 하고 하는 노력봉사입니다. 주말이면 함께 안국동노인복지회관에도 나가요. 아들들이 두 명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사찰에 오다보니 이제는 저보다 더 열심인 불자들이 됐습니다. 염불봉사를 하고부터는 집안이 크게 잘되는 것은 없을지라도 나쁜 일이 없었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은한 향이 피어나듯이, 집안에 큰 탈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활 속 불교신행이 곧 전법

연화법사의 일은 의식뿐만 아니라 장례절차 상담도 함께 한다. 요즘은 장례가 대부분 병원에서 이뤄지고 상조회 문화가 정착돼 상담이 많이 줄었지만 장례를 마치고 사찰에서 재를 지내는 등 여전히 많은 상담이 이뤄진다. 망자의 첫 기일을 어떻게 보낼지, 유품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등이다. 그러다 보면 불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법활동도 이뤄진다.

손 법사는 "사실 이웃종교계에서 이런 활동이 활발하다. 상장례를 통해 종교를 본격적으로 접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손 법사는 이어 "신도회나 지역모임이 구성된 도심에서는 그나마 불교계의 상조가 활발하지만 시골에서는 사찰의 스님들이 일일이 신경 쓸 수 없다보니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며 안타까움을 토했다.



손기원 연화법사는 …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연화부원으로 활동하다, 2005년 연화법사로 부촉받았다. 단순히 염불봉사 외에도 손 법사는 49재 등 장례절차 상담을 비롯해 다양한 업무도 맡고 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손 법사는 봉사를 통해 자신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힘이 난다고 말했다.

손 법사는 하지만 마음을 다하면 무엇이든 이뤄진다고 말했다.

"모든 것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일이란 것은 하나를 해도 정성을 다하면 다른 일도 잘 풀리잖아요. 전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연화활동 등 한 분야에 정성을 쏟으면 그 것이 결국 전체적으로 전법이 활성화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로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 법사는 그렇기 때문에 힘닿는데 까지 연화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그동안 염불한 분들이 수천 명은 되는 듯해요. 언젠가 저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분들이 극락에서 저를 환영해주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제게 염불할 수 있는 힘이 있는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무국적 아이들 보호대책 필요

하루에도 수많은 인연과 만나고 헤어진다. 나에게 특별한 만남을 말하라면 당연히 새 생명과 눈을 맞출 때이다. 그리고 가장 아픈 이별을 떠올려보라면 이 아이들이 국내에서 자라지 못하고 연락없이 어느 새 사라지는 때이다.

6년 전 탄시르는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엄마 친구의 품에 안겨 인도네시아로 출국해야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 부부가 공장에서 월급을 제 때 받지 못한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동비자를 연장 받지 못해 미등록 노동자가 되었다. 사실 이들은 불법노동자가 아니다.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란 의미가 포함된 불법이란 용어보다 서류가 갖춰지질 않아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자를 연장받지 못한 미등록 노동자로 불러도 될 것이다.



그림 · 박구원

탄시르 엄마, 스텔라는 같은 나라 출신인 아빠와 사랑을 나누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아이가 생겼다. 기왕이면 아이를 나아 기르기로 생각하고 출산을 결심했지만 출산을 앞두고 함께 기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구미 외국인쉼터로 왔다. 나는 탄시르가 태어난 1주일 뒤에 첫 인사를 했다. 강보에 싸인 작고 부드러운 생명을 바라보며 쉼터 사람들 모두 조금은 흥분된 기분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다.

"슬라맛야! 슬라맛야!"

축복을 받는 동시에 걱정이 생겼다. 엄마와 아빠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까닭에 탄시르는 태어나자마자 무국적 아동이 된다. 우리나라 국적법에 의하면 부 또는 모 중에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가 한국 국적이 되기 때문에 탄시르는 인도네시아에 등록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받아주질 않는 미등록 아동이 되는 것이다.

스텔라와 인도네시아 남편은 한국으로 일하러 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약 2천만원의 돈을 지불하였단다. 물론 몇 년만 고생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거란 생각으로 한국에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 갚기 전에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형편이 아니었다.

세상이 모두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것처럼 탄시르 엄마와 아빠는 아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하지만 서울까지 올라갈 시간도 경비도 여의치 않았다. 이렇듯 이주 노동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무국적 아동이 되어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성장한 뒤에도 일반 아동 처럼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원칙대로라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게서 태어난 탄시르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출국신고를 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되지만 탄시르 아이의 출생을 신고한다는 건 다른 한편 출국을 의미했다.

"스님, 우리 아기 인도네시아 가야해요. 아기 키우기 어려워요."

애절한 표정으로 이야기 하는 스텔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웠다. 아이들은 그 존재 하나 만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열매로 왔다. 그 이유만으로도 축복받아 마땅하지만 부모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이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이 축복이 아닌 또 다른 비난의 이유가 되었다.

이 아이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오늘도 센터에 들고나는 이주 노동자들을 보니 절반 이상이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이다. 결혼과 출산, 양육, 의료 등 제도적 마련이 이뤄지면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건강한 청년들이다. 아이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인재로 키워야 한다. 복지의 혜택 속에서 잘 자란 이 아이들이 우리 국력의 힘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적법을 개정해 무국적 아이들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둔사 주지)

우리 시대 왜 염불이 필요한가?
왜 염불 수행을 해야만 하는가?

선화 상인 염불 법문
서방 극락이 그대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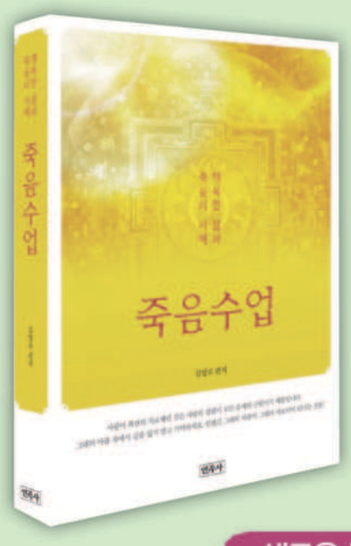
■ 정원규 · 이정희 옮김 | 변형 신국판 288쪽 | 12,800원

근·현대 중국불교의 가장 뛰어난 스승의 한 분으로 추앙 받는 선화(宣化) 상인의 대표적인 염불 법문집. 경전과 다양한 실화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염불 법문의 정수를 콕 집어 설한 책.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염불이 삶과 죽음의 고통바다 건너는 이치임을 깨닫게 한다. 참되게 염불하면 불보살이 감응하여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피어남을 일깨워 준다.

"그대도 염불하고, 나도 염불하고, 그대와 나 무엇 때문에 염불하는가? 생사를 마치고자, 사바를 극락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니 그대도 없고 나도 없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물을 조용히 관하여 모든 것을 깨달으니, 번뇌는 끊어지고 무명은 깨지며, 거대한 사랑의 강물 삼계(三界)를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 머리말 중에서

행복한 삶과 죽음의 지혜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생이 먼저 올 수도 있음을 아는 눈 밝은 분들…
수행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
가족과 친지, 이웃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분들의
뼈저린 아픔을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는 필독서…

죽음수업

■ 김영로 편저 | 변형 신국판 348쪽 | 15,000원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감동과 치유의 책

"필자도 2010년에 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때때로 눈물이 나지만 대신에 저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제게 큰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귀한 스승님으로 가슴 속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중생들을 소중한 저의 가족,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의 죽음은 저의 아들의 죽음으로, 또한 저 자신의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 머리말 중에서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美 소노마 카운티 티베트 불교 단지 조성

카자데로 지역에 '레트나 링 명상 센터' 14일 개원


캘리포니아 북단의 소노마 카운티의 카자데로 지역에 개원한 레트나 링 명상 센터(Ratna Ling Retreat Center) 모습. 티베트를 상징하는 색인 노란색의 금속 패널로 마감된 인쇄동의 모습이 이채롭다.


레트나 링 명상 센터의 수행동 내부 모습. 수행 참가자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친환경재인 삼나무 자재로 내부를 마감했다.

40만㎡ 부지, 명상공간 · 농장 마련
센터 운영에 지역 주민 참여 유도
티베트 불교의 저변 넓힐 전망

미국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에 티베트 불교문화 복합단지가 들어섰다.

〈The Press Democrat〉 지는 7월 19일(현지시간) "소노마 카운티 최고의 자연 경관으로 꼽히는 카자데로(Cazadero) 언덕에 '세계 평화와 자비기도' 를 모토로 티베트 불교문화 복합단지인 '레트나 링 명상 센터(Ratna Ling Retreat Center)' 가 개원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레트나 링 명상 센터는 해안가 언덕 40만 5천㎡ 부지에 티베트를 상징하는 노란색의 금속 패널로 마감된 인쇄 · 주거동, 삼나무로 마감된 수행동, 도서관 등의 구성으로 세워졌다"고 설명한 〈The Press Democrat〉지는 "향후 티베트 불교수행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티베트 불교 관련 경전이나 교양서 등을 펴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티베트 불교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노마 카운티에서 매주 법회를 봉행할 곳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밝힌 브루스 존슨(Bruce Johnson) 법사는 "레트나 링 명상 센터는 4년간 캘리포니아 티베트 불교공동체의 서원과 노력이 한 데 모인 결과"라며 "캘리포니아에서 티베트 불교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루스 존슨 법사는 지난 2009년부터 카자데로 언덕에 티베트 명상 센터를 개원하기 위해 '개원추진위원회' 를 결성하는 한편 기금 조성, 부지 매입, 주민 설득 등 개원에 따른 사전 작업에서 산파역을 톡톡히 해냈다.

"레트나 링 명상 센터를 개원하기까지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한 브루스 존슨 법사는 "소노마 카운티의 청정 지역에 특정 종교의 문화복합단지를 세운다고 했을 때, 지역 타종교 주민의 반대, 지역 환경 단체의 반대, 카자데로 지역에 리조트 사업을 기획하고 있었던 지역 중견 기업의 반대 등에 직면해야 했다"고 말했다.

〈The Press Democrat〉 지에 따르면, 소노마 카운티 자치위원회는 브루스 존슨 법사의 센터 개원 계획서를 받고서 무엇보다 '자연 훼손' 을 걱정했다. 청정 지역에 대규모 복합단지가 들어서면 자칫 화재 등의 인재로 훼손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상공업보다는 농업에 종사했던 지역 주민들은 종교 시설보다는 상업 시설을 세워 지역 경제 발전에 단초가 되길 희망했다.

"소노마 카운티 자치 위원과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설득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브루스 존슨 법사는 "자치 위원은 센터 건축에 방염재나 친환경재 등을 사용한 설계도면으로 설득했고, 지역 주민은 상업 리조트보다는 힐링을 추구하는 종교 복합단지가 들어서는 게 지역 발전에 이롭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The Press Democrat〉는 "레트나 링 개원추진위원회는 센터 건축에 참여할 인력과 건자재 일체를 소노마 카운티에서 충당하는 등 지역과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레트나 링 명상 센터는 개원과 동시에 종교를 떠나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목했다.

또한 〈The Press Democrat〉는 브루스 존슨 법사의 말을 인용, "레트나 링 명상 센터는 채식을 기본 식단으로 삼고 있다"고 전하고 "식자재 대부분 명상 센터 인근에 조성된 농장에서 재배될 것"이라며 "농장은 지역 주민에게 임대하고 생산물 전량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방침이어서, 이 역시 지역 주민과 유대를 더욱 단단히 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루스 존슨 법사는 "레트나 링 명상 센터는 개종보다는 힐링에 더 큰 목표를 두고 운영하기로 내부적인 공의를 모았다"며 "따라서 종교를 떠나 누구나 찾아와,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가꾸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종욱 편집위원**

명상, 힐스버러 카운티 일깨우다

파르바와티야 카담파의 명상 프로그램에 주목

美 플로리다 힐스버러(Hillsborough)와 피넬러스(Pinellas) 카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티베트 불교명상 관련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다잡고 있다고 〈Tampa Bay Times〉 지가 보도했다.

두 카운티의 주민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파르바와티야 카담파(Parbawatiya Kadampa) 불교센터의 '명상 프로그램' 이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단계를 밟아가는 게 이 프로그램의 주요 과정"이라고 설명한 켈상 cyrdis(Kelsang Chokyan) 스님은 "6주 동안 주 3회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연민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라 위트만(Sarah Whitman) 씨는 "몇 년 전부터 십대 자녀를 키우며 '양육 스트레스' 가 쌓이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부터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잦아들기 시작했고, 자녀를 대할 때도 여유를 찾고 스스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리사 바론(Lisa Baron) 씨는 "간호사란 아픈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데, 매 순간 그렇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이곳에서 배운 '긍정하는 방법' 이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파르바와티야 카담파(Parbawatiya Kadampa) 불교센터의 '명상 프로그램' 에는 위트만, 바론 씨 외에도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Tampa Bay Times〉 지는 "이제 불교는 두 카운티 시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파르바와티야 카담파의 수행 프로그램의 운영 횟수가 늘어날수록 두 카운티의 시민들은 '치유의 참 맛' 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국 플로리다 힐스버러와 피넬러스 카눈티에서는 티베트 불교명상 프로그램이 자주 열린다.

중국서 티베트인 승려 또 자살

현지 "공안 당국 소통 통제해 소식 늦게 전해져"

중국 내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역에서 분리 ·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티베트인 승려가 또 중국 당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월 17일(현지 시간) "간쑤(甘肅)성 간난(甘南) 티베트자치주 샤허(夏河)현에 있는 티베트 불교 사원 라부렁(拉卜楞)사에서 승려 타브케(24)가 지난 9일 당국의 종교 탄압을 비난하며 목을 매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타브케의 동료 승려들은 그가 자살에 앞서 사원 내 승려 수 제한, 경전 강의 내용 간섭, 달라이 라마의 사진 걸기 금지 등 당국이 종교적 자유를 제한한다면서 이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자살할 계획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공안 당국이 외부와의 소통을 통제해 타브케의 자살 소식이 늦게 전해졌다고 말했다.

중국 내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역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중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하며 분신한 티베트인은 지금까지 131명에 달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한편, RFA는 "중국 당국은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티베트인 승려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성을 강요하는 등 통제 강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공산당에 대한 충성 △법률 준수 △항위 시위 참가 및 분신 금지 △애국 교육 참가 △외부와의 연락 금지 등 11개 항의 규제가 담긴 문건을 배포하고 승려들과 주민들에게 서명을 하거나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나은 기자**

"이제 가면을 벗고 '나' 와 대면하세요"

불교명상가 타라 브랙, 워싱턴 D.C.서 강연


불교명상가 타라 브랙

세계 정치 1번지 워싱턴 D.C.에서 한 명상 지도자의 '비판적 조언' 이 이곳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지가 보도했다.

명상 지도자는 바로 타라 브랙(Tara Brach) 박사이다. 임상 심리학자인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불교 명상가로 꼽히고 있으며, '워싱턴 통찰명상 공동체' 를 운영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지에 따르면, 워싱턴 D.C. 시민들이 주목한 그의 '비판적 조언' 은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멈추고, 그 순간에 갈등하는 자신을 관찰해 진짜 '나' 와 대면하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마침내 타인과 세상을 껴안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지는 "우리는 자신의 취약점을 보호하기 위해 '가면 쓰기' 라는 전략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감정과 경험, 생각 등을 속이고 있다"는 브랙 박사의 말을 인용하고, "자신의 '본성' 을 깨달음으로써 지속적인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의 말에 워싱턴 D.C.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랙 박사는 〈워싱턴 포스트〉 지와의 인터뷰에서 "아프리카 한 부족은 부족민 개개인의 질병을 부족 전체의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부족 전체가 치료에 참여한다"에 주목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나, 상처와 절망 속에 울고 있는 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나, 그 모든 나를 스스로 보듬고 돌보는 능동적인 지혜를 사회적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노력은 신뢰와 소통"이라고 전제한 브랙 박사는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쓴 '가면' 을 벗고, 그 이면의 자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양의 심리학과 동양의 불교명상을 결합한 브랙 박사의 '심리치유 프로그램' 은 워싱턴 D.C. 곳곳에서 운용되며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큰 공감과 위로를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 행적

일붕 서경보 세계법왕은 한국, 미국, 일본,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방글라데쉬, 러시아, 몽고, 프랑스 등 149개국 5천여 종단 및 단체에서 법왕(法王)으로 추대되었으며 존자(尊者) 추대도 한국, 인도, 스리랑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120여개국 634종단 및 단체에서 추대되었다. 尊者란 부처님 수제자에게 주는 불교 최고 영예인 성호(聖號)인데 부처님 10대 제자와 16나한 5백나한 등이 있다.

일붕 서경보 세계법왕은 문학박사, 철학박사, 종교학박사 등 126개 박사학위를 한국을 비롯 미국, 영국 등 세계유명 대학에서 받으셨고 불교사상교양전집을 비롯

1천 40여권의 저서와 8백여개의 평화통일기원 일붕시비를 세운 것은 현재까지 전세계 불교계의 승려로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최고기록으로 기네스북에 5관왕을 차지했다.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초대법왕 서경보 존자님 탄신 100주년 기념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세계불교법왕청 회장단 진산 대법회

일시 : 불기 2558(2014)년 7월 24일 목요일 / 장소 : 효창공원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는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 탄신 100주년을 봉축하며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와 세계불교법왕청 회장단의 진산 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본행사와 오찬의 순서로 성대히 봉행되었습니다.















法語
세계불교법왕 의륜

佛法有傳 一平生 (불법유전 일평생)
한평생 불법을 전하고 전하며
傳法一鵬 滿衆生 (전법일붕 만중생)
만 중생에 일붕이 있었다네
聖人本來 大衆心 (성인본래 대중심)
중생 마음이 본래 성인의 마음이라
諸法滿有 覺虛妄 (제법만유 각허망)
만 가지 모든 법이 허망한 것을 알아
一切衆生 願解脫 (일체중생 원해탈)
모든 중생 해탈의 도 얻으리

今日佛前 滿衆生 (금일불전 만중생)
오늘 이 자리에 대중들이 모여
佛法有傳 一心願 (불법유전 일심원)
부처님 가르침이 유전되기를 한마음으로 원하나니
時委大衆 願正覺 (시위대중 원정각)
이 자리 모든 대중이 원하는바 바른 법 이뤄
投盜貪慾 一時滅 (투도탐욕 일시멸)
탐욕과 다툼으로부터 멀어지고
無常正覺 必成就 (무상정각 필성취)
부처님의 바른 법 반듯이 성취하여 지리다



설립 동기 및 연혁 보고
한국불교 대불종 종정
승왕 만주 대종사

서경보 존자께서는 1980년대 초부터 세계법왕청 설립을 추진해 오셨고, 1992년 6월 16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1차 법왕청총회에서 법왕청 공동대표인 스리랑카의 찬다난다 승왕을 비롯한 18개국 법왕청 분청 대표와 세계 30 개국 불교지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법왕대관식을 갖고 집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26일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에 세계불교법왕청 등록을 하였으나, 사회단체 활동 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초대법왕 서경보 존자님의 뜻을 이어 받아 의륜 큰스님께서 2011년 7월 6일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장으로 부터 사단법인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 3월 2일에는 서울시장으로 부터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설립 허가를 받아 우리불교계를 대표하는 화합 종단 단체로서의 기틀을 다져 놓았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이천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계불교법왕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회사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
세계불교법왕청 한국법왕 대원

찬란한 여름햇살이 우리 불교인들의 주변과 이웃에 환하게 느껴지는 계절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법회에 참석하여 주신 원로대덕 큰 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산승에게 총제 및 한국 법왕이라는 소임을 맡겨주신 세계불교법왕 및 세계불교최고지도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붕 서경보 존자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총연합회 총재 및 한국법왕에 취임하게 된 것은 산승에게는 큰 영광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교평화헌장을 수호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법왕청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서경보 존자님은 열반하시고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그 삶은 자취만은 그대로 남아, 우리문도들에게 교훈과 그리움의 길을 열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 큰 뜻을 이어 받으신 의륜 큰스님께서 세계불교법왕청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어 주셨기에 이제 산승은 한국법왕으로서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불교는 부처님의 진리를 행하지 못하면서 아상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부처님의 참 뜻과 불법을 제대로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문도와 불자들이 얼마만큼 마음을 모아 동참을 하여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불법홍포는 어느 한두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세계불교법왕과 승왕 그리고 사부대중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도의 화합과 사부대중의 수행 심을 기르는 연수교육 및 수련회 등을 알차게 기획하여 문도와 불자들이 참 마음, 참 정신으로 함께 수행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유대도 강화하여 한국법왕청의 위상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물론 산승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부처님 일이라는 텃밭에 각자의 작은 씨앗을 하나씩 심어줄 때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부대중 모두가 하고자하는 원력이 성취되시기를 부처님 전에 발원 드립니다.



봉행사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
세계불교법왕청 대표승왕 청호

존경하는 각 종단의 종정 큰스님과 원로대덕 큰스님! 그리고 사부대중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스승님이신 초대 세계법왕 일붕 존자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세계불교법왕청, 그리고 사단법인 초대법왕 일붕문도중앙회 회장단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법석입니다. 떠남은 새로운 만남을 위한 시작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떠남이 없었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고 한곳에 정체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나날의 생활은 수없는 경쟁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의 각 종단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이 되어야 함에도 각종단의 이해에 따라 혼란과 대립으로 각자의 활로와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밝은 지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조금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사부대중 모두가 반야심경을 봉독하였습니다만, 우리는 반야심경 속에서 인생을 바로 사는 지혜와 슬기로운 생활을 터득하게만 된다면, 그 무한한 자유의 삶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가르쳐 주는 것이 현대불교가 교화실천에 가야할 사명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소승 혼자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종단의 대덕 큰스님과 문도스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와 세계불교법왕청이 정법을 수호하고, 보살도를 실천하여 우리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견인차로 재조명 받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법석을 빛내주신 각 종단 종정예하 큰스님과 고승대덕 스님 및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취임사
초대법왕 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용담

존경하는 전국의 일붕 문도 원로대덕 큰스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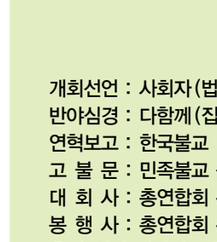
오늘 서 경보 존자님의 탄생 100주년 기념 대법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소납이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제17대 회장직을 맡게 되어 본인으로서는 큰 영광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일붕 존자님께서는 현대 불교사에서 한국불교는 물론 세계불교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신 성인중의 성인으로서 추앙받고 있습니다. 오늘 뜻있는 대법회를 통하여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세상을 더욱 평화롭기를 바라는 여법한 법석이 되기를 기원 드리며, 이제 어려움은 사라지고 공덕만 두루 하도록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아울러 일붕 존자의 법맥을 이어 받은 각 종단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하나 된 단일교단으로 불교중흥과 세계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발원 드립니다. 저 역시 사단법인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회장으로서 이회를 창회하신 의륜 이사장님의 뜻을 잘 받들어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한국불교의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승은 우리 문도들이 대덕 큰스님들의 정점으로 이 땅의 불교를 불교답게 일으켜 세워 각 종단 내에 화합정신이 실천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에 더욱 매진하여 중생을 위하여 무었을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를 돌이켜보면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인도하여줄 수 있는 법륜을 같이 밀고 나아가고자하는 간절한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각 종단의 종정 예하큰스님들과 원로 대덕스님들이 함께한 이 장엄한 법회를 보면서 반목과 다툼이 없는 삶의 향기가 불자들의 가슴속에 피어오르기를 기원합니다.



격려사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인왕

찬란한 여름 햇빛 아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빛이 나는 눈부신 계절입니다. 화창한 날에는 마음도 맑고, 만나는 도반과도 더욱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초대법왕일붕문도회가 주관하는 진산 대법회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대원 대종사의 총연합회 총재, 용담 대종사의 일붕문도회 회장, 청호 대종사의 총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큰스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그 이념의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자유와 평화를 지향하는 민주사회로 발전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는 많은 인연 속에서도 아파하고, 고통 받으며, 외로워하는 사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불교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불교혁신운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대가 어두워 질 때 마다 우리는 자비 실천의 등불을 밝게 비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문도들은 다 함께 어려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자타불이(自他不二)사상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자타불이는 너와 내가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운명체이며 공동체라는 혼연일체의 사상입니다.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및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의 회장단이 외형이 아닌 내실에 가치를 두어 좀 더 밝은 사회,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문화 단체로 변모하여 중생의 빛이 되고, 희망과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며 격려의 말씀에 가름합니다.



고불문
민족불교 광덕종 종정 /
승왕 조연

모든 세계 중생들의 스승이시며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온 누리에 두루 두루 비추어 주시는 부처님이시여!

오늘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산하 187개 종단 대표와 종도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초대법왕 서 경보 존자 탄신 100주년 기념 및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세계불교법왕 일붕문도중앙회 회장단 진산 대법회를 개최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고불하오니 자비로써 섭수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이제 앞선 회장단이 이룩해 놓은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이 구성되는 회장단과 집행부가 "범불교 연합으로 불교중흥"의 원력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각 종단 대표와 여기 모이신 사부대중 모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 해결에 우리 불교계가 앞장서 그 해답을 제시하도록 하여야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우리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신행이 바뀌면 그것은 결국 온 국민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바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진산 대법회의 인연으로 물러나지 않는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전법과 포교에 정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발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를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 식 순 -

개회선언 : 사회자(법천스님) / 삼귀의례 : 다함께(합창단)
반야심경 : 다함께(집전스님) / 내빈소개 : 사회자(법천스님)
연혁보고 : 한국불교 대불종 종정 / 승왕 만주 대종사
고 불 문 : 민족불교 광덕종 종정 / 승왕 조연 대종사
대 회 사 : 총연합회 총재 / 한국법왕 대원 대종사
봉 행 사 : 총연합회 총재 / 대표승왕 청호 대종사
총재, 회장 대관식 : 추대패, 육환장 및 꽃다발 봉정
청 법 가 : 다함께(합창단)
법왕법어 : 세계불교법왕 의륜 대승정
취 임 사 : (사)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용담 대종사
격 려 사 : (재)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인왕 대종사
격 려 사 : 대한불교일붕선교종(전) 종정 연종 대종사
격 려 사 :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상임이사 / 승왕 대응 대종사
축 사 : (사) 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종정 / 승왕 청파 대종사
발 원 문 : 자명사 주지 지명스님
축 가 : 합창단
사홍서원 : 다함께(합창단)
폐회선언 : 사회자
기념촬영 : 고승 대덕스님과 함께
산 회 가 : 합창단

세계불교 최고지도자 대회

2013년 12월 27일
여의도 63
컨벤션그랜드볼룸









문화 단신

깨달음의 禪詩, 노래로 피어나다

제주 불광사 우란분절 맞아 한여름 밤의 특별 콘서트



옛 선사들의 선시를 번역해 한국의 아름다운 오음계 가락에 맞춰 불음으로 전하는 '제4회 달빛 고운절 솔바람 파도소리 불광사 한여름 밤의 특별콘서트' 가 8월 10일 제주 불광사(주지 지범)에서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를 개최하는 지범 스님〈사진〉은 "지난 2008년 우란분절을 맞아 부처님의 '효(孝)사상' 을 널리 알리고자 '부모은중경' 이란 주제로 행사를 열었다"며 "올해는 옛 선사들이 깨달음인 선시를 노래로 엮은 만큼 대보름달빛 아래 동참한 사부대중의 불심도 두둥실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범 스님은 "선사들이 깨달음의 법열을 노래하는 선시는 한 편을 듣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의 번뇌를 벗는 위로가 될 것"이라며 "나옹선사의 '청산은 나를 보고', 태고보우 스님의 '경세가' 등은 세상 사람들의 오욕락에 허덕이는 삶을 애틋한 심정으로 읊는 노래"라고 이번 선시 음악회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콘서트는 지난 1992년 '지범 스님이 불음 가수' 로 활동하게 된 사연을 담은 TV프로그램 방영을 시작으로 김순엽 남도명창의 '쑥대머리' 를, 가야금 연주자 김지혜 씨의 '달빛 밝은 이 밤에' 등을 연주, 여름밤의 운치를 더한다. 이어 시각장애인이지만 불교적 가사로 불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홍관수 씨의 '너도 부처 나도 부처', 가수 김민수 씨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소프라노 오능희 씨가 노래를 선사한다.

정혜숙 기자

문화공간 숨도, 선풍기 영화제 개최

7월 29일~8월 2일



선풍기 영화제 포스터

한여름 에어컨이 아닌 선풍기를 틀어놓고 영화를 보면서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행사가 마련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 문화공간 숨도가 7월 29일~8월 2일 숨도 7층에서 '2014 선풍기영화제-다큐 페이크 다큐' 를 연다.

4회째를 맞는 선풍기 영화제는 이름 그대로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영화를 보며 여름을 나자는 친환경적 의미를 담고 있다. 숨도는 "다큐멘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보여주는 영화다. 다큐가 지닌 경계의 매력을 선풍기 영화제에서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물가게를 지나야 출구, 코야니스카시(7월 29일)△북극의 나누크, 더 코브(7월 30일) △나의 설계자 그리즐리 맨(7월 31일) △지로의 꿈, 개를 문 사나이(8월 1일) △땡큐, 마스터 킴, 포토그래픽 메모리(8월 2일) 등으로 구성되며 상영시간은 오후3시, 5시 두 차례다.

또한 8월 2일 오후 3시에는 소주제인 '다큐 페이크 다큐' 의 성격을 반영한 단편영화 '아이콘을 찾아서' 와 '이상한 나라의 금기들' 이 특별상영된다.

텀블러 혹은 개인컵으로 지참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으며 신청은 soomdo@naver.com으로 하면 된다. 1인당 영화 4편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동반 1인까지 가능하다. (02)717-3535

정혜숙 기자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뮤지엄스테이'

강원 원주시 치악산 명주사의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제10회 '뮤지엄스테이' 를 개최한다. 산사와 박물관에서 하루를 머물면서 자연과 문화 속에서 명상을 체험하는 '뮤지엄스테이' 는 8월 2일~3일, 8월 9일~10일 각각 열린다.

프로그램으로는 목판화 T-셔츠 만들기, 목판화 만들기, 전통 책 만들기, 명상체험, 사찰음식 체험은 물론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뮤지엄 라이프' 도 진행된다. (033)761-7885

정혜숙 기자

8月 전국은 연화장 세계로 빠져든다

전국 곳곳 연꽃 행사 풍성

수려함과 고결한 풍요로움의 연꽃은 세속을 초월한 깨달은 경지, 완성과 원만의 경지를 연상하게 한다. 그래서 육법공양에서 올리는 꽃, 향, 초, 탕, 과일, 차 중 꽃 공양이 으뜸인데 그 중에서도 연꽃 공양을 제일로 친다. 그만큼 연꽃은 불교를 대표하는 꽃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연꽃이 만발하는 여름이면 연꽃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축제가 펼쳐진다. 가족, 친구 혹은 연인들과 손 잡고 연꽃을 감상하며 축제도 즐기며 즐거운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보자.

2014 무안연꽃축제는 '백련과 함께, 백년의 사랑' 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8월 14일~17일 회산백련지와 무안 체험마을 일대에서 열리는 축제는 품바, 군민합창대회, '레이저 대북' 퍼포먼스 등의 공연은 물론 제8회 전국 연(蓮)요리 경연대회도 열린다. 8월 15일 '人 · 蓮, 귀한 사람을 위한 음식' 을 주제로 한 '전국 연 요리 경연대회' 는 무안백련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개발과 대중화를 위한 취지로 개최된다.

태안연꽃축제는 태안군 남면의 청산수목원에서 8월 24일까지 열린다. 3만 평 규모의 연못에는 200여 종의 연꽃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수생식물 100여 종이, 수목 및 야생화 300여 종이 갖가지 모양과 색깔을 뽐낸다. 정원은 예연원, 만의길, 고흐브리지, 연꽃문화관 등 테마별로 구성돼 있다. 특히, 불교를 상징하는 '만(卍)' 자 모양의 길은 이곳을 다녀간 모든 이에게 길상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연꽃사진 전시, 소원지 걸기, 비누 만들기, 연잎차 시음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무안연꽃축제-연요리 대회 눈길

태안연꽃행사-연꽃 200여종 장관

봉원사 연꽃문화제-산사음악회


전국에는 지금 연꽃 축제가 한창이다. 사진은 지난해 신촌 봉원사 서울연꽃 문화축제, 올해는 8월 17일~ 23일신촌 봉원사 경내에서 열린다.

봉원사 서울연꽃 문화축제는 도심 한복판에서 연꽃 축제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8월 17일~23일 신촌 봉원사 경내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연꽃을 배경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와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한지공예, 도자기 만들기 체험, 민화전시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8월 23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에는 가수 오승근, 국악인 남상일, 국립국악원단원, 국립무용단원 등이 출연해 흥겨움을 더할 예정이다.

전북김제 청운사 하소백련축제는 8월 17일 까지 하소백련지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마련한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행사는 '사랑, 이별, 고통, 정토(세월호에 묻다)' 를 주제로 하소백련의 향기가 세상의 상처받은 이들에게 큰 위안과 치유를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는 행복을 전해주고자 하는 뜻에서 마련되었다. 부채에 연꽃 그리기, 백련을 이용한 염색체험, 백련차 시음회, 백련 관련 음식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체험할 수 있다.

경기 양평군 세미원에서는 7월 한달간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사랑의 연못에서는 김명희 작가의 테라코타전 '우리들의 이야기' 등이 전시된다. 또한 7월 31일까지 세미원 야외 체험장에서는 천연염색손수건만들기, 전각체험, 부채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열린다. 세미원은 연꽃이 만개하는 8월 15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관람 시간을 연장해 관람객들이 연꽃의 절정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남도 사찰 옛 모습 빛바랜 흑백 필름으로 조우

2014년 국립나주박물관 특별전시…8월 17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은 2014년도 테마전시로 '유리건판 사진으로 보는 남도 사찰의 옛 모습' 을 개최한다.

8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일제강점기인 20세기 초반에 촬영된 전라남도 사찰건축과 문화재를 사진 40여 점으로 만날 수 있다.

호남지역에 불교가 전래되고, 사찰이 건립된 시기는 승려 마라난타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에 불교를 전래한 이후이다. 영광의 불갑사는 마라난타가 최초로 세웠다고 전해지지만, 본격적인 불교의 융성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다.

통일신라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 불교를 이끌었던 5교 9산 중 선종의 가지산문 '장흥 보림사' , 동리산문 '곡성 태안사' 등이 있다. 이 사찰들은 전라남도의 불교진흥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이 시기의 석조문화재들은 지금도 남아 있다.

고려 중기 이후에는 조계종이 순천 송광사를 근본도장으로 크게 일어나고, 천태종이 강진 백련사를 중심으로 백련결사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라남도는 불교 중흥의 중심이 되었다. 조선시대를 거치며 불교가 위축되었으나, 이 지역의 불교는 산지사찰(山地寺刹)로 그 명맥을 유지하였고 지금도 조계종의 25교구 본사 중 5개가 전라남도에 자리하고 있다.

송광사 · 화엄사 · 선암사 등

100여년 전 남도 사찰 자료 전시

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 중에는 1910년~1936년에 걸쳐 전라남도 지역에서 조사하였던 사찰과 문화재들의 자료가 남아 있다. 송광사, 화엄사, 선암사, 백양사, 대흥사와 같은 주요사찰의 건축물과 석조문화재는 물론, 도갑사, 불갑사, 쌍봉사, 보림사, 운주사와 같은 작은 사찰의 문화재도 꼼꼼하게 사진 찍고 기록했다. 또한 월남산성, 중흥산성 폐사지, 나주 읍성부군의 불교문화재 등 당시 폐사되어 석조물만 남아있는 곳까지 세세하게 조사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2014년도 테마전시로 '유리건판 사진으로 보는 남도 사찰의 옛 모습' 을 개최한다. 사진은 순천 송광사 우화각의 옛 모습.

초가집과 어우러진 고즈넉한 사찰과, 사찰에 기대어 살아가던 사람들의 질박한 삶의 모습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이번 전시를 통해 지금은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은 문화재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061)330-7821

정혜숙 기자

※ 경전사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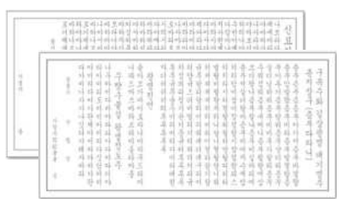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220㎜×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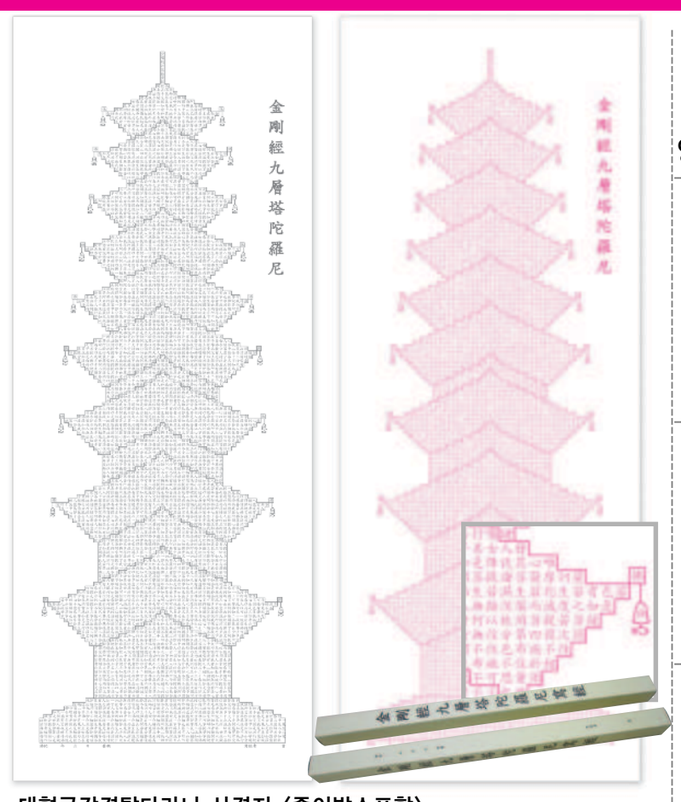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 대형 금강경 탑다라니 사경지 ※



대형금강경탑다라니 사경지 〈종이박스포함〉
정 가 5,000원 할인가 @4,000원(50장 이상) • 색상 : 먹색/적색 中택1
• 포장 : 종이박스 • 종이사이즈 : 68㎝×195㎝ • 전통재래한지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영가옷 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옷 B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영가옷 D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D형-여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160 (60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50원 / @250원 (1000개이상)


※크기
• 15.5×19㎝
한지·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1000벌이상)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문화人

“영감의 바다인 불교서 예술과 삶의 방향성 찾았죠”

파사무용단 황미숙 예술감독



파사무용단 황미숙 단장은 불교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개인적으로 큰 시련 겪었지만
자비도량 참법 수행으로 극복
〈반야심경〉 창작으로 구상 중
10월31일~11월2일 ‘붓다…’ 재공연

“불법에 대해 알면 알수록 배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불교 관련 서적도 읽고 수행도 하면서 제 삶 속에 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껴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한한 창작의 세계가 불교 안에 있음을 압니다. 불교라는 영감의 바다 속에서 제 창작의 모티브를 찾고 불교를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작품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목련경〉을 소재로 한 ‘목련, 아홉 번째 계단으로’ 로 주목받았던 파사무용단 황미숙 감독(54)은 지난해 부처님의 생애를 춤으로 표현한 ‘붓다, 일곱 걸음의 꽃’ 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했다.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제작되어 지난해 5월 대중들에게 선보인 이 공연은 인간 붓다의 일생을 춤으로 표현해 불교계의 주목을 받았다. 안무의 영감을 얻기 위해 108배 100일 기도를 할만큼 공을 들인 공연이었고 지난해 봉축을 기념해 대규모 공연으로 제작되어 화제가 됐다.

이 공연으로 황 감독은 많은 것을 잃었고 또다시 얻었다고. “사실 후원업체에서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모든 것들이 무산됐어요. 공연장은 이미 대관을 했고 많은 일들이 진행된 상태에서 공연을 포기할 수가 없죠. 결국 사비로 공연을 올려야 했고 이때 금전적으로 많은 손실을 봤죠.”

하지만 그녀는 이 과정 동안 불교 수행을 통해 오히려 많은 위안을 얻었고 또다른 행복을 느꼈다. “당시 많은 스님들이 공연을 보러 와서 조언도 해주셨어요. 특히, 대구에 계시는 혜선 스님께서는 힘들어 하는 저에게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라고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림선원에서 자비도량 참법으로 매일 7시간씩 기도를 했죠. 그때 알았어요. 지금의 어려움은 제 지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또 역경을 통해 제가 더 단단해질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또한 황 감독은 이 기회를 통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었다. “사실 제가 스물다섯 이후로 한번도 자가용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공연 이후 차까지 팔아야 했어요. 요즘은 걸어다니는데 그게 또 너무 행복해요. 두 발로 걷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더 큰 일 하라고 고통이 오는구나 생각하면 지난 일에 대해 원망할 틈이 없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 황 감독은 학생들에게 철학적 측면의 불교와 수행으로서의 불교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준다고 한다.

“불교의 회향은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회향의 의미를 많이 전해주고 있어요. 108배도 권하죠. 호흡에 맞추어 하는 108배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 수행에도 좋지만 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느끼고 배운 것을 열심히 나누어 주는 것도 회향이니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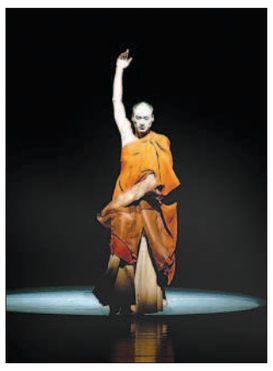
이런 그녀에게 최근 기쁜 소식이 생겼다. 바로 ‘붓다, 일곱 걸음의 꽃’ 이 한국공연예술센터의 공동기획작으로 선정되어 10월 31일~11월 2일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공연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큰 시련을 겪었지만 올해 좋은 공연으로 선정되어 한국공연예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공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지금 한참 공연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의 공연을 정리하고 보완해 더 좋은 모습의 공연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황 감독은 반야심경을 주제로 한 공연을 만들어보는 것이 목표다. “〈반야심경〉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를 공연으로 만들려면 어느 부분을 극대화 시킬 것인가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술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한편, 황미숙 예술감독은 이화여자대학교 및 동대학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경희대 공연예술학과 무용학 박사를 취득했다. (사)한국무용협회 서울무용제 대상(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예술상(2006년),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도라 예술상(2008), 공로상 환경부 장관상(2009), (사)한국현대무용협회 Dance Sprit상(2012)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지난해 부처님의 생애를 춤으로 표현한 ‘붓다, 일곱 걸음의 꽃’ 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해 주목을 받았다.

노승은 웃으며 꽃피는 2월을 기약하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㉚ 용문사 ㊦





용문산 한시공원에 새워진 용문팔경시비

전쟁에 얼룩진 산사의 애처로움

이항복은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 때의 문인이다. 7년에 걸친 전쟁 뒤에 용문사는 상당히 피폐했다. 시의 도입부에는 그러한 정황이 잘 드러나고 있다. 오래된 절에 스님은 몇 명 되지 않고 축대가 허물어져 늙은 나무가 더 애처롭게 보인 것이다.

이어서 요란한 물소리와 고요한 말소리를 대비시켜 시적 긴장을 팽창 시키고, 깊은 산의 적막에 빠져 있는 북쪽과 서쪽의 풍치를 보이며 더욱 애잔한 감상을 드러낸다. 마침내 시인은 구슬픈 노래 소리에 시 한수를 지을 생각마저 놓치고 만다. 구슬픈 노래는 새소리일 수도 있고 사람의 울음일 수도 있겠다.

이항복이 들린 용문사 풍경은 장엄한 도량이 아니라 전쟁에 피폐된 서글픈 풍경으로 객을 맞았다. 그러니 객인들 유장한 시를 쓸 맛이 났겠는가? 그저 애잔하고 처량한 심사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수밖에.

심추임욕탈(深秋林欲脫)
일모조투서(日暮鳥投棲)
시흥호무진(詩興浩無盡)
풍광자입제(風光自入題)
수성계굴곡(水成溪屈曲)
산작지저고(山作地底高)
촉마용문로(促馬龍門路)
여소월재서(如梳月在西)

가을이 깊어가니 숲은 낙엽 지는데
해는 저물어 산새는 둥지로 돌아가네.
시의 흥취는 넓어 다함이 없으며
풍경이 아름다워 시제가 절로 떠오르네.
물은 구불구불 흘러 시내를 이루며
땅은 높고 낮아 산을 이루었네.
말을 몰아 용문산 길에 들어서니
얼개 빗 같은 반달은 서쪽에 남아 있네.

항양(恒楊) 박원겸(朴元謙 1491~?)의 ‘용문사에 노닐다(遊龍門寺)’ 라는 시다. 박원겸은 김안국과 교유가 깊었던 문객으로 양평군수를 지낸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 시는 양평군수 시절에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절은 가을이다. 용문산 풍경이 아름다워 시상이 절로 솟아나는 시인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할까? 앞에 본 이항복의 시가 시상을 떠올릴 겨를이 없음을 토로한 것과 대조적이다. 100여년 뒤에 일어날 임진왜란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 눈앞의 풍경에 마음이 훤하게 열리는 게 당연할 것이다.

그 풍경을 배경으로 떠오르는 반달은 무엇을 상징할까? 여기서 보이는 반달은 서쪽에 있는 낮달일 것이다. 그리움일 수도 있고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튼 가을 날 산수화 같은 용문사 길을 한 마리 말을 달려 찾아드는 선비의 시심은 명징하기만 하다.

가을 풍경 속에 비친 인간만사

조선 후기 구한말 시대를 살다간 이중하(李重夏 1846~1917)도 같은 제목 ‘용문사에 노닐다(遊龍門寺)’ 라는 시를 남겼는데 배경이 되는 계절도 가을이다.

백절영회조도통(百折靈廻鳥道通)
범궁은약적림중(梵宮隱約積林中)
사위참험봉전석(四圍巉險峯全石)
일망홍명수진풍(一望紅明樹盡楓)
종핍산문류옥대(縱乏山門留玉帶)
차장명자대사롱(且將名字待紗籠)
갱요노석기중도(更要老釋期重到)
소등산화이월홍(笑登山花二月紅)

구불구불 험한 산길 이어진 좁은 길
절은 깊은 숲속에 숨겨져 있네.
사면은가파르고산봉우리는온통바위뿐
바라보니 붉은 단풍 숲 다함이 없네.
절은 옥 장식을 한 벼슬아치가
머물기는 부족하지만
장차 이름이 알려지기를 기다리네.
노승은 또 오라고 재차 기약을 청하며
웃으면서 꽃 피는 내년 2월을 기약하네.

시의 전반부는 기존의 시편들과 다름없이 높은 산 깊은 골에 위치한 용문사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절이라는 공간과 선비의 신분적 관계는 ‘선비가 머무르기는 부족’ 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벼슬하는 선비가 오래 머물 수 없음에 잠시 다녀가는 것이지만, 절은 어느 때고 유서 깊은 역사를 드러낼 것임을 말한다.

그렇게 다녀가는 선비에게 절의 노승이 하는 행동이 시적 재미를 높이고 있다. 노승은 가을에 다녀가는 선비에게 꾸밈없는 웃음을 보이며 내년 꽃피는 3월에는 더 풍경이 좋을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듯하다. 말이 필요 없는 노승과 선비의 작별 모습이 그려진다.

용문산 한시비 공원에는 겸재(謙齋) 양창석(梁昌錫 1909~1983)선생이 지은 ‘용문팔경시(龍門八景詩)’ 가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다. 용문산의 여덟 가지 절경 가운데 첫 번째가 ‘용문사 새벽종소리(龍門寺曉鐘)’ 다.

북사장명제불종(北寺長鳴祭佛鐘)
성래만상서광농(醒來萬像曙光濃)
소성점점풍회수(疎星点点風廻樹)
숙무침침월재봉(宿霧沈沈月在峰)

북쪽 절 예불 올리는 종소리 길게 울리어
잠깨어 보니 만 가지 형상 새벽빛 짙구나.
별빛은 여기저기 보이고 바람은
나무숲을 감돌고
새벽안개 자욱한데 산봉우리에 달만
걸쳐 있네.

아직 천지가 밝아 오기 전, 만 생명을 깨우는 종소리는 길게 울리는 시간 시인은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풍경 속의 새 날을 맞이하고 있다. 아무래도 절은 무한 감상의 공간이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소승은 다라니 매일 330독 주력 기도중 지난 6월 15일 관세음보살님이 화현하시어 사문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많은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 더욱 빛나게 하라는 계시와 좌측 사진과 같은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소승은 기도 정진중 경명 사경 다라니임을 알아차려 한자한자 정성드려 사경한 다라니를 액자에 표구하여 법당에 모시고 기도 정진하였습니다. 그러던중 6월 27일 다시 관세음보살님이 화현하시어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어째서 사진과 같은 모습의 다라니를 보여주셨을까 답을 찾으려 기도정진 하였지만 그답을 찾지 못하고 대의정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제 그 답을 찾으러 대 신심으로 하루 500독 1,000일 50만독 주력기도 와 참회 기도에 들어갑니다.

많은 불자님 다라니를 각 가정에 모시고 기도에 동참하시어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가피 받으시어 소원성취 하세요.

기도에 동참하시는 불자님은 액자 표구한 다라니를 모셔드리고, 전 가족의 소원성취를 위해 매일 정성을 다하여 기도 발원을 올려드립니다.

입재일은 8월 17일이며
1년 기도비는 한가족 30만원입니다.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424번지 지하철 1호선 송현역 3번출구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도량 수정사 혜명 합장
전화 053)621-6367 / 010-4028-3622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66권의 저서 출간!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6 ~ 7/2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성철 스님의 화두공부 하는 법	성철	해인사출판부
3	깨달음	법륜	정토
4	붓다순례	자현	불광출판사
5	나를 찾아가는 명상 여행	정여	맑은소리맑은나라
6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7	명상선물	현빈	이층버스
8	법구경(영문, 한문, 빠알리어 수록)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9	미타행자의 편지	본연	담앤북스
10	임종,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인광,홍일	운주사



〈선문염송〉 53개 공안으로 시작하는 화두공부

화두공부의 문을 열다

-〈선문염송〉에서 가려 뽑은 화두 53선-

이수경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5천원



화두는 불교의 수행법 가운데 하나인 참선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공부방법이다. 언어 이전의 자리, 우리의 마음자리 내지 본래면목을 말한다. 이 화두를 보는 것을 간화선, 화두공부라고 한다. 책은 새로운 접근으로 화두의 본질과 공부를 지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한국불교는 고려 때부터 간화선을 주요 수행법으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수행의 주요 전통으로 삼고 있으며, 간화선을 최상승의 수행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책이 있다. 고려 진각혜심선사가 지은 〈선문염송(禪門拈頌)〉이다. 〈선문염송〉은 대표적인 공안집으로 혜심스님이 각운 스님에게 전할 때 총 1125칙이었고, 그 뒤 437칙이 추가되어 현재는 1463칙이 전한다.

〈화두공부의 문을 열다〉는 40여 년간 간화선 수행을 해온 저가가 〈선문염송〉에서 53가지의 이야기를 가려 뽑아, 기존의 화두공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화두의 참된 의미와 화두공부의 올바른 방법을 자신의 체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것으로도 화두공부 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기존 화두공부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해 저자는 크게 다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먼저 많은 수행자가 자신의 근기와는 상관없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화두들, 예컨대 '무자' 나 '뜰 앞의 잣나무', '마삼근' 등의 화두를 틀에 박힌 듯이 무작정 참구하다가 스스로 지쳐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낸다는 것이다.

둘째는 선가에서는 화두를 들 때 대의단, 즉 크게 의심을 내서 끝내는 그 화두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화두타파라는 용어 자체는 화두를 쳐서 깨뜨린다는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발상이 수많은 학인들을 잘못 이끌어 화두 미해결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두타파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화두, 즉 공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빚어진 엄청난 오해의 소산이며,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화두공부를 해야 할까. 책은 먼저 화두를 의심하는 대의단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의단이란 해결책이 전무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화두가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인간정신의 밀봉 현상이다. 인간정신의 탈출구가 사라지면 그 정신세계 전체를 가리켜 대의단이라 호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의단은 바로 인간 내면에 도사린 잠재의식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화두는 의지적으로 붙잡거나 깨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밀봉' 현상, 즉 잠재의식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는 정신 작업인 것이다. 이렇게 문제해결도 안되고 의지할 것도 없는 존재 자체의 밀봉 상태에서 공부를 지어 나가는 것이 화두공부의 요령인 것이다. 따라서 화두는 타파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세워야 하는 것이다. 화두는 성립시킬 때에야 비로소 완전하게 해결되어 화두 자체가 떨어져 나간다

"각자 근기에 맞는 화두 택해야"
화두는 잠재의식 자각하는 정신 작업
타파가 아니라 완전히 놓는 것

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두를 세운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화두를 그야말로 타파, 즉 쳐서 깨뜨리겠다는, 무너뜨리고야 말겠다는 꿈은 그런 의욕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실현되는 법은 없다. 세상 모든 것이 환화와 같으며 화두 역시 환화와 같다. 그러니 환화와 같은 화두는 처음부터 타파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지극한 이치, 즉 지리(至理)에서 바라보면 무너뜨릴 것도 없고, 무너뜨린다고 무너지는 것도 없다. 그러므로 완전히 놓아버려야 된다고 말한다. 완전히 놓아버리는 까닭에 '다 이루는 것' 이며, 완전히 놓아버리는 까닭에 비로소 수수께끼 같은 공안에서 풀려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공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한다.

불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화두공부를 통해 자신의 본래면목을 찾았으니, 화두공부는 분명 부처님의 근본정신에 부합되는 탁월한 수행법임은 분명하다. 책은 화두에 관심이 있거나, 그 동안 화두공부를 지속해왔지만 뚜렷한 소득을 얻지 못한 이들이 화두공부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백초월 스님, 그도 독립운동가였다

백초월

김광식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5천원



2009년 서울 진관사에서 백초월(1876~1944) 스님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와 '독립신문', '자유신종보', '신대한신문' 등 독립운동 자료가 발견됐다. 백초월 스님은 대중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용성 스님, 한용운 스님과 함께 한국 독립운동사에 큰 공적을 세운 스님이다. 책은 일제강점기에서 임시정부와 독립군을 위해 군자금을 모금하고 항일 비밀 결사 일심교(一心敎)를 조직하는 등 기지와 열정으로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벌인 백초월 스님의 일대기다.

20대 후반에 강백을 지낸 초월 스님은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불교계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했다. 3.1운동으로 백용성 스님과 한용운 스님 등 불교계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자 백초월 스님은 1919년 경성중앙학림 내에 한국민단본부라는 비밀 단체를 조직하고 항일 운동을 전개했다. 전국 불교도 독립운동본부 격인 이 단체를 이끌면서 그는 지하 신문인 '혁신공보' 를 제작해 배포하고 민단본부의 부원을 통해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제에 저항했다. 항일 승려들을 임시정부 및 독립 부대에 보내기도 했다. 군자금 모집과 1920년 일본의회 독립청원 활동을 이유로 일제에 체포된 백초월 스님은 모진 고문을 당했으나 상한 몸으로 포교당에서 일심 사상을 강연했다. 저자는 이때 백초월 스님이 이 사상을 독립운동의 이론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외면적인 포교활동을 통해 자신의 항일 이념 및 독립운동을 실천했던 것이다. 이처럼 백초월 스님은 고문으로 몸이 부서지고 일제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기지를 발휘해 독립운동을 도모했다. 저자는 "백초월 스님의 일심교 및 일심회라는 항일 비밀 결사체는 일제하에 불교계 독립운동사에서 유일한 것이며, 나아가 국내 독립운동사에서도 특별하고 희귀한 사례인 것이 분명하다"며 백초월 스님의 혼과 기백을 찾아 역사 속에서 그를 복권하자고 말한다. 또한 그는 수집한 증언과 증거들을 토대로 백초월 스님의 항일 활동이 한 개인이 아닌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전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조명해야 한다고 학계에 호소하고 있다.

스님은 고문으로 옥사하는 그날까지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걸었던 선지식이었다. 1939년, 백초월 스님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군용 열차에 '대한독립만세' 라고 낙서하는 사건을 주도하여 다시 일본 군대에 체포됐다. 이후 그는 옥살이를 하다가 1944년 6월 29일, 해방을 1년 앞두고 청주 교도소에서 끝내 순국했다. 저자는 백초월 스님이 일제에 맞서 그토록 열정적으로 싸웠던 근원을 그의 불교사상에서 찾고 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중생구제, 즉 하화중생의 차원에서 일제의 국권 강탈 및 민중 탄압에 맞서 싸웠다는 것이다. 중생 구제를 위해서는 지엽적인 계율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며, 불교와 승려가 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던 초월의 사상은 오늘날 불교의 현실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저자는 "일제하 독립운동사에서 옥중 순국한 독립운동가로 단재 신채호, 독립군 지도자 김동삼, 그리고 백초월 스님 3인을 손꼽는다"고 하면서 그중 유독 백초월 스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점을 아쉽다고 했다. 책의 출간으로 백초월 스님을 비롯해 세월 속에 망각되어 가는 순국선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그들의 위대한 행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책에는 조영암 스님의 '구국당 백초월 대선사 옥사 순국록', 고은의 추모시 '백초월 스님' 등 부록과 백초월 스님의 일대기를 요약한 연보를 함께 실었다. 묵죽도 등 그가 남긴 유묵 사진을 제공해 품격 있는 예술가 · 서예가로서의 백초월 스님도 만나볼 수 있다.

박재완 기자

유식(唯識)으로 읽는 〈반야심경〉

법상유식학으로 풀이한 반야심경

송찬우 편역 | 비움과소통 펴냄 | 1만4천8백원



〈반야심경〉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설 가운데 마음의 이치를 밝히는 첩경이자 반야사상의 핵심을 담은 경전이다. 책은 유식(唯識)을 바탕으로 반야심경과 불교교리를 통설한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대승불교사상을 교리적으로 체계있게 이해하고 접근하려면 반드시 법상유식학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유식학이 난해하여 학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독자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저자는 유식학을 밑바탕으로 하는 불교교리에 대한 책자를 서술하고자 고심해오던 중 개론적 성격의 설명을 〈반야심경〉을 통해 독자들에게 제시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짧지만 다양한 설명을 담은 저술을 펴내기로 결심했다. 통별(通別)의 측면에 입각하여 1부에서 우선 불교의 근본교의부터 통론적으로 저술하고, 2부에서 경문의 순서에 따라 짧은 해설을 가미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러한 구성 체계 아래 유식학 관련 자료인 〈성유식론〉,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신유식론〉 등 많은 여타의 전적에서 담고 있는 요의(要義)를 염두에 두어 유식사상이 근본교의와 맞물려 돌아가게 구성함으로써 독자들이 〈반야심경〉뿐만 아니라 유식학의 근본까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반야심경〉에 담긴 사상과 자리매김이 이처럼 중대한 까닭에 예로부터 이 경전에 주소(注疏)를 가하여 연구하고 해석한 저서들이 시대별로 수없이 출현하여 유통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자들 중 거의 대부분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저자는 "그러나 난해한 본 경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석서들은 너무나 전문적이다. 설명을 지나치게 생략하거나 앞뒤 없이 비약적인 추리로 성급히 결론을 끌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불자들이 이 해석서를 이해하기가 〈반야심경〉 본문을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어렵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고 했다. 이러한 현실이 〈반야심경〉의 대의가 세상에 환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불교의 근본 핵심 사상인 반야바라밀다가 완전한 모습으로 생활화되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불자들이 난해한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데 대해일적(大海日適)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출간의 취지이다.

〈반야심경〉의 강령대의는 짧고 간결하며 분명하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은 부처님 49년 장광설법인 일대시교 가운데 21년 동안 설한 광대하고 심오한 6백부 〈대반야경〉의 핵심요지를 빠짐없이 원만구족하게 간직하고 있는 골수이다.

책에서는 불교의 근본교의인 세간 · 출세간의 모든 인과차별상과 성(性) · 상(相)이 둘이 아닌 중도실상진공(中道實相眞空)으로서의 열반을 더불어 비추고 있다. 이를 근본자체로 의지해서 일으키는 3관수행문과 현설반야와 밀담반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상과 교리체계를 낱낱이 함축하고 있다. 실로 이는 교리적으로나 사상에 있어서도 위대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마음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구도(求道)소설



자유인 해월의 구도(求道)와 깨달음 이야기
소설 군야 석암 지음 | 150*210 | 248쪽 | 11,000원

〈소설 군야〉는 픽션과 논픽션으로 구성되어있다. 한 수행자가 깨달음의 마지막 한 고개를 넘기 위해 지구에 내려와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며 수행해나가고, 마침내 자성관음(自性觀音)을 발현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원력을 가진 수행자상을 그려나간 것이다. 저자는 석암스님(양구 관음선원장).

대인大人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德을 합合하며
일월日月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合한다

동양학의 근본 경전 주역 바로 읽기
주역 개설 최정준 지음 | 신국판 | 232쪽 | 12,800원



한국 주역학의 대가인 대산(大山) 김석진(金碩鎭) 선생의 제자인 철산(哲山) 최정준 박사(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겸임교수)는 기업인 • 공무원 주역교육의 최고 인기강사다. 주역의 형성과 구성체계, 팔괘(八卦)의 성립과 이해, 주역을 읽는 방법, 세계변화의 원리와 점(占), 주역과 천문역법의 관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나무아미타불’과 하나되는 것이 염불

서방극락이 그대의 집

선화상인 지음 | 정원규 · 이정희 옮김
민족사 펴냄 | 1만 2800원



근 · 현대 중국불교의 가장 뛰어난 스승인 허운 대사에게 인가 받고 중국 위앙종의 9대 조사, 현신 관세음보살로 추앙받는 선화 상인의 대표적인 염불 법문집이다.

선화 상인은 일찍이 불법의 불모지인 미국에 들어가 서양인을 대상으로 불법을 널리 전했다. 불교를 전혀 모르는 서양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경전의 내용과 다양한 실화 및 구체적 비유를 통해 아주 쉽게 설해 주고 있다. 염불 법문의 깊고 심오한 뜻을 알기 쉬운 말로 거르고 또 걸러서 불법에 무지한 이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염불 법문의 정수를 손에 쥐어주듯 자상하게 설해 놓았기에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가령 불보살님께서 빛을 발해 그대에게 가피를 내리는 것 또한 그대 자신이 부처님이나 혹은 보살님을 염해서 얻은 공덕의 감응인 것입니다. 다시한번 전화거는 것에 비유하자면 만일 그대 스스로 전화걸지 않는다면 누가 그대의 전화를 받을까요? 염불도 그와 같은 도리이며, 이렇게 불력에 의지해 정토에 날 수 있으리라고 바라는 마음은 사실상 욕심이며, 바로 의존심일 뿐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속에서 늘 접하는 전화에 비유한 것처럼 선화 상인의 법문은 알아듣기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쉬우면서도 정곡을 찌른다.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든가, 염불수행은 나이든 노인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없애게 한다. 전화를 걸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받지 못하듯이 염불가피는 불보살을 염해서 얻은 공덕의 감응이므로 염불은 자력과 타력이 어우러진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요, 의존심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즉 타력만으로는 결코 가피를 얻을 수 없음을 일깨워 준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법문한다. “〈대집경(大集經)〉에 이르기를 말법시대에는 수억 만명이 수행하나 한 사람도 도를 얻기 힘들어 오직 염불에 의해서만 생사를 건널 수 있습니다. 천만 명이 수행하되,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수행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염불 한 가지 법문만이 그대를 피안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는 말법시대로서 염불은 그야말로 일반인의 근기와 상응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봐도 세월호 참사 같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고 같은 재앙과 위기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말법시대인 것이다. 그래서 저자의 염불법문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다가온다. 저자는 〈대집경〉의 내용을 인용해 오늘날과 같은 혼탁한 시대에는 염불이 사람들에게 가장 적당한 수행법이요, 생사를 건널 수 있는 수행법임을 역설한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왜 염불을 하는지, 염불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염불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해 놓아 책장을 넘기면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 진다.

“염불은 ‘나무아미타불’과 나 자신이 나뉘지 않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외에 어떠한 ‘나’도 있지 않고, ‘나’ 외에 어떠한 ‘나무아미타불’도 없을 때까지 염하여 내가 염하는 ‘나무아미타불’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간 일체의 모든 것은 정해진 것 없이 모두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업장이 매우 깊어 원래 서방 정토에는 왕생할 자격이 없으나, 단지 우리가 만일 진심으로 성심껏 염불한다면 우리도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곡진한 염불법문을 통해 왜 이 시대에 염불수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견해도 갖게 해준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지막 제 4장 ‘천도의 진실한 의의’ 편이다. 선화 상인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왜 천도를 해야 하는가, 천도방법, 천도의 경전적 근거, 천도의 실제적인 감응 사례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상하게 천도 법문을 해준다. 이 법문은 염불의 수승한 공덕으로 천도가 된다는 것, 염불의 중요성을 무척 강조하고 있기에 염불법문이라 할 수 있다. 천도법문이 이 책의 한 장을 차지하게 된 까닭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선화상인의 대표적 염불 법문집
“염불 말법시대에 가장 필요한 수행”
수행 이유, 방법 등 상세히 소개

■저자 선화 상인은?

법명은 안자, 자는 도륜이다. 상인은 1918년 중국 길림성 쌍성현서 태어났다. 19세 때 삼연사 상지대사에게 출가해 사미계를 받았다. 하루 한 끼만 먹고 저녁에는 눕지 않고 〈화엄경〉에 절하고 정토참법(淨土懺法)으로 참회했다. 1956년 선가 5종 법맥을 이은 허운 선사(虛雲 禪師, 1840~1959)에 이어 제46대이자 중국 위앙종 제9대의 조사가 되고 ‘선화(宣化)’라는 호를 받았다. 197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키아에 만불성성을 건립한 후 미국 등 세계 각지에 약 20여 개의 도량을 건립했다. 상인은 일생 계율을 엄정하게 지키고 참선과 염불예참, 경전연구, 계율수지 등을 특히 강조했다.

나를 망치는 것은 탐욕과 이기심… 佛母 형제의 비극으로 승화

제비원이야기

주호민,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공저
애니북스 펴냄 | 1만원



전국에 산재한 천년 고찰에는 모두 제각각의 창건 설화가 숨어있다. 민담 형태로 전승돼 온 사찰 설화들은 대부분 부처님을 예경해 절을 지어내는 그 시절 돈독한 불심(佛心)을 느끼게 해준다.

경북 안동의 제비원도 그렇다. 안동 시내에서 영주 방면의 한티재를 넘어가면 국도변에 거대한 미륵 마애불을 만나게 된다. 이 마애불이 보물 제115호 안동 이천동 석불상, 일명 ‘제비원 미륵불상’이다. 뒤편에는 아담한 규모의 연미사가 자리잡고 있다.

제비원에는 연이 처녀와 미륵불을 조각한 형제를 다룬 각각의 설화가 전해진다. 전통 문화에 담긴 이야기를 새롭게 ‘스토리텔링’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만화가 주호민이 두 가지 설화를 엮어내 〈제비원 이야기〉로 재탄생시켰다.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 기획으로 이뤄진 이 작품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 웹툰에 먼저 공개됐고, 완결까지 모두 누적 페이지뷰 750만 건을 기록하는 등 네티즌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주호민의 〈제비원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추천사에서 “이 작품이 안동의 전설과 민담 그리고 불교문화가 버무려진 흥미로운 소재로 불교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호민의 손에서 새롭게 각색된 〈제비원 이야기〉는 불모(佛母) 비운, 비몽 형제가 최고가 되기 위한 경쟁을 벌이면서 벌어지는 인간적 고뇌와 번뇌를 불교적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특히 동생 비몽이 스스로의 탐욕과 형 비운과의 경쟁심, 연이 처녀에 대한 사랑의 실패를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는 대목은 작품의 백미다. 이 같은 대립구도는 일본 만화의 거장 데스카 오사무의 〈불새 봉황편〉(가오우 이야기)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작품의 마지막, 불가의 귀의한 연이 처녀는 자신이 구한 제비를 다시 만나 묻는다. 너희는 정말 ‘시시비비(是是非非)’라고 우느냐고. 그리고 독백한다.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알아? 난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새롭게 각색된 제비원 설화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은 없고, 자신의 욕망으로 나눠진 편견만이 있음’을 설파한다. 단순하지만 깊은 깨달음을 〈제비원 이야기〉는 전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종파를 창시한 의미 탐구

시대를 이끈 창종자

김천 지음 | 참글세상 펴냄 | 1만 3800원



한국 창종자들에 대해 쓴 이 책은 종교적 관점이나 해석보다 역사 속에서 인간의 자각과 실천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을까를 탐구했다. 대부분은 역사 자료와 종교 경전을 토대로 전문학자, 종교인과 직접 인터뷰해 기술했다.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불교의 진각종을 비롯해 천도교, 원불교 등은 현재에도 교세를 확장하며 종파로서의 위상을 충실히 다지고 있다. 사회가 병들수록 종교의 반사회적 행태들은 깊어간다. 더욱이 합법적 사업의 탈을 쓰고 신자들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물품 강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로 볼 수 없다.

어떤 믿음이 종교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의식과 교의를 지닌 집단이어야 한다. 민족의 정서를 관통하는 무속의 세계관이 종교가 못된 것은 그만큼 강력한 집단의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이래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서 개별적인 종교 체험이 사회화되고 거대한 종교집단이 나오게 됐으며, 자생의 종교도 생겨났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여러 종교 창시자와 그 가르침들을 소개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진각종을 만든 회당 손규상 종조에 대해 설명했다.

회당 손규상은 “불교는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속의 깨달음으로 진리에 다가서는 종교”라며 진각종을 창종했다. 농림촌에서는 주로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기도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다. 신비한 체험으로 병이 낫자 손규상은 이곳에 머물며 49일간 기도를 마쳤다. 이후에 아예 마당에 움막을 지어 ‘옴 마니 반메 훔’을 외우는 100일간의 정진끝에 마침내 손규상은 대각의 종교 체험을 이뤄 진각종을 개창했다.

김주일 기자

깨달음과 과학 소통 가능할까?

양자 물리학과 깨달음의 세계

양철곤 지음 | 생각나눔 펴냄 | 1만7천원



깨달음의 세계(종교)와 과학은 양자물리학이 등장하기 이전인 19세기 말까지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인 소립자를 알고 난 뒤로는 종교와 과학이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자연을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과학 없는 종교는 맹신이요,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깨달음의 세계와 과학을 하나로 소통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화두였으나, 속 시원하게 논리적으로 융합시키지는 못했다.

이 책에서는 깨달음의 핵심인 중도의 의미를 소립자의 특징인 불확정성 원리, 상보성 원리(이중성), 양자중첩, 확률파를 하나로 통하게 함으로써 깨달음의 세계를 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깨달음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원리(진리)를 확실하게 체득해야 하며, 이때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지혜(통찰력)를 얻음으로써 삶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원리는 모든 것과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이를 깨달으면서 생긴 통찰력으로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즉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무학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말이다.

특히, 이 책은 전통적인 방편을 응용한 현실적 수행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 속에서 깨달음의 지름길로 가는 길을 안내한다. 동시에 깨달음의 핵심 원리를 통한 삶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공식도 함께 제시한다.

김주일 기자

종교와 신화의 차이점 분석

블리스, 내 인생의 신화를 찾아서

조지프 캠벨 지음 | 노혜숙 옮김
아니마 펴냄/1만2천원



잔혹한 현실을 밑바닥까지 긍정하게 하고 인생의 모험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영감을 일깨우며 온전한 인격의 완성으로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동서고금의 모든 신화가 공통적으로 하는 기능이다. 오래된 신화나 전설, 문학, 제도화된 종교 ,무엇이든 당신을 지켜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일깨워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화다. 인간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신화의 기능은 아직 유효하다. 신화의 영웅들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험을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는다.

신화는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심상이고 상상력의 산물로 우리가 지닌 잠재력에 이르려는 인간정신의 욕구를 반영해서 무의식으로 생각하고 지향하는 바를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준다. 조지프 캠벨은 전 세계의 종교와 신화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깊은 통찰력과 동서양의 사상과 문화를 대중들이 알기 쉽고 흥미를 갖게 만드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한 세계관의 변화와 기존 도덕관과의 충돌로 정신적 혼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인류의 삶을 반영하는 동서양의 신화에서 시대를 아우르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며 미래에 인류와 개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캠벨은 더 상징의 보편성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정신이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해 가게 되고 인류뿐 아니라 모든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마지막 장인 청중과의 대화에서는 영웅 신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듯한 여성들이 추구할 수 있는 의미에 대한 캠벨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

김주일 기자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불교에서 서구 탈근대의 길을 찾다

불교로 읽는 古典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홍근
한국간화선연구소
책임연구원

몇 권의 획기적인 소설작품으로 현대 서구사상사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가 불교를 깊이 공부하고 〈보르헤스의 불교강의(1998, 여시아문)〉라는 책을 썼으며,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풀어서 자신의 작품의 모티브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보르헤스, 20세기의 창조자

보르헤스는 흔히 '20세기의 창조자', '탈근대의 선구자' 등으로 불린다. 그의 글은 최근까지 프랑스 철학을 리드한 자크 데리다, 미셸 푸코, 모리스 블랑쇼 등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미국의 포스트모더니즘 작가인 존 바스, 토마스 핀천, 존 가드너와 이탈리아의 움베르토 에코, 이탈로 칼비노 등의 작품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움베르토 에코는 "두 명의 대가가 인류에게 장차 1.000년을 먹고살 양식을 남기고 갔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새천년의 이미지는 바로 월드 와이드 웹(WWW)이다. 조이스는 그것을 언어로 구축했고, 보르헤스는 아이디어로 디자인하였다. 갈수록 세계는 이 속으로 빨려들고, 사물은 시각 이미지로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보르헤스의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 마치 경이로운 현관에 서 있는 것 같았으나 둘러보니 집이 없었다"고 말했다. 미셸 푸코는 "보르헤스의 글은 지금까지 간직해온 내 사고의 전 지평을 산산이 부숴버렸다"고 말했고, 존 바스는 "보르헤스의 글은 문학의 진정한 출구에 붙인 주석서이며, 고갈된 모더니즘 문학의 탈출구"라고 말했다.

16세기 르네상스와 18세기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서구는 근대화를 추진했고, 세계의 중심에 '이성'이라는 가치를 올려놓았다. 이성은 과학기술을 중시하였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질의 풍요를 가져왔다. 또한 이성은 역사의 진보라는 낙관론적 역사주의에 대한 믿음을 배양했다. 그 결과 자본주의, 혁명사상, 과학주의 등이 근대화란 미명하에 전 세계를 휩쓸게 되었다.

하지만 이성은 태생적으로 분별 취사선택을 지향하기에, 필연적으로 이분법적 세계관을 낳는다. 이런 관점은 또한 필연적으로 모든 세계구성원 사이에 갈등구조를 배가시킨다.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던 '이성에 대한 믿음'은 생태파괴 등 근대화의 모순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점차 인류를 배반하였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 오류의 근원에는, 서구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던 '이성'에 대한 낙관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통렬히 지적한 사람이 보르헤스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이성에 대한 순진한 신뢰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점을 역력히 보여주었다.

보르헤스는 서구 지성들에게 인식의 전환,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모색하도록 촉구하였다. 그 핵심은 이분법적 갈등구조를 넘어서 불이법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의 글은 많은 지성인들에게 매우 세련된 방법으로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그 비전속에는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술문명의 도래에 대한 전망도 들어있다. 그런데, 그런 비전을 낳은 모태가 상당부분 불교에 대한 사색에서 비롯되었다면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스마트폰은 '마음'을 카피한 것이다.

그는 29살 때, 무아를 체험하였다. 시간이 끊어지고 세상에 대한 초월적인 관찰자가 되는 생생한 체험이 그를 서구 지성을 열광시킨 독특한 작가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불교를 통해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보르헤스의 문학세계와 불교

보르헤스는 1899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다. 보르헤스는 스스로를 '야생의 독자'라고 말했다. 스위스에서 코스모폴리탄이 되어 보낸 학창시절 이후, 그의 독서는 고전은 물론 수많은 이단까지 넘나들었다.

그는 형이상학적 오지(奧地) 탐험가였다. 남들이 미처 밟아보지 못한 정신적 고산준봉과 원시처녀림을 답사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너무나 넓은 정신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보르헤스에게 서구의 이분법적 이성중심주의적 사고는 너무나 답답해 보였다.

그는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관견(管見)에 사로잡혀 있는 서구 사상계를 마음껏 조롱하였다. 그리고 언어의 망치를 들고 그들의 속되고 편협된 고정관념을 산산이 깨부수는 작업을 감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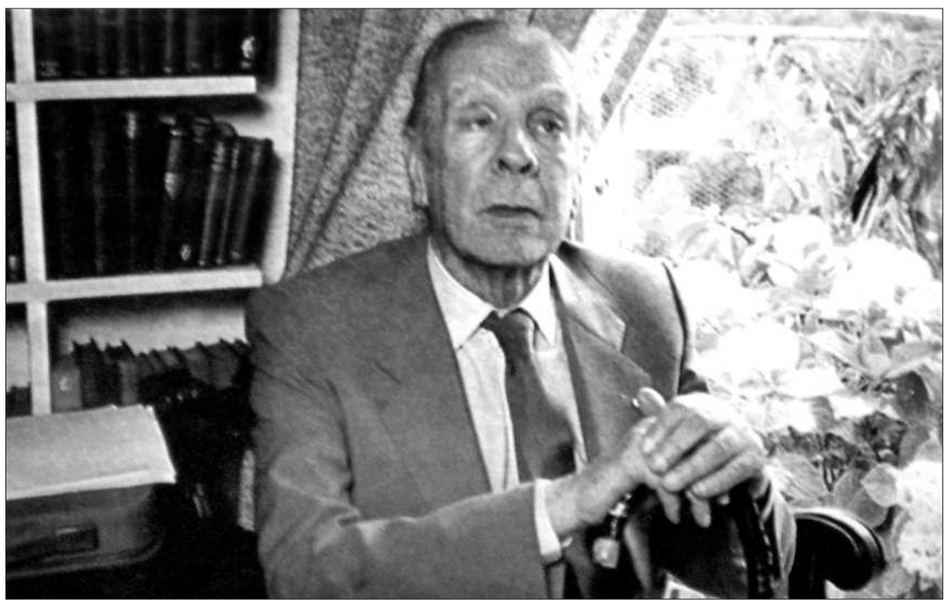
알음알이(이성의 왜곡)가 얼마나 사람을 어둡게 만드는가 하는 것은 불가(佛家)에서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가르침이다. 보르헤스가 근대 서구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입차문래 막존지해(入此門來 莫存知解, 이 대문을 들어서는 자는 알음알이를 버려라)' 였다.

보르헤스는 지극히 현묘한 초이성의 세계를 날렵한 직관과 거침없는 상상력으로 포착하여, 군더더기 없고 경쾌한 문체로 독특한 문학세계를 구축해놓았다. 그는 마치 깨달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경이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를 독자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보르헤스는 만년에 그의 고향에서 행한 강연에서 "불교는 나에게 구원의 길이었다"(〈보르헤스의 불교강의〉, p. 223)고 고백했다. 그는 청년기에 읽은 쇼펜하우어의 책에서 처음 불교를 접했고, 이후 〈불소행찬〉 등의 불경과 파울 도이센이나 D. 스즈키의 책을 통하여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갔다.

알레프, 소설로 그려낸 화엄법계

보르헤스의 대표작에는 불교의 영향이 선명히 배어있다. 그는 자신의 〈보르헤스의 불교강의〉에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는 불교를 깊이 공부해 자신의 문학에 투영시킨 선각자이다. 그는 불교사상이 이분법적 사고로 점철된 근대 사상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단초로 보았다. 보르헤스의 이 같은 탈근대 담론은 데리다, 푸코 등 20세기 주요 사상가에 영향을 미쳤다.

"불교는 나의 구원의 길" 고백
〈알레프〉 등 불교적 소설 집필
이분법 아닌 '不二' 서구에 전해

서구 문명 속 편견 조롱한 문학가
"이성의 왜곡 · 이분법적 사고 극복"
푸코 등 당대 사상가에 영향 끼쳐

"홀로 나무 아래 정좌한 싯다르타는 순간적으로 자신과 모든 중생의 수많은 전생을 보았다. 한눈에 우주 구석구석의 수많은 세계를 둘러보았다. 그 뒤 인(因)과 과(果)의 사슬도 모두 보았다."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p. 93)

싯다르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이 장면에서 보르헤스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바로 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공간의 제약을 뚫고 전우주적 존재로 변모하여 피안으로 도약하는 경험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부처님이 말한 우주의 심오한 구성방식(인과법)을 이해했다. 그는 그 정각 장면을 소설화해보고 싶었다. 먼저 그는 '신의 글'이라는 단편을 썼다.

"신성과의, 우주와의 합일이 일어났다. 나는 지극히 높은 바퀴를 보았다. 그것은 내 눈앞에, 뒤에, 또는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동시에 있었다. 미래에 있을 것이고, 현재에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서로 얽혀 짜인 채 그 바퀴를 형성하고 있었다. 거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 나는 우주의 심오한 구성방식을 보았다."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p. 22)

보르헤스가 말하는 바퀴란 진리의 법륜(法輪)임이 명백하다. 위의 묘사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묘사한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의 깨달음의 장면과 너무나 유사하다. 화엄경에서는 바퀴가 탑으로 비유된다.

"탑은 하늘과 같이 넓고 광대하다. (…) 젊은 순례자 선재는 각개의 탑 하나하나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탑들 속에서, 즉 하나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각각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곳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p. 23)

그는 〈알레프〉란 단편소설에서 이 세상의 실상이 제망찰해(帝網刹海)의 화엄법계임을 그려냈다. 알레프는 서구 알파벳의 첫 글자로 희랍어의 '알파'에 해당하는 말이다. 즉 모든 문명의 근원을 상징한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어느 지하실에서 우주의 비밀을 간직한 동전 크기만 한 발광체를 보았다고 했다. 그것은 일종의 우주경(宇宙鏡)으로서, 앞에서 나온 바퀴나 탑의 또 다른 비유이다. 그는 마니주를 본 체험을 소설로 형상화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알레프를 보았다. 알레프의 직경은 2~3센티미터밖에 안되었지만, 우주 전 공간이 축소되지 않고 거기 있었다. 나는 현기증이 나서 울고 말았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그 이름을 남용하지만 결코 본 일이 없는 현현한 가상의 대상, 즉 불가해한 우주를 내 두 눈이 보았기 때문이다."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p. 27)

보르헤스의 서술은 소설 속의 평범한 묘사를 뛰어넘는 직관이 담겨 있다. 그것은 번개 같은 찰나에 우주의 신비를 깨친 어느 각자(覺者)의 체험이 담긴 글 같기 때문이다.

미로정원, 소설로 그려낸 '業사상'

보르헤스가 불교에서 영향을 받은 또 하나의 주제는 자아의 정체성의 문제이다. 즉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과 그에 대한 불교적 해결인 무아사상에 주목했다. 그는 인간이란 동시에 세상이라는 연극의 배우, 연출가, 관객이라고 보았다.

이 사상은 보르헤스로 하여금 서구 근대철학의 핵심주제인 '이성을 가진 근대적 주체(modern ego)'에 대해 회의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이성의 한계에 대해 비판하며, 보다 통합적인 인간성을 모색하는 탈근대적 사유가 탄생하게 된다.

깨달음의 세계와 함께 보르헤스가 불교에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주제는 윤회설과 업(業)사상이었다. 업이란 쉬지 않고 짜여지는 인연의 천 같은 것이라는 아이디어는 보르헤스로 하여금 또 하나의 대표작인 〈끝없이 갈라지는 미로정원〉을 쓰게 했다. 그는 업이라는 그물구조에서 '시간의 미로'라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낸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이라는 공간적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업이라는 시간의 미로 속에서도 전생(轉生)하며 헤매고 있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보르헤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선불교라고 보았다. 그는 견성성불을 강조하였다. 때때로 난해해 보이는 그의 단편은 일종의 깨달음에 대한 문학적 화두이며, 어떤 시들은 게송(偈頌)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는 일본의 한 줄 시(詩) 하이쿠를 좋아하여 스페인어로 직접 하이쿠를 짓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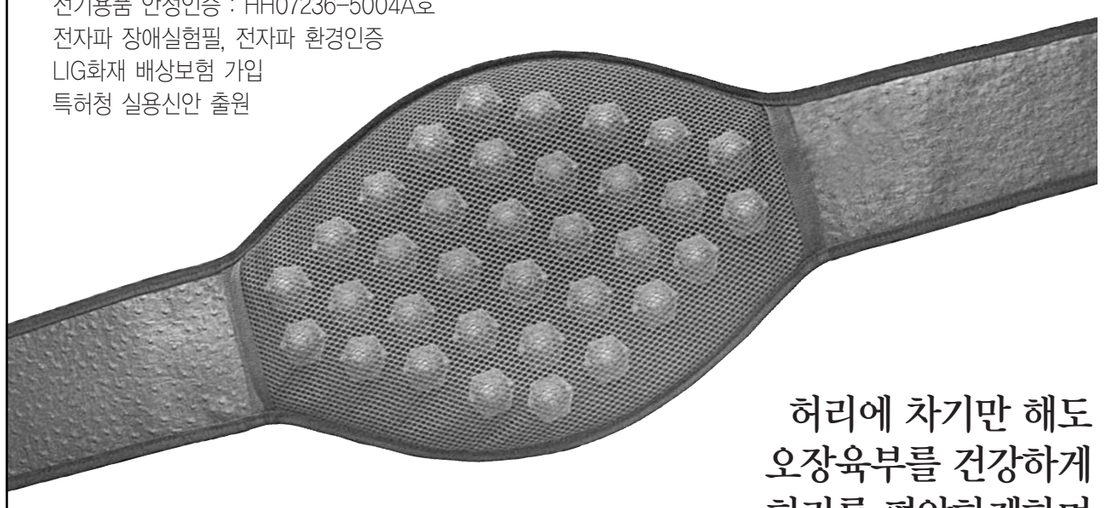
이분법에서 불이법으로

이성주의의 이분법에 기반을 둔 모더니즘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는 반성이 작금의 시대적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보르헤스는 누구보다도 앞서 이 사실을 꿰뚫어 보았다. 그의 글은 주객 갈등의 완고한 근대적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 대상에 대한 지배에 집착하고 정신분열에 신음하던 서구의 지성들에게 탁 트인 소요유와 확연무성한 불이법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보르헤스의 글을 읽고 서구가 수천 년 동안 사로잡혀 있던 이분법의 고정관념에서 깨어 나오는 암시를 받았던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왜 서구의 많은 지성들이 보르헤스를 인식전환의 나침반으로 지목하고 따랐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보르헤스 사상의 밑바닥에는 불교가 연연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바야흐로 인류를 인도할 새로운 지성의 별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다. 서구의 지성들이 깨달음의 세계에 눈을 뜬 것이다. 동서를 넘나든 보르헤스가 길을 열어놓은 바대로, 그 별은 포용적이고 궁극적 진리를 함유하는 불이법의 불교사상임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부처님이 제시한 그 진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논리와 언어의 옷을 입고 나와서, 서구 지성까지 포함한 온 인류를 인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새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불교의 지성적 사명 역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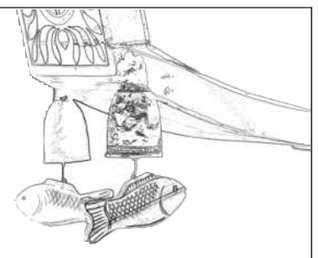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설법은 여래의 거룩한 말씀이니 가르침대로 공덕을 닦아서 대접이 좋고 나쁨에 집착 하지 말지니, 집착을 끊어야 법을 얻으리라.

- 발피보살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최면 공부합시다

주1회 1시간 30분 (총 10회)
실전(다양한 장애에 즉면,
혹은 스스로 개선하고 싶은 일)에
대처하여 빠른 효과가 있도록 유도!
기법만 반복 공부
45만원, 3명 이상이면
전국 어디든 가능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715번지
010-9609-1919
덕인 합장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바로 상담가능
-고승 비급전수
동국대 대학원졸(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어렵고 힘든 사찰과 스님이 안 계신 절을 도와드립니다

음식 솜씨 좋은
공양주도 함께 갑니다
010-4882-3838

선묵화 및 한문 개인지도

내용 : 문학, 한학, 선묵화
수강료 15만원
주 2회강의(오후)
숙식 별도 문의
경남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산 10-1
전화 010- 3749-4553

사 찰 행 사

조상천도재, 49재,
각종점안식, 바라,
나비작법, 살풀이, 지전무,
극락연등무, 축원무 등
영남범음범패[통범소리]로
여법하게 집전해드립니다
010-3189-0602

빈 암자, 토굴, 외딴 시골집 관리해 드립니다

저렴하게 주실 분
(60대 비구입니다)
010-7528-5535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문화센터, 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조용한 산사에서 남은 여생 초연한 삶을 살아가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010-3753-7844
010-7859-9600

수능 상담 무료

가족의 기운을 받자
기적의 촛불기도
하루 3천원,
축원문 쓴 당일까지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041)544-4441
한학선원 (마루대절)

박사학위 (명예)

미국령
꼭 필요하신 분
055)384-2032

동양의학 강좌

금(金)침요법, 장(長)
침요법, 약침요법,
체질요법, 오행침요법,
피내침요법(수강생 모집)
대구광역시 수성구
010-5533-6408 우섬

울산에 있는 작은 암자입니다
여법하게 불사하며
오래계실 스님을 찾습니다
약간의 보증금으로
월세 없이 계실분
법당 15평,산신각2평,용왕당,
요사채 등 일체 구비되어 있음
010-2500-1514

일체 무상 보시해 드립니다
팔공산 어산 40년 전통전문의식
천도제(49제), 예수제,
기초교리강좌
법문, 회심곡, 방생법회,
바라, 승무
무릉선원
010-6577-8385
010-6513-0585

특수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4거리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달마일장금(경) 강의 (공양 / 숙식제공)

왕초보에서 고수로 3박 4일 (1일 8시간) 총 24시간 강의
•강사 : 유천명리학당 원장직강 011-838-1134
•내용 : 포태법, 십이신살, 십이운성, 불귀법, 혼령잡는법
•장소 : 부산시 남구 대연동 540-5번지 3층 유천명리학당
월요일 ~ 목요일 (오전 9시-1시) (오후 2시-6시)
신도를 자연스럽게 천도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비방법
법복안 손으로 짚어 1분 안에 당신의 과거10년 미래10년을 꿰뚫는다.
월요일 오후 2시 ~ 6시 수강 후 회비 입금가능 함

사 찰 건 축 전 문

- 상담분야 : 사찰건축 계획, 건축평면구성, 토목, 건축일체
풍부한 고(古)건축이론과 오랜 현장경험, 탁월한 직관력, 안목
* 짜임새 있고 정교한 책임시공으로 보람된 불사(佛事)가 되도록 함
- 시공상담 : 목조건축, 콘크리트건축, 기타 사찰건축일체
• 문의 : 고(古)건축전문 시공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시공 가능함)
031)677-1373. 010-6405-2060
천년 고(古)건축

인연 명리 강좌개설

삶은 인연생, 인연별이라!
- 십이운성과 십신을 접목
- 토(土)의 변화를 중심으로 강의
- 모집대상 : 기초반,통변반
- 강의장소 : 삼성역 8번출구(3분)
010-4047-0134
정인스님 직강

전화상담 안내

여러분의 고민을
전화로 속 시원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대구은행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전통 선묵화 (禪墨畵) 연구원

(마음 닦는 그림, 선묵화를 통해서 참나를 찾고자 하시는 분)



(연구회원 모집)
자격요건
1. 서예, 사군자, 문인화 중 1년 이상 공부 하신 분
2. 선(명상) 공부 1년 이상 하신 분으로 그림에 관심 있는 분
3. 초보자는 면담후 결정
지 도 일 2회 반복
1. 1회. 선강의, 명상체험 , 선묵화 지도
2. 1회. 통신 선묵화 지도
지도 법사
범주 스님 지도
(홈페이지: http://www.dalma-art.com)
속리산 선(禪)문화 예술원 054)535-0378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백중 천도재
▶ 4재 : 7월 25일(음. 6. 29, 금), 조계종 대종사 현해큰스님
▶ 5재 : 7월 30일(음. 7. 4, 수), 봉선사 조실 월운큰스님
▶ 6재 : 8월 7일(음. 7. 12, 목), 조계종 대종사 암도큰스님
▶ 막재 : 8월 10일(음. 7. 15, 일),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밀허스님
※ 백중 천도재 동참하신 분께는 회주 無一 우학스님의 금강경 CD와 천도 법문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접수 및 문의 : ☎ 053)474-8228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우대
(강원도 영월군)
010-3568-1595

3천년에 한번 핀다는 신비의 꽃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불사중인 스님,
사업하시는 분 연락주시면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010-6707-6048
055)351-3302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마음을 치유하는 심 리 상 담 사

자격취득안내 (국가등록자격 08-0538)
미술심리상담사 / 아동심리상담사
온라인동영상 120강좌(교재 9권) 제공
www.koredu.ac
한국심리상담교육원 ☎ 02)766-9400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수행도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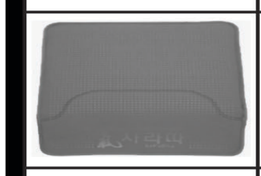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효사비결 2014

(효사활인천역집 제7판 육임 CD프로그램)

"뭐니 뭐니 해도 그거 하나면 끝나 데"
"자기만 아는 비밀한 사정들이 아예 다 써져 있는 거라!"
"들어서자마자 먼저 말하면 딱 딱 맞는거야"
"가지가지 귀신, 부정이 다 드러나고,
'방법' 까지 있어서 참 좋더라고"

- 기존 것과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

02)738-8680 고복자 효사

육임나라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309호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일체법의 성품을 중생들은 알지 못하니 온 갖 물질에 집착하고 얽매여서 여섯 감각기 관은 미혹되기 마련이다.."

- 허공장보살경 -

사 찰 안 내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산청(산세 수려함)
- 총부지 : 1300평
- 건물 : 목조 법당(20평), 요사채 등등
- 양도금액 : 1억 7천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 찰
- 위치 : 양산 신도시 10분 거리
- 대지 : 1350평
- 건물 : 33평. 산신각,용왕각,요사채 방12개
- 버스주차장 완비, 산세수려함, 계곡물 철철
- 은행안고 4억 인수

※ 전국 사찰 30년 역사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17번길(만덕동 다산타워505호)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 찰 전 문
연 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직통 051) 863-6622

사찰(급)안내

- 조계종스님만 연락주세요
- 충남 도심 목조사찰 양도
- 토지1400㎡
- 목조법당 요사 260㎡
- 도심속 아담하고 알찬사찰
- 양도금액 : 6억원(융자있음)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011-297-4281 (경매전문)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경전 봉안 불사중

010-3403-3355

암 자 안 내

- 위치: 경주시 건천IC 7분소요
- 대지 730평, 법당 1동, 요사채 2동
-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아담한 암자로 수행하기 좋은 도량
- 가액 : 2억 8천

010-4184-36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 지적 : 14,509㎡
- 종교허가 면적 : 2,770㎡, 전 70평, 요사채 22평, 법당 30평(조립식), 산신각 9평(목조)외 토목공사
- 가액 : 3억 8천만원

010-8484-3917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내
- 대지 : 30평
- 인법당 : 30평
- 시내 토굴형
- 양도가 : 3억5천
- 위치 : 경기양평
- 부지 : 1700평
- 법당 : 30평,전각2채
- 요사 : 60평
- 양도가 : 13억3천

※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별장 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7억 5천, 조절가능

010-3604-5477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010-8505-20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주지스님 법인 임명 관계로 10억이상 되는 실 불사금 보다 낮게 양도합니다

010-2772-72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불국사 부근 병풍산 아래
- 지장기도 도량 총평수 175평
- 법당 약 25평 / 방3개, 주방, 창고1개, 주차장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0-8330-0005
054)776-5482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 최다
- 재벌을 길러낸 터, 포교 최적지
- 100M 전방재개발확정, 아파트 2천세대
- 법당 30평, 부처님 5분, 천불전불사중 현재 약 300분
  1층 : 차고, 창고, 일주문 / 2층 : 법당, 방3개, 공양간, 화장실2개
  3층 : 방3개, 산신당, 빈공간 2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가액 : 15억(융자 4억포함) 시세가 이하
- 학업관계로 부득이 안내(절충가능)

010-8634-7851
(부동산 사절, 꼭 하실분만)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작은절
- 조용하고 깨끗한 사찰
- 지하철 버스가까운곳
- 기도와 공부하기 좋은 곳
- 대지 191㎡ , 건물 76㎡
- 가액 : 2억 5,500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
051)861-2233
010-5346-4138(중개보조원)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덕천동 지하철 1번출구 입구, 구포시장입구 최고요지,
- 3층 건물에 3층 45평
- 삼존불, 시설완벽 A급,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1,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0-4142-690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사찰
- 대지 300여평, 법당 목조, 천불전(목조), 삼성각, 요사채 2동
- 텃밭있고 전망좋음
- 가액 : 15억

010-8625-1225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로 108번길(당리동 대광빌딩)
- 6층에 5층(엘리베이터) 법당, 방 2개(45평)
- 약사, 관음, 500호신불
- 모든 준비 일체 되있음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75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3561-32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아파트 상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두산동 2층
- 법당 삼존불 35평
- 시설 : 쑥뜸훈증침대 6대 옷20벌 추출기 2대, 포장기 1대
- 약초 : 200여가지 기공 교정모든 것 전수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조정가능

011-573-4438

재개발 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2동 3,4층 법당)
- 전망: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 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위치
- 가액 : 7억 5천 주인직접

010-4409-134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5층 건물 2층 82평, 지하철 대중교통 3~5분이내
- 삼존불, 지방보살, 삼신당, 호신불 324(분양10%)
- 법당과 요사채분리 (기공, 철학, 교육 등 다용도 이용가)
- 임대조건 : 보증금 2천 월66만 / 3천 월55만원 /4천 월44만원 선택
- 시설비: 700만원

010-4590-6777
010-3869-6799

사찰(급)안내

- 위치: 김천시 면소재 김천역 교통 15분거리
- 건물 32평, 근린생활시설 사찰,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년 35만원
- 내용 : 법당, 방 2개,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좋은 요지, 남향, 현대식시설, 생활편리함
- 가액 : 5천 4백만원

010-7295-1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 2동 22-37번지 사거리 입구
- 평수 23평, 집기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됨
- 스님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 20만원 집기일체, 시설비 2,000만원

010-4680-932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무거동 1196-2 삼호복개천
- 아미타 삼존 후불 탱화
- 대형신형에어컨1대, 불박이장2 방2, 주방 별도, 법당
- 총평수 43평, 3층 무료주차장 수십대 가능
-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비품대 1,300만원 조절가능

010-3589-811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 종교부지 1,700평(대웅사) 병산리, 산 168-2번지 4,130평(총 5,830평)
- 건물, 대웅전 1동, 요사채(1, 2층) 1동, 기도방 1동, 승방 1동
- 입주조건 : 양도 또는 임대(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010-4225-0012
02)403-3333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산세가 수려하고 조용함
- 법당 33평, 방 6, 공양간
- 가액 : 전세 3,000만원
- 양도는 평당 20만원

010-3827-6869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산 143-30 외
- 자연녹지 13,000㎡
- 청도군청 2분거리에 있고 최고의 조망권과 주택1동, 야외 음악당시설이 있습니다
- 가액 : 6억 1천만원

010-5658-6679

토 굴 안 내

- 위치 : 강릉 경포대 옆 사천해수욕장 뒤(낮은동산) 최고의 위치
- 큰불사 할수 있는 명당터임
- 사용대지 : 야채 밭 포함 약 300평 (1년 도지 20만원) 법당 외
- 방4 화장실2, 목욕탕1,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종, 집기일체
- 가액 : 3,850만원(건물 법당양도)

010-2461-301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반송동 소재
- 5층 중 3층, 33평, 법당 20평,
- 삼존불, 칠성, 산신, 신중 관음소불 100불, 방1, 주방, 실내화장실
- 집기일체 준비되어있음
- 가액 : 1. 500만원 30만원 2. 1,000만원 25만원 시설비 1,300만원(조절가능)

010-5541-237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아파트 상가 대로변 2층 상가
- 규모 : 2층건물 2층 전체 80평, 법당 50평, 공양간, 방3개, 창고2개
- 시설: 삼존불 개금불, 신중단, 영가단
- 냉난방시설 완벽, 집기일체
- 몸만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주차공간 충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3574-388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포함)

010-8725-3196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군 부곡 온천 및 화왕산 군립공원대로변, IC에서 8분거리
- 목조단청, 전통토기와, 대웅전30평, 종교부지 600여평, 요사채(60평) 화장실2,
- 석탑, 주차장, 창고, 150m암반수 및 상수도, 산밑에 위치 심양보일러, CCTV설치,
- 계곡물흐르는 청정도량, 비품 및 생활용품일체
- 가액:3억 8천 5백만원(답사후 조정, 평당 70만원 시세)

010-8664-825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지하철 2분 2층상가
- 60평(법당 30평, 방3, 사무실1, 창고1, 주방, 욕실, 앞뒤 베란다)
- 도시가스 생활편리
- 가액 : 전세 7,000만원(월세가능) 시설비 약간(상담후 조정가능)

010-9342-979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문화재사찰 구할 분
- 법당 목조30평, 건물2동 문화재 2점
- 평수 1,000평
- 가액 : 15억

010-9798-10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 331번지
- 법당 20평(목조) 기도방 2칸 요사채 30명(현대식)
- 주차 : 대형차 가능 고목과 오죽이 절 주변에 둘러져 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오래된 암자 시설비 절충

010-8958-213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파천면
- 대지 : 75평 건평10평
- 사정상 급 안내
- 몸만오십시요
- 가액 : 1,300만원

010-4113-108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시 대로변 6층 전망 최고
- 특징 : 베란다 넓은화단, 상추밭 가능, 본존 1불 고불존상, 시원한 맞바람
- 6층 독채사용, 뒷산 배경 운치함
- 평수 : 45평(월세 저렴함)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60만원 (빌딩관리비, 부가세 포함)

시설비 저렴한 1천만원 (원 시설비 2천 5백 소요)

010-5553-38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광주 곤지암IC 8Km
- 대지 150평 - 건물 60평 (2층 - 철골 조립식)
- 소임관계로 급 안내
- 가액: 1억 8천 5백

010-2887-576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뉴서울쇼핑 2층 총 80평
- 가액 : 5,500만원, 월 40만원

010-8552-393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지하철 2분 2층상가
- 60평(법당 30평, 방3, 사무실1, 창고1, 주방, 욕실, 앞뒤 베란다)
- 도시가스 생활편리
- 가액 : 전세 7,000만원(월세가능) 시설비 약간(상담후 조정가능)

010-9342-9794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산시 북정동 아파트 단지내
- 평수 80평, 방 2칸
- 가액 : 일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무

010-3927-1299
010-5716-103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동림동 새고개 2길 47
- 대지 333평
- 현재 지가가 100만원 정도 형성되 있음

011-9551-337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사찰(터)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산 5-1 450-62
-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1408평
- 정남향 조망수려
- 가액 : 6억5천만원

010-3755-874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4층건물 내 2층
- 평수 : 45평
- 법당 공양간 접견실
- 시설 및 최상의 위치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

시설비: 2,000만원(조절가능)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동구 낭월동 산 16-1
- 방 2, 부엌 1, 법당 1
- 가액 : 1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42)273-1677
010-8775-167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삼전동 5-3 잠실관광호텔 앞 • 50평
- 석가모니 후불 1,000불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6천만원 들었으나 사정상 급 안내 3천만원 합 5,000만원

010-2225-2544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감만동
- 평수 : 약 90평, 2층 - 공양간, 3층 - 법당, 4층 - 스님 친견실
- 전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주방기구, 시설 완벽
-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575-9876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 13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 3칸), 후원 9평
- 몸만 오시면 됨
-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2억 3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시설비 포함)

011-895-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 평수 : 58평
- 법당 시설 완벽, 몸만오시면법회가능 3층 엘리베이트 사용
- 전세 : 2,000만원 월세 80만원 (주인과 조절 가능)

시설비: 답사후 조절 가능

010-3402-499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층
- 평수 : 40평
- 시설 및 포교원 최상의 위치
- 전세 : 2,000만원, 월세 : 8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8616-57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 평수 120평, 인법당 27평
-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양도
- 잔디밭마당에, 7M 지장보살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010-5555-87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로변
- 평수 : 60평(조명, 냉난방 완비)
-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108소불
- 실내 화장실, 주차장 완비
- 가액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

010-5685-2229

삶에서 깨어나기

타라 브랙 (명상가 · 임상심리학자)

〈7 · 끝〉 자아팽창과 우월감 (사례)

생각 떠오를 때 '멈춰' 하면서 알아차리자

참자아를 믿기

스물두 살에 보스턴 아슈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8년 정도 전심전력을 다하면 그 그물을 뛰어넘어 해탈에 이를 것이라고 믿었다. 붓다 같은 영적 수행자들의 이야기가 나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들을 번득이는 깨달음, 즉 자신의 본성이 변함없고 찬란한 자각이라는 것을 불현듯 깨달아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경험했다. 이 깨달음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은 자아에 묶이지 않는다. 그 후부터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고 그들의 정신은 명료하고 자유롭다.

나는 '영원한 자유'를 열렬히 추구했으나 그것은 나의 길이 아니었다. 깨달음은 점진적이었고, 자아의 미망은 여전히 끈질기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나의 유별난 성향에 대해 이야기하면 수련생들은 그 수십 년 동안 대체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주 궁금해한다. 예전과 지금의 차이는 이렇다. 지금 나는 자각을, 그리고 생생하고 자애로운 현존의 체험을 가장 친숙하고 사실적이고 진실한 나라고 믿는다. 내가 가장 비참할 때도 그 믿음은, 자애로운 현존이 귀의처라는 그 느낌은 여전히 배경에 있으면서 나를 고향으로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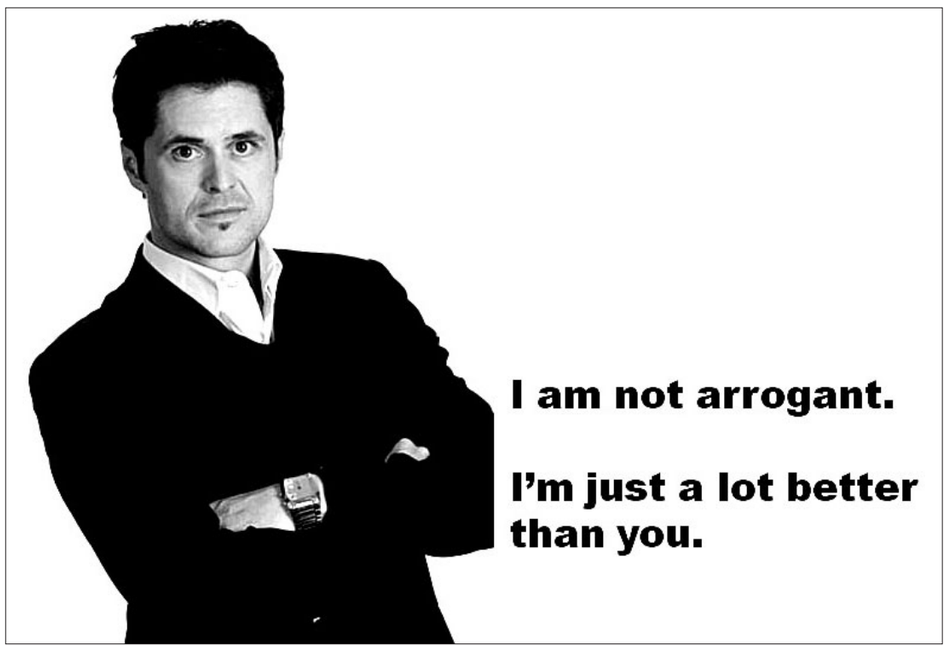
몇 년 전에 나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마음가짐에 갇혀 있음을 갈수록 뚜렷하게 자각했다. 내가 중요하고 특별하다는 느낌은 내 기억이 닿는 한 오래 전부터 내 안에 있었다. 가장 멀게는 네 살 때, 나는 항상 대장이었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야 했으며 내 몫이 가장 커야 했다. 전작 〈받아들임〉에서 말했듯이, 나는 '특별한 사람'의 이면–부족하고 결함이 있다는 느낌–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영적 교사이자 안내자라는 역할이 커짐에 따라 나는 일종의 자아 팽창에 주기적으로 갇혔고, 그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다. 내가 어떤 면에서 남들보다 더 낫다고 – 더 현명하고 더 영적이고 더 똑똑하다고– 여길 때마다 나는 분리됐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도 분리됐다.

나는 '특별한 사람'을 없애고 싶었다. 내가 매우 바쁘니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내게 맞춰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속으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깨어나 멈추었다. 수련생들의 칭찬을 듣거나 아부하는 메일을 받을 때, 그 순간 멈춰서 부풀어 오르는 자긍심을 감지하고 주의를 심화했다. "이건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라고 스스로 상기하곤 했다.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너무 많으니 나 대신 우체국에 갔다 오라고 조너선에게 부탁하려다가 문득 멈추고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하루 종일 워크숍을 이끈 후 귀가해서는 내가 온전한 현존과 연결성과 분리된 채 지낸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따져보곤 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나는 명상을 시작하고 곧바로 그다음 주 일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고요해졌을 때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다. 그것은 빛이었다. 찬란하고 매혹적인 빛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끈적끈적한 거품–특별한 사람– 속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 거품을 없애고 싶었다. 거품 밖으로 나와서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그 자각의 빛과 섞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 빛과 하나가 되는 소중한 경험에 이를 수 없을 것 같아 고통스러웠다. 나의 우주복 자아가 너무 작고 너무 튼튼했기 때문이다.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마음속에서 절망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 더 이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해의 파도가 밀려와 나를 휩쓸었다. 너무도 익숙한 파도였다. '나'가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자아는 스스로를 없애지 못하고, 자아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당연하다. 그리고 그 자아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결함이 있다고 느끼며 달라지려고 끝없이 싸웠지만 해답은 싸움을 멈추는 것임을 깨달았을 뿐인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자아가 팽창하는지 위축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고통은 계속되는 싸움 속에 있었다. 내 안에서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다. "멈춰. 그냥 멈춰."

나는 멈추고 싶었다. 내려놓는 지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몸은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상황이 바뀌기를 갈망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타라, 제발, 멈춰." 그리고 다시 한 번, 그때까지 수없이 경험했듯이, 자애로운 자각을 통해 나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어느새 나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자세로 손을 맞잡고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통제하려는 자아를 다정하게 자각하고 있었다. 나는 어느 것도 없애려고 애쓰지 않았다. 더 커다란 어떤 것에 속한 이 모두를 그냥 인식하고 있었다. 싸움이 멈추었다. 내 마음속의 말들,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자아의 거품이 소멸했다. 나의 세계가 열리며 크고 고요한 공간이 되고 따스하고 다정한 기운이 넘쳐흘렀다. 감정과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나는 특별한 사람의 조짐을 알아차렸다. "내가 해냈어. 나는 항복했고 여기서 벗어났어." 그러나 얼마 후 당연히 "아, 안돼, 다시 돌아왔잖아!" 다음 순간에는 내면의 미소. 다시 목소리. "멈춰…그냥 멈춰." 이어서 고개를 숙이고 내려놓음. 싸움이 멈추자 고요한 자각이 넓게 열렸다. 그곳이 고향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아울러 나는 평화를 느끼고 나의 참자아를 믿었다.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다 여길 때 마다 마음의 불성은 물론 주변과도 분리돼 '나'에 대한 아상 올라올 때 알아차리면 당신 세포를 가득 채운 평화를 느낀다

고통 앞에서 기도하기

기도는 당신의 진심 어린 갈망을 표현한다. 이 순간에 진정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당신이 갈망하는 것의 원천, 즉 당신의 참되고 다정한 본성을 드러낸다. 아래의 지침과 숙고는 당신의 기도의 생명력, 절실함, 치유력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큰 도움이 필요하거나 고통스러울 때 당신은 이미 저절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굳이 기도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제발, 도와주세요." 처럼 기도와 비슷한 말을 중얼거릴 수도 있다. 통증을 줄여달라고, 당신을 보살펴달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달라고, 크나큰 상실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외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경험을 조사하라. 당신은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누구 또는 무엇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당신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방식을 더 잘 알아차릴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기도하게 된다. 기도를 지속적인 실험으로 간주하고 다음의 지침을 활용해보라.

△**기도자세**: 두 손을 맞잡아 앞에 모으면 당신의 진실하고 열린 마음이 실감되는가? 눈을 감으면 어떠한가? 고개를 숙이면 어떠한가? 이 전통적인 기도 자세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본다.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떤 자세나 손모양이 당신의 마음을 여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지 탐구한다.

△**기도에 들기**: 매우 강렬한 감정에 휩싸일 때도 잠깐 멈춰서 기도하는 느낌을 일으키는 것은 가능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에게 가장 알맞은 기도 자세를 취한 후 정지한 듯 멈춘다. 두세 번 길게 심호흡을 해 주의를 모은다. 그런 다음, 다시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몸에서 뚜렷하게 느껴지는 긴장을 모두 이완시킨다. 지금 여기서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당신 자신을 느껴본다.

△**경청하기**: 당신의 감정과 신체 감각을 온전히 경험할 때 기도가 순수하고 강력해진다. 당신의 마음에, 그리고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다. 최근의 상실이나 임박한 상실, 혼란, 상심, 의심, 두려움을 촉발하는 사건이 그것일 수 있다. 영화를 보듯이, 정서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라. 목 –목, 가슴, 배 등 모든 부위–의 느낌을 자각하라. 가장 강렬한 느낌이 감지되는 부위는 어디인가? 서두르지 말고 당신의 취약함과 고통을 충분히 경험한다. 당신이 내부의 가장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상상하고, 그곳을 안으로부터 직접 느껴본다. 그곳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 고통 속에 묻혀 있는 당신의 그 부분은 무엇을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가? 당신이 알아보고 이해해주길 원하는가? 사랑을 원하는가? 받아들여지길 원하나? 안전이 필요한가? 당신은 특정한 개인이나 영적 인물을 향해 기도하는가? 엄마가 안아주길 갈망하는가? 아빠가 인정해주길 갈망하는가? 신이 통증을 없애주거나 보호해주길 원하는가? 어떤 욕구든지, 그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욕구를 느끼고 그 욕구의 강렬함을 실감한다.

△**기도를 표현하기**: 속으로 또는 나직하게 기도하면서 당신이 갈망하는 사랑이나 이해, 보호, 수용을 요청한다. 이렇게 염원할 수도 있다. "내가 더욱 선량하고 더욱 친절하고 더욱 관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나 존재를 향해 기도할 수 있다. "아빠, 제발 떠나지 마세요." "엄마, 저를 도와주세요." "하느님, 제 딸을 돌봐주세요. 제 딸이 무사하게 지켜주세요." 또는 누군가와 단절된 것을 느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간청할 수도 있다. "부디 나를 사랑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기를 갈망하며 연민의 보살(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다. "내 마음이 열려서 자비로워지기를."

기도를 말로 표현하면서 당신의 취약함과 갈망을 지속적으로 직접 절실하게 느낄 때 당신의 기도는 계속 깊어질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여러 번 기도하라. 당신의 갈망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본다.

△**온 존재로 표현하는 기도**: 당신의 특정 욕구와 갈망이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경우는 드물다. 갈망의 대상, 즉 당신이 사랑이나 보호를 청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욕구나 대상을 더 깊은 경험, 더 깊은 근원에 들어서는 문으로 삼는다.

욕구와 갈망을 느낄 때 이렇게 자문한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상상력을 발휘해 알아내보자. 특정한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가 당신을 안아주고 조건 없는 사랑을 담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모두 내려놓고 당신이 사랑에 휘감겨 있는 것을 느껴본다. 안전하다고 느끼기를 원한다면 강력한 존재가 당신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다고 상상한다. 그런 다음, 당신의 모든 세포를 가득 채운 평화와 평온을 느껴보라. 무엇을 갈망하든지, 당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그 갈망의 순수한 본질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본다. 끝으로, 그 경험에 완전히 침잠할 때, 당신 자신이 사랑이나 평화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본다.

△**하루 종일**: 자신의 기도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일상에 짧은 기도를 엮어 넣을 기반을 제공한다. 일상 활동 중에 잊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따뜻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지닐 수 있다.

• 하루를 시작할 때 다짐한다. 어떤 상황, 어떤 감정, 어떤 대응을 기도하라는 신호로 삼을 것인가?

• 기도하기 전에 잠깐 멈춰 호흡하고 이완한다. 고요해지는 데 특정자세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꼭 그런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다.

• 몸과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의 감정과 신체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본다.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마음 속으로 기도한다. 저절로 나오는 기도문을 외우거나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이미 확인한 기도문을 외운다.

"친구에게 사랑을 청하라 거듭 청하라. 모든 마음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으니." -하피즈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타라 브랙의 〈삶에서 깨어나기〉(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3차 신묘장구다라니 천일기도
축령산 보현사에서는 '제 3차 신묘장구다라니 천일기도'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선근공덕의 인연으로 무루 동참하여 축령산 천하명당터의 기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 불기 2558(2014)년 6월 25일 ~ 2017년 3월 22일까지
장소 : 축령산 보현사
문의 : ☎ 031)591-9023 (기도동참자 1인당 1년 10만원)
매월 셋째 토요일 신묘장구 철야기도 후 천도재 봉행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산신기도 (매월 음력 9일 ~ 15일) 오후 2시 부터
천일기도도량 축령산 보현사
보현선원 진명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남가로 1723-34

갤러리 색즉시공



마당의 두 글자

나무 한 그루, 그 나무 쓸고 간 바람 한 점
언제부턴가 바라보는 것들은 모두 '너'가 되었고
봄이든 가을이든
그냥 지나치지 못한 것들은 업이 되었다
바라본다는 것은 '나'에 기대 살기 때문이고
지나치지 못한다는 것은 법 없이 살기 때문이다

그런 나와 '너' 사이엔 경전이 팔만사천이고
부처님 모신 작은 마당엔 두 글자뿐이다
'너' 하나를 기다리는 데 쓰인 시간과
지나치지 못한 것들이 그렇게 적혀 있다

사진 · 글=박재완 기자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이 '사랑' 품게 해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참회기도 통해 타인 존중하는 배려심 배워

"난 천개의 바람 천의 숨결로 흩날립니다"

어머니의 사랑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이다. 어머니를 통해 사랑만큼은 원 없이 받으며 컸고, 시집을 와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가끔 스님이나 도반들을 시봉할 때면 어머니에게 빚진 사랑을 되돌려 갚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유모와 침모를 다 데리고 시집을 오실 만큼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어머니는 성정이 순진하시고 고전적인 미인이었던 데다가 음식 솜씨가 뛰어났다. 우리들 교육은 아버지께서 전담하셨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어머니는 그야말로 현모양처였다.

신혼 때는 친정어머니가 같이 시집왔단 소리를 들어야 했다. 몸이 약하고 일도 잘 못하는 딸을 대신해 친정어머니가 살림을 많이 도와 주셨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서 애들을 보아주고, 백일 동안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밤중에도 안방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나면 아이를 데리고 나가 재워주셨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시면 무조건 나를 밖으로 내보냈다. 어머니가 와 계시면 나는 애들을 맡겨놓고 붓글씨를 배우고 자수를 배우러 다녔다. 시창작을 배우러 문화교실을 찾기도 했다. 내가 가방을 들고 집밖으로 나오면 어머니는 2층 베란다에서 "놀다 와라!" 하고 아이를 안고서 손을 흔드셨다. 그러면서 동네할머니들에게 "이 집 아씨요, 돈 푼께나 쓴 사람이요."라며 자랑 삼아 말씀하셨다. 어머니 덕분에 어린 아이들을 걱정 없이 맡기고 나를 연마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니, 어머니는 아마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갇혀 사는 딸이 안쓰럽기도 했겠지만,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좋아보였던 것 같다.

그런 어머니가 하루는 "이리 좀 와봐라" 하시더니 물으셨다.

"얘, 매력이 뭐니?"

"매력은 갑자기 왜 물으세요?"

"너희 아버지가 나보고 매력이 없다고 하시더라."

나는 지금도 심각하게 물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대학 출신의 지성적이던 아버지에 대해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이 느끼셨을, 그 뭐랄까 낭패감 같은 게 있으셨을 터인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웃어넘긴 것이 지금도 죄스러운 마음으로 남아 있다. 아마 지금 물으신다면 "이 세상 모든 엄마는 엄마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매력적이예요."라고 위로해 드렸을 것이다.

딸네 집에 와서 일하는 것을 오라버니가 싫어한다면서 아들이 딸네 집을 방문할 때면 옷을 차려 입고 안 그런 척 소파에 앉아있었던 어머니다. 어릴 적 겨울, 아침에 학교에 갈 때도 내 운동화만 부뚜막에 따뜻하게 해서 내주셨다. 시집을 와서도 "무를 넣은 갈치조림 먹고 싶어." 하면 어머니는 식사를 하시다가도 수저를 놓고 갈치를 사다가 만들어주셨다. 입덧이 심해 열 달 동안 누워 있던 나를 위해 어머니는 대추차를 찾으면 대추차를 만들어주셨고, 시금치나물을 먹고 싶다고 하면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금치나물을 마련해주셨다.

어렸을 때는 지나가다가 내가 유난히 좋아하던 복숭아를 보면 어머니는 값을 묻지도 않고 껍질을 싹 벗겨서 나에게 먹이고는 "얼마예요?" 하고 값을 치르곤 하셨다. 어머니가 무엇을 하나 궁금해 부엌에 나가면 "어서 들어가."하고 방에 밀어 넣으시곤 하셨다. 그리곤 동생들을 향해서는 "그 애들은 왜 방에 있느냐?" 하시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 몸이 약한 탓도 있었겠지만 유난히 사랑을 주셨던 것 같다.

불교를 알고 참회기도를 하면서 뒤돌아보니 다른 자식에 비해 사랑을 너무 받은 것에 대해서 "형제들의 마음이 닫힌 게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머니의 큰딸에 대한 헌신은 눈물겨웠다. 집에서 귀하게 컸기 때문에 상대방이 귀하다는 것과 남을 대접하는 것을 배운 것 같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를 귀하게 여길 줄 안다. 남편과 부딪힘이 있을 때 "나는 부모님이 그림자 같이 계셨으나 이 사람은 부모님도 안계시시지 않는가"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

어머니는 약주를 즐겨하셨던 아버지가 못마땅하셨는지 가끔 언성을 높이곤 하셨는데, 그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결혼하고 남편에게 한 번도 목소릴 높여 말하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 가운데 마음 아픈 것 하나가 있다. 결혼 전 남편에게 물었다.

"약주는 얼마나 하세요?"

남편이 시원스레 대답했다.

"잘 못합니다."

그런 줄만 알고 술에 관해 무방비 상태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한 달 뒤부터 마시기 시작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웠다. 애꿎은 어머니에게 나는 "엄마가 데리고 살아. 엄마가 시집가라고 했잖아." 하고 원망섞인 푸념을 늘어놓았는데, 나중에서야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얼마나 불효막심했는지 깨달았다.

"10년 정도 지나니까 네가 그 소리 안 하더라. 네가 그 소리 할 때마다 내가 죽을 뻔 했다."

지금도 어머니의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 때문일 것이다. 말수가 적은 편이셨던 어머니가, "너를 대학에 보내려고 등록금을 마련해두었는데, 네가 대학을 포기하고 직장에 취직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 마음이 무척 아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눈물이 나왔다. 아이들을 대학 보내고 장가보내고 하다 보니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어서 가끔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자식에게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임을 보여준 분이다.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과 의사이신 작은 외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 역할을 하셨다. 아들과 손자가 의사의 대를 잇기 바라셨으나 꿈을 이루시지 못했는데, 외손자인 둘째 아들이 의대에 들어가자 기뻐하셨다.

불교에 입문해서 활동하는 딸을 보시고는 큰 외손자에게 어머니는 "재성아, 너는 절대 스님이 되지 말아라." 하고 걱정하셨다. 큰 외손자가 워낙 순종적이고 착하니까 불교에 푹 빠진 딸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신 것 같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감기 한번, 배탈 한 번, 용돈 한번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3개월 앓으시다 고요히 영원한 잠에 드셨다.

평소 어머니는 나에게 "네가 많은 걸 주었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 많은 걸 받고 살았다. 손자 재성이가 외할머니에게 매달 10만원씩 용돈을 드렸는데, 돌아가시고 나중에 보니 그 돈이 저금통장에 그대로 있었다. 돌아가신 후 유언대로 큰 손자한테 받았던 용돈을 고스란히 주고 가셨다.

술을 좋아하던 남편을 탓하며 어머니를 원망하던 딸 때문에 죽을 뻔 하셨다던 어머니, "놀다오너라" 하시며 딸을 밖으로 내보내 주던 어머니, 무엇이든 먹고 싶다면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시던 어머니께 이 글을 바치고 싶다.

"난 천 개의 바람, 천의 숨결로 흩날립니다.
나는 빛이 되고, 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피어나는 꽃 속에 있습니다.
나는 곡식 익어가는 들판이고, 당신의 하늘을 맴도는 새,
내 묘지 앞에서 울지 마세요. 나는 그 곳에 없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는데 나의 뇌리 속에 위의 시 구절이 스쳐 지나간다. 아마도 어머니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재작년 봄, 4월에 온갖 꽃이 화창하게 피어난 날에 어머니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 내가 써온 글들은 어머니의 사랑이고 내가 앞으로 쓸 글들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바람의 숨결이 되어 흩날리고 싶다. 〈여여원 원장〉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 등



BORYEON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내가 없다' 이 도리를 알아야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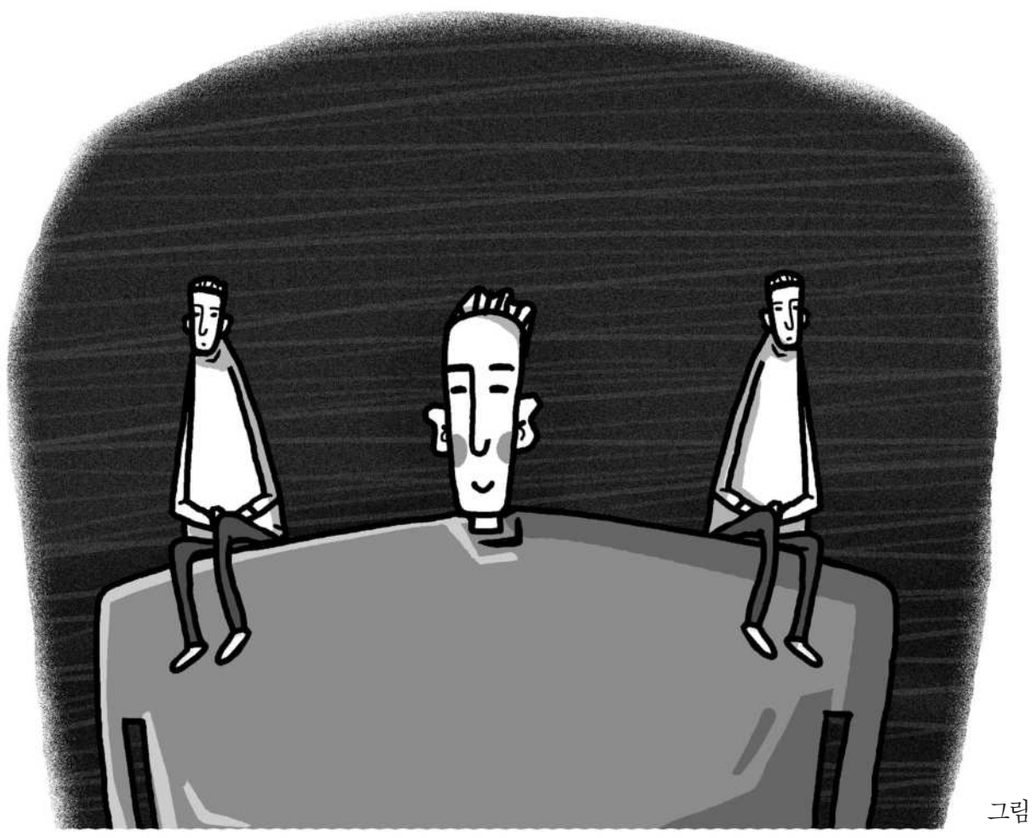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자리를 해 주시는 것을 보니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안 오실 줄 알았더니, 가죽 속에 물이 들어갈 리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오신 것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산천초목과 더불어 우주 전체를 한마음으로 둥글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가지신 것 같습니다. 참 감개무량합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비하고는 관계없는 말이지마는, 어떤 집에 초상이 났는데 그 집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면 "저 집 사람은 틀림없이 천당에 갔어." 하고요,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집은 "뭐, 보나마나 지옥 갔어." "잘 죽었어." 하고 쑤군대거든요. 그게 무슨 까닭일까요?

그러니 우리가 한 철 살면서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행, 정직한 마음, 포괄적인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조건 없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상대와 나와 부딪치지 그렇지 않으면 부딪칠 리가 있나? 내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부닥침이 있으니 내 탓이지.' 하고 돌릴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우주 법계에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서 두루 하기 때문에 참, 조건 없이 사랑을 줄 수도 있는가 하면 조건 없이 일체제불의 마음의 능력이 각자 여러분 앞에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마음이므로 이 세상의 모습을 버리고 떠났다 하더라도 영원히 세세생생 여래의 집에 뜻을 같이 하고 우주 전체와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불바퀴의 생산처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 한마음 도리를 배우는 여러분은 정신계와 물질계를 한데 합쳐서 중용으로써 그렇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일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도를 구하는 거지 내가 아니고 생활이 아니라면 도가 어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무술 하는 사람들이 신검을 만들려면, 그리고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기술자가 되려면 거기에 포괄적인 마음으로써 정성을 다해서 내 혼을 다 집어 넣어야만이 기술자가 되고 신검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 소립니다. 그 신검은 모든 사람을 건지고 살리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우주 전체를 받칠 수 있고 또는 우주 전체를 굴릴 수 있는 그 대의적인, 지혜로운 자비의 마음으로 쓴다면 그 자비의 마음이 즉 신검, 자비의 칼인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는 나의 무명 악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고, 두번째는 세상만사가 모두 같이 돌아가는 둘 아닌 법을 알기 위함이요, 셋째는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같이 사랑하면서 우주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 그 이치를, 그 섭류를 모두 터득하고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처럼 다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리고 귀 달리고 몸뚱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으면 그 몸뚱이 자체가 영원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몸뚱이가 사대로 흩어져서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오기 위한 방편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모두 한데 합쳐져서 서로 서로 통하면서 같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바퀴입니다. 혼자는 할 수 없듯이, 모두 한데 합쳐져서 둘이 아니듯이, 즉 빗방울이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의 물이지 어찌 개개의 빗방울이겠습니까? 그래서 개개의 물방울이 한데 합쳐져서 돌아가는 그 소용돌이가 바로 불바퀴이며, 외국에서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랙홀이라는 자체는 바로 우리가 생산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또 태어나고 또 진화돼서 다시 태어나고, 모습을 갈아서 다시 태어나고 발전이 돼서 다시 재현이 되고 생산이 되고 이러는 그 자체로서 바로 생산처라고도 합니다. 자동적인 생산처! 우리의 마음의 소용돌이가 바로 불바퀴의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한번 울렸다 하면 생산이 되곤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자꾸자꾸 바뀌어 재현이 돼서 자꾸 생산이 돼서 영원히 그칠 바가 없이, 즉 멸함도 없고 태어남도 없이 영원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하게 돌아가는 그 섭류를 우리는 내 몸속에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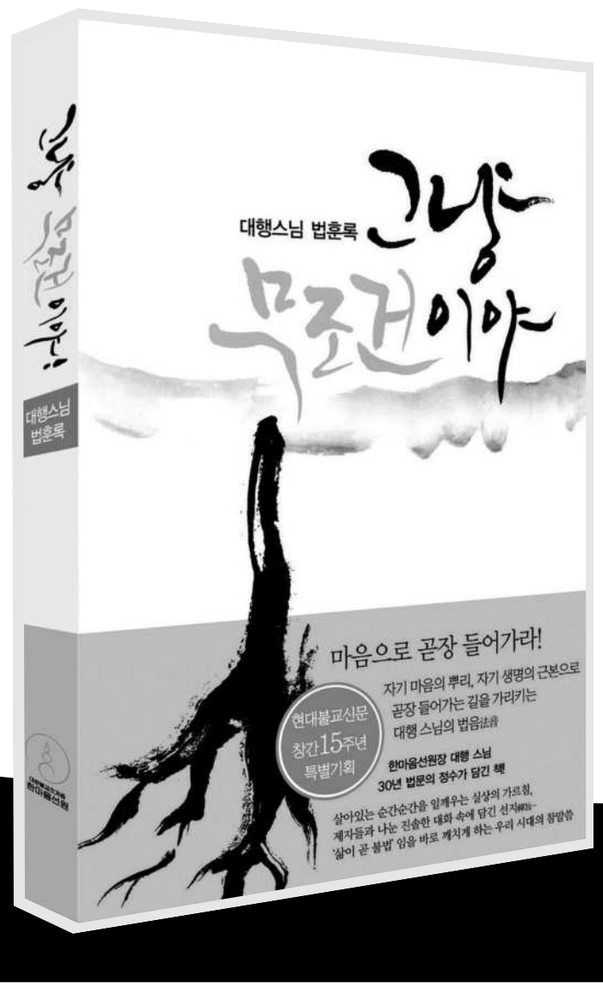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한다고 하고 여러분이 산다고 하고 여러분이 주었다고 하고 여러분이 망했다 하고, 또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 하고 여러분이 잘했다 못했다 죄를 지었다 죄를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본래부터 말입니다, 우주의 크나큰 광대한 섭류를 알려면, 산하대지의 광대한, 모든 일체 생명들이 두루두루 공생하는 그 자체를 알려면 내 몸부터 먼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했다, 내가 산다, 나다, 이러지만 그게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몸속에 여러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시발점이 종점이요 종점이 시발점이라고 한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억겁 전에 미생물로부터 진화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수없는 진화를 거듭거듭 해서 인간까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진화된 이 모습이 자기를 진화시켜서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속에 어떠한 자기가 있기 때문에 진화시켜서 온 것입니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잘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내가 됐다는 걸, 미생물 하나가 수없는 알을 낳아서, 즉 마음의 씨를 낳아서 내 몸뚱이를 진화시키고 크게 만들어서 집합소에 함께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의 씨 여러 개가 바로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발점에서는 미생물이었는데 종점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점을 지금 여러분 몸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몸속이 또 종점이 아닙니다. 불덩이가 한번 탁 날아서 툭 터지고 또 스러지고, 또 툭 터지고 스러지고 하는 이것이 우주 섭류의 작용입니다. 태양도 그렇지만 모든 자체가 상대와 상대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대가 턱 터지면 그 마음의 씨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원소 자체의 씨 하나에서, 마음의 씨 하나에서 마음의 씨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입자로 된다든가 분자로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또 원자로 분리가 돼서 나가면서 우리가 애가 어른이 되고 그러듯이, 또 분자에서 원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분리돼서 그 마음의 씨가 우주 전체를 싸고 돌고 있습니다. 시발점에서는 쪼끄마한 마음의 씨였는데 지금 몸뚱이 속에 마음의 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석류 안에 씨앗이 많이 들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한철 살면서 조건없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있어야

☞ 29면에서 계속

다. 근데 그 많은 씨가 든 석류를 그냥 석류라고 하지요. 그렇죠? 석류라고 하죠. 우리 사람도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자생 중생 개개의 모습과 의식 또는 생명을 따로따로 이름 부르는 일이 없죠. 빗방울이 다 모여서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 속에 그렇게 자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 의식이 마음의 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를 먹어도, 하다못해 사과를 하나 먹어도 혼자 먹는 게 없습니다. 수십억의 생명들이 먹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속에 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하면 사대가 흩어져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의 씨를 많이 해 놓고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익이 없고 생산할 수가 없다면 아마 우리의 생명들을, 모습들을 이렇게 형성시켜 놓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주의 섭류에서 모든 생산을 해서 우리가 점점점점 불어나가게끔 한 자체가 바로 마음의 씨입니다. 씨 하나에 의해 석류가 열리면 그 석류 하나 안에 씨가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듯이,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쥘래야 쥘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의 씨 하나가 그렇게 많은 악업 선업의 씨를 내 몸뚱이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었다고 하는데 내가 먹은 게 어딨습니까? 수십억의 생명들, 모습들, 의식들이 그냥 하나가 들어가면 서로 먹고 사는데 아니, 여러분은 입을 빌리고 손을 빌리고 눈을 빌리고 귀를 빌리고 코를 빌리고 몸뚱이 전체를 다 빌려서 그 생명들의 집 노릇을 하고 집합소 노릇을 하고 심부름꾼이 되고 관리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기릅니다. 그러니까 기른다 기보다도 그것이 바로 즉 자기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시발점의 미생물이 지금 종점에 가서도 또 미생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을 고등 동물이라고 하죠? 인간은 위대하다고 보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깨달아서 내 자생 중생들이 모두 진화되고 창조가 되고 바로 화신이 되고 응신이 돼야, 천백억화신으로 바뀌어서 천도가 돼야만이, 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이 바로 미생물을 벗어나고 부처도 되고 법신도 되고 일체가 다 되는 법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거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전체 모두가 부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팠다 하면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데, 한마음 안에서 모두가 출현을 해서 응신으로 응해서 나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발전을 못해서 미생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생물에서 왔다는 것을 각자 자기의 몸속을 보면 증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수억겁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몸속을 보면 자기가 바로 미생물에서 왔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왔다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으면 물주머니 속에서 나오게 돼 있죠? 그것이 그 증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또 물주머니에서, 어항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이 무슨 산하대지의 턱 틔어진 허공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항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는 여러분이나, 또 몸뚱이가 어항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이 내 자유껏 누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바로 마음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 자생중생들 틀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항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와 뭣이 또 다릅니까? 거기서 마음이 벗어나야 내 몸, 어항 속에서 사는 몸뚱이, 수레바퀴에서도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마음을 쓸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어항 속이라 함은 공기주머니를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서는 한 치도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복으로 돌아친다면 항상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날 좀 살려 달라고 비는 거와 같아서 더더욱 자기 마음은 자기 업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항 속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첫째, 내 업식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둘째, 물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셋째, 허공 즉, 불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소립니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느라고 그런 겁니다. 그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실이지마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 못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무(無)의 세계, 바로 정신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물에서도 소용돌이가 있고 허공 바람 속에서도 소용돌이가 있고 마음의 불 속에서도 소용돌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용돌이를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을 넘어서야만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고 하시지마는 우리 생활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떠나서는 도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벌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 없어야, 개개인들이 다 '내가 없다.' 이런 도리를 알아야 자유인이 될 겁니다. 내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먹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바로 내 몸속에 있는 생명들이, 모습들이, 의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 하나를 먹어도 내가 혼자 먹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시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내 한몸 속에 있으니까 한마음이죠.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놈도 그놈들이요 돈을 많이 벌게 하는 놈도 그놈들이요 먹는 것도 그놈들이 같이 먹는 것이요, 하나도 혼자 하는 게 없어요. 공동체로서 공동 작업을 하면서 공생·공용·공체·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에게 뭐를 줬다고 하더라도 아예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줬다.' 이러는데 내가 줬다가 어디 있습니까? 수십억의 내가 있는데 말입니다. 어떤 거를 줬는데 내가 혼자 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줬다 하지도 말고 내가 안 줬다 하지도 말고, 내가 먹었다 하지도 말고 내가 안 먹었다 하지도 마십시오. 그 가운데, 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에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거를 보고선 나쁜 거 좋은 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안되고 되는 것도 알고요. 이렇게 하면 누가 된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참 자랑스럽게 잘한 거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또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찰나찰나 내가 되는 거죠. 아버지 노릇 할 때도 내가 한 거고 남편 노릇 할 때도 내가 한 겁니다. '내가, 내가,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아서 무심이에요. 나는 무심이에요. 행도 이걸로 됐다 저걸로 됐다 이렇게 행을 하니까 '내가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캐치해서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거 할 때, 남편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요? 나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금방 "아버지!" 하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되는데요! 금방 "아무개야!" 부르면 아들이 되는데요! 이렇게 광대한 천차만별의 묘법은 아마도 마음 떠나서는 없을 겁니다. 이 마음의 도리를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구나. 너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묘법인가.'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시를 읊는 사람은 '묘법인가 하노라.' 이러고 했는데, 하하하….

하여튼 여러분,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마음공부를 해서 마음을 뛰어넘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도 여러분이 어디든 갔다 올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여기 앉아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다면' 하는데, 이건 모습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신족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다가 보세요. 여러분 안방에는 뭐가 있고, 마루 올라가는 데는 뭐가 있고, 신발장은 어디 있고, 냉장고에 뭐를 해 놓고 왔고 이런 걸 다 아시죠? 마음은 이렇게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는 것이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마음공부를 한다면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항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내가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저런 산천초목들도 서로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열매를 맺고, 가을이 오면 서로 주고받는 마음끼리 모여서 임을 기다리듯이 내년 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속삭이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말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말로다가 서로 통합니다. 그런데 신경이 날카로워서 말이 조금만 잘못되면 엇각이 나서 오밀조밀하던 사랑이 그만 변해서 돌아가죠, 증오로 돌아가고. 이러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정이나 이웃에 어떠한 문제나 괴로움이 있다고 할 때, 내가 도와주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보고 들을 때에 벌써 가설이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바로 그 이웃집하고도 가설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가설이에요. 보이는 데 물질적인 가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가설!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어떡하든지 일어서야 되겠지.' 한다면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설이 돼 있어서 불이 들어오니까 말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항상 여러분한테 말했지만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부모자식지간이나 그 마음이 돌아서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맡겨 놓으면 바로 스위치를 올려놓은 거와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불이 들어오고 이쪽에도 불이 들어오니까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불 들어오는 전력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 들어오는 건 다 마찬가지로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잘 알아들으시고 그냥 실험하시고 체험하시는 것이 바로 관법입니다. 내가 스위치를 탁 올려놓고서 지켜보는데 그 지켜보는 동안이 실험이요, 내가 그것을 '알았다! 아, 저런 것이로구나!' 할 때에 체험입니다. 부처님이 49년 설해서 가르쳐 주신 길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야 내 골수의 내 마음까지도 알 수 있노라. 그리고 일체 만물만생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느니라. 마음을 알 수 있는 까닭에 그 마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공덕의 이치를 알 수 있느니라."

(다음 호에 계속)

> 물에도 소용돌이가 있고
> 허공 바람 속에도 소용돌이가 있고
> 마음의 불 속에도 소용돌이가 있는 것입니다.
> 이 소용돌이를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넘어서야만이
> 우리의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93년 8월 15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인과 모른 유병언의 최후와 '촌극 수사'



송재운
실버타임즈 편집인

구원파(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최정점에 있는 유병언(俞炳彦, 73)씨가 죽었다. 그의 죽음은 많은 미스테리 속에 싸여 있지만 어쨌든 충격적이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비밀과 진실도 제대로 밝혀지기 어렵게 되었다. 또 하나의 대형 사건이 영원한 미제로 남는 것은 아닌지,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유병언씨는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침몰사고 최고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수배현상금을 5억 원씩이나 걸고 검경이 체포에 주력하였으나 잡히지 않은 채, 끝내는 객사하고 말았다. 그의 객사지는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한 매실밭이었다.

유씨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도피를 준비, 4월 23일 경기도 안성의 구원파 본산인 '금수원' 을 빠져나와 자기 신도 집에 머물다 5월초 전남 순천 송치재의 별장 '숲속의 추억' 으로 은신처를 옮겼다.

검찰이 그의 이 은신처 '숲숙의 추억'을 덮친 것은 5월 25일. 그러나 수색은 실패였다. 그를 잡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6월 12일 별장에서 한 2km쯤 떨어진 매실밭(순천시 서면 학구리)에서 노숙자 차림의 한 변사체가 그 밭주인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때 시신은 얼굴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다 한다. 미지의 시신이 이날 경찰에 신고된 지 꼭 40일 만에 유병언 씨로 판명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6월 12일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무연고 노숙자로 추정되는 변사체의 머리카락과 대퇴부 뼈에서 채취한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장성 분원에 보내 DNA 검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는 의뢰 40일만인 7월 21일 저녁에 나왔다. 그 무연고 노숙자의 DNA는 현재 수감 중인 유병언 씨의 친형 유병일 씨와 일치하고, 또 순천 별장에서 채취한 유병언씨의 체액과 금수원내 유 씨 집무실에서 수집한 DNA와도 일치했다. 이를 토대로 순천 장례식장에 보관중인 변사체의 시신 지문을 재확인한 결과 유병언 씨와 같다는 사실을 최종확인 했다.

결국 매실 밭의 부패한 변사체는 곧 다름 아닌 유병언씨의 시신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의 죽음은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사건은 이러한 유병언씨의 죽음으로 종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의 사망은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파헤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각종 보상문제 등에서도 그 재원 마련의 길이 수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하면 그가 져야할 재무상의 문제들까지 정부나 국민의 몫으로 돌려지기 쉽게 되었다.

유병언 씨의 죽음은 또 하나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바로 그의 사인의 규명이다. 그 사인에 대해 논란이 많으나 이러한 문제들은 '국과수' 에서 사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사건을 겪어오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지만 한두 가지만 들어 이야기 하자면 정치권의 대응 방식과 유병언 씨 일가의 부도덕한 삶의 방식을 들 수 있겠다. 세월호 참사 사건은 원인 제공부터 사건의 최종 마무리까지 책임이 선사와 선주 유병언씨에게 있음에도, 피해자인 유족이나 여야 정치권에서는 선주 유병언 씨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한 마디도 물은 일이 없다. 유병언씨에 대해서는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였다.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랬을까.

그리고 다음은 유병언씨 일가의 무한한 탐욕과 부도덕한 생활이다. 국내외서 벌이는 이들의 호화, 사치, 염치를 모르는 무절제한 행동들은 종교인은 그만두고라도 상식 있는 인간이면 할 짓이 아닌 것들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인과경에는 "자기가 지은 업보는 자기가 받고 자신이 뿌린 씨앗은 자신이 거둔다"고 하였다. 유병언 씨는 세월호 참사가 나자마자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며, 국민들에게는 진심어린 사과를 통하여 허탈한 심정을 달래 주어야 했다. 그리고 사건의 수습에 적극 나서야 옳았다. 그는 회개와 사랑을 생명으로 하는 종교지도자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는 반대로 희생자와 유족, 국민들을 우롱하며 도피에만 급급했다. 그리고 급기야 맞은 것은 떠돌이 노숙자의 신세와 같은 비참한 최후, 곧 죽음이었다.

자기가 지은 업보는 자기가 받고, 자신이 뿌린 씨앗은 자신이 거두는 인과의 진리를 그는 몰랐던가.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창작염불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7월 17일 조계종 교육원 주최로 '제1회 학인염불시연대회' 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비구니 학인 스님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작 염불들이 선보여졌다. 파격에 가까웠던 창작염불에 대한 시선은 분명히 나눠진다. 창작 염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대중 위한 염불도 필요하다



인묵 스님
조계종 의례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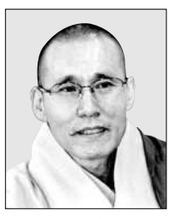
창작 염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기존 염불은 전통적인 장엄미가 있지만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대중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처음 열린 학인염불시연대회는 창작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때는 기존 형식에 비춰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회에서도 부처님 앞에서 율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기도 하다.

모든 염불을 창작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하는 전통적인 염불 의례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염불은 그 층위가 나눠져야 한다. 이제 일반 대중에게 하는 염불은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현대적 율곡으로 새로 만들어져 보급돼야 한다.

한국불교 안에서 염불 수행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이 제안했던 종단 차원의 '염불발전위원회' 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스님이 스스로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 시대에 어울리는 염불을 스님들이 하면 재가자들까지 바로 확대된다. 때로는 파격도 필요한 법이다.

전통과 기본이 더 중요하다



원학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

처음 대회 심사 의뢰를 받고 학인들의 염불에 기대했던 것은 기본 조석 예불과 행선, 관음시식 등 기본적인 부분이었다. 막상 대회에 가보니 파격적인 창작 염불들이 많았다. 대회를 아예 전통과 창작, 두 부분으로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 아쉬움이 많았다.

창작 염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염불 시연 대상자가 문제이다. 염불 습의가 완전한 스님이 대중들을 위한 염불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다. 아직 성글지 않은 학인 스님들이 너무 파격을 좇아가는 것은 전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심을 지울 수가 없다. 학인 스님들은 전통을 배우고 익혀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대중을 위한 염불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과 전통이 없으면 염불의식이 가지는 종교적 장엄미는 사라지게 된다.

염불은 기본적으로 전통의 소리를 기반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울린다. 전통이 없는 창작 염불은 몸은 움직이게 해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창작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과 기본이다.

창작염불은 新포교콘텐츠



가섭 스님
조계종 교육국장

학인염불시연대회에 대한 논란이 들린다. 그러나 염불은 이러해야 한다는 고착화된 관념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염불은 말 그대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과 이를 따르고자 하는 염원이 녹아 있다. 이것이 의식과 만나면 의례가 되는 것이기에 염불형식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본질을 얼마나 구현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사장삼을 수하고 율동함으로써 위의가 어그러진다는 지적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학인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과감하고 당돌했을 것이다. 성글긴 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염불이 너무 무겁고 의례화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염불시연대회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염불의 대중화와 생활화였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청암사 승가대학팀은 최근 똑같은 내용으로 어린이법회에서 염불시연을 하고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포교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창작염불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봤으면 한다.

社說

韓 전통산사 세계유산 가치 충분하다

한국의 전통 산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사업이 탄력이 붙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계종이 오는 8월 6일 총무원 지하 공연장에서 한국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발족식을 개최한다.

전통 산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한 사업은 2011년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전통사찰 세계유산 추진 전문가협의회' 구성하며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듬해에는 법주사와 마곡사, 선암사, 통도사 등 7개 사찰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2013년 이들 사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다.

이번에 발족하는 등재 추진위원회는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린 한국의 전통 산사를 2018년까지 최종 등재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다양한 연구와 관련 학술세미나를 열고 전통 산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되기 위한 보편적 가치를 살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선 · 교 융합의 독특한 형식과 현재까지도 승가 공동체의 생활 문화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역동성이 그대로 살아있다.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돼 건축물이나 지형이 잘 보존되고 있고, 각종 회화, 석조물, 불상 등을 통해 다양한 시대 층위와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실제 2012년 9월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학술대회 참석한 존 허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문위원회장은 "한국의 사찰은 인도로부터 불교가 전파되는 동안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의 핵심 원칙, 즉 종교철학이 올곧게 전승돼 왔다는 사실에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통 산사는 분명 한국의 정신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보고이다. 한국불교의 전통산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불교계와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대불련 활성화는 총동문회 로드맵부터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말단 사원서 출발해 현대차 베이징법인 사장까지 역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백 회장은 자신의 이러한 성공 신화 뒤에는 대불련 활동이 크게 작용했다고 했다. 백 회장은 한국사학계 거장이던 故 김상현 동국대 교수와 대불련 활동을 함께 하기도 했다. 그만큼 대불련은 그의 인생에서 청년시절 꿈과 불심을 함께 키워주던 정신적 울타리였다.

이제는 선배가 돼서 대불련 총동문들을 이끌며 선후배간의 갈등을 봉합한 백회장은 10~20년 후 고령화된 불자들이 떠난 그 자리를 채워줄 이들은 바로 대불련 회원과 같은 젊은 세대들이며, 이들이 바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기둥이라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학생 불교동아리 활동을 중흥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모두가 하나가 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8월 23~24일 양산 통도사서 제12회 총동문대회를 개최한다. '열어온 50년! 열어갈 50년!' 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불련 내홍이 끝난 이후 첫 행사라는 점에서 교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대학생 동아리들은 대불련 뿐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난국을 맡고 있다. 그중 종교 동아리들의 회원가입과 네트워크 구축은 어려운 상태다. 이제는 갈등이 아닌 화합과 대불련 조직 활성화를 위해 대불련 총동문회부터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때다. 현재 대불련은 전국 360여 대학 가운데 60여 대학에서만 활동한다고 한다.

대학생 불자 육성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회원간 · 세대간 소통을 늘려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대학생 불교 활성화를 위한 총동문회 로드맵이 절실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허리 · 팔 · 다리 · 무릎 · 어깨 등 ...
통증이 있으시분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효도선물
글로코에이



문질러 발라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

120㎖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여시아문 추천 불서(12)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천진불 원담스님의 사자후

덕숭산 법향(원담법어)

수덕사 엮음 | 566쪽 | 188*257 | 30,000원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故 원담(1926~2008) 선사의 1980년 하안거 결제부터 20여년 간의 법어를 모아 엮은 선(禪)법문집. 법상에 오른 노 선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스님의 어투가 최대한 살려진 활구법문(活句法門)을 접할 수 있다.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선사의 활발한 선지(禪旨)와 고준한 법(法)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원담선사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 평생을 참선과 공부에 매진한 선승이다. 특히 12살의 나이부터 만공 스님을 시봉, 스님의 열반(1946)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법손(法孫)으로서 '천진불(天眞佛)'로 일컬어졌으며, 서예에 능해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을 남긴 고승이다.



"무정설법이 별것 아니니 목전에 역력하여 다만 이것이다"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대원스님 지음 | 양장 | A5 | 347쪽 | 13,000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밥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심이 진정으로 성성해져서 매(昧)하지 않으며, 그 의정을 그대로 깊이깊이 끌고 나가면, 내가 의식이 없는 세계에 가서도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성성하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나 깨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성한 지경에 가면 비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어떠한 경계든 경계에 부딪혀서 뒤집어 집니다. 번신일전(飜身一轉) 즉 몸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알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방식과 화두 참구법의 핵심을 담은 선(禪)법어집이다.



그대 안의 신령스런 불씨를 되살려 활활 타오르게 하라!

불씨

지문스님 지음 | 양장 | A5 | 318쪽 | 13,000원

"허공은 가장자리도 없고 중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중심이자 가장자리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로도 끝이 없고 미래로도 끝이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 시간이 바로 맨 처음이자 맨 마지막입니다."(본문 중에서)
1970년 부산 범어사로 출가, 광덕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은 후 범어사, 통도사, 극락암, 해인사 등에서 수선안거 한 지문 스님의 법문집. 저자는 우리의 참된 모습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완벽하다면서, 우리의 참된 성품도 신령스러운 빛으로 드러나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우리가 이 빛을 따라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욕심이 그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신령스러운 빛(불성)을 되살려 낼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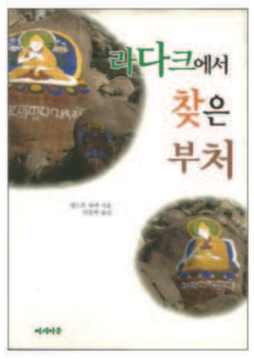


가까이서 지켜본 스님 85명의 진솔한 수행일화

스님 이야기

저자 지묵 | 448쪽 | A5 | 148*210 | 12,000원

수행길에서 만나는 스님과 불자들은 모두가 선지식이다. 15명의 스님들에 의해 쓰여진 85명 스님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진솔한 수행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은 책이다. 잘 알려지거나 높은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보다는 숨어있는 선지식과 수행자 위주로 구성을 하였다. 책에는 송광사 지묵 스님 등 15명의 스님이 필자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 '한국의 부루나존자'로 불리는 종범 스님, 20여년 가까이 장좌불와(長坐不臥)·오후불식(午後不食)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 등 그동안 곁에서 지켜본 큰 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英 시인이 티베트 스승을 통해 영적으로 눈뜬 여정을 그린 책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앤드류 하비/연호택 옮김 | 신국판 | 377쪽 | 12,000원

인도 태생의 영국 시인 앤드류 하비(Andrew Harvey)가 라다크에서 만난 스승 링포체(Thuksey Rhinpoche)를 통해 얻게 된 영적 눈뜸의 과정을 그린 책. '라다크로 가기까지', '탐험', '링포체에게로' 순으로 구성된 이 책은 생태공동체의 한 원형공간으로 제기되고 있는 라다크 마을의 자연과 사람, 문화와 전통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비록 책 속이지만 링포체를 만나 그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의 말을 접한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입정 상태에 들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라다크에서의 체험을 하나하나 살려내 글을 옮겼다고 한다. 이 책을 저술하며 자신의 에고(Ego)를 죽이고 링포체의 마음속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갔을 때 드러나는 지혜를 그대로 옮겼다는 설명이다.



마음의 고향(본래면목)을 찾아가는 염불 게송과 그 수행법 해설

염불환향곡 (해설집/독송집)

기성쾌선 지음 | A5 | 197쪽 | 7,000원(독송집 5,000원)

마음의 고향(본래면목)을 찾아가는 염불 게송과 그 수행법을 해설한 책. 18세기의 선지식인 '기성 쾌선' 스님이 지은 비교적 짧은 글로 부드러운 가요 형식을 취해서 알기 쉽게 불교를 소개한 글이다. 제목에서 보듯이 그 내용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여기서 고향이란 우리 마음의 본원을 이야기한 것이다. 중생들이 우주적 마음의 본원에서 빗나가, 고향을 떠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어떻게 본원을 회복하고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경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염불환향곡은 조선 영조43년에 경남 밀양군 화악산 운주암에서 처음 간행되었다. 이 환향곡은 장엄염불이면서 별곡처럼, 가요체로 엮어졌는데 가요체의 염불곡으로는 최초의 것으로 〈석문의범〉등에 나오는 장엄염불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다.



깨달음의 꽃을 피우기 위한 햇빛 · 물 · 대지의 자양분과도 같은 말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흥교스님 지음 | A5 | 374쪽 | 15,000원

"이 빛깔 저 소리에 끄달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입맛에만 맞추려 한다면 그대 자신의 삶은 어느 세월에 구가할 것인가. 이제는 그대 자신의 주인이 되라."(본문 중에서)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불성의 본디 모습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산속의 절에서 들을 수 있는 풍경소리처럼 새로움을 일깨우는 흥교 스님(대각회 이사장)의 법문을 담고 있다. 저자는 33조사의 깨달음의 노래와 십우도 해설을 통해 마음공부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학적 이론으로 접근해 본 불교의 가르침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석구석에 배치된 '달(진리)을 가리켜 보이는 손가락들(방편)'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공이 되어 누리는 자유의 삶을 추구한다.



대자유를 찾아 세속을 떠난 출가수행자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산빛 물든 사람들

정과스님 지음 | 302쪽 | 148*210 | 10,000원

봉암사, 해인사, 칠불사, 송광사, 상원사 등지의 선원에서 화두수행을 한 정과 스님이 출가 수행자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여주는 책. 자연 속에 삶의 무거운 짐을 내맡기고 진정 자유로운 삶을 찾아 세속을 떠난 스님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산기슭 빈집', '무아에 대한 오해와 혼란', '참회와 발원', '차라리 흘러가는 구름에게'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편안함과 한가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억겁의 윤회를 끊고 영원한 진리 속으로 들어서기 위해 마음을 다지는 수행자들의 일상이 잔잔하게 펼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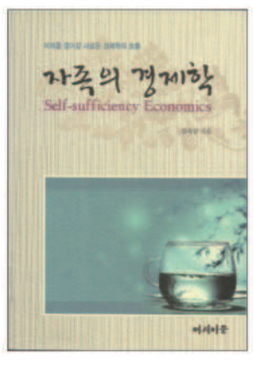


인생에 대한 사색과 지혜 담긴 수필 · 판화로 힐링을!

작대기 (힘들 때마다 당신의 삶을 받쳐 줄)

장용철 지음/정병례 판화 | 161쪽 | 148*210 | 9,000원

오가는 지하철 구내에서 인생에 대한 사색과 지혜의 편린을 만나게 해주는 '풍경소리'의 작가 시인 장용철의 촌철살인의 지혜가 담긴 예화들을 담은 책. 여기에 전각작가 고암 정병례의 판화를 함께 엮었다. 이 책은 지하철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풍경소리'의 게시판에 실렸던 글과 수상집 〈눈은 눈을 보지 못함같이〉에 수록되었던 글, 그리고 인터넷 상에 있는 저자의 글이 담겨 있다. 버릴 수도 없고, 끝까지 지고 가기도 벅찬 등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받쳐주는 작대기 역할을 해주는 글을 모아 엮었다.



탐욕 · 집착 벗어난 새로운 불교경제학의 패러다임 제시

자족의 경제학

김옥암 지음 | 229쪽 | 128*188 | 11,000원

자유시장경제는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며 순환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더불어 인간이 물욕을 좇는 만큼 그 희비쌍곡선은 클 수밖에 없고 그 어디서도 진정으로 행복한 경제는 만날 수 없게 된다. 뿐만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이 현대인에게 미치는 파급력 역시 만만치 않다. 그 좋은 예가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상태에 빠지게 한 지난 2008년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이다. 그 일을 계기로 세계의 지성들은 다시 한번 따뜻한 경제를 주장하고 있다. '자족의 경제학'은 그 따뜻한 경제론 중에서도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탐욕의 경제사상을 제어하고 소욕지족의 경제사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안동대 경제학과 김옥암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소욕지족으로 만족하는 불교경제학의 이론적 모색과 체계의 구축을 꾀하고 있다.



정일선사의 인가를 받은 능허거사의 화두참선 구도기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능허 지음 | A5 | 238쪽 | 12,000원

정일 선사(선학원 이사장 역임)의 가르침과 그의 인가를 받은 능허 거사의 간화선 수행과 화두 타파 이야기. 저자는 한때 세속의 부와 영예를 누리고 살았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다. 그는 전국의 유명 기도처를 오가며 불교의 깨달음을 갈구하던 중 1998년 서울 보광사 조실이었던 정일 큰스님을 만나 용맹정진하여 4년만에 부처님 법의 이치와 인과의 도리를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무(無)'자 화두를 참구하여 1년만에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두 공안 '덕산탁발화'와 '파자소암'의 관문을 3년만에 타파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김해에 바라밀선원을 세운 저자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어찌해야 아이들의 삶 속에 불성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반야의 지혜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

김종서 지음 | 231쪽 | 148*210 | 9,000원

지난 30여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불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는 서울대 명예교수 김종서 박사(2013 대한민국 평생교육 '명예의 전당' 헌액자). 그는 개인주의와 가족이기주의, 물질 위주의 사고가 팽배한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돌려놓을 수 있는 비방으로 '생활 속의 불교교육'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불법의 도리를 풋대로 삼은 자녀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담고 있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생각과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서, 부처님이 우리와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인간이란 어떤 기대의 제시를 받고 이를 확신하면 제시된 기대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알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자기 충족 예언"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적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 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